현대불교

행복 만들기 캠페인
부처인 당신을 공경합니다

제 739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불기 2553년 7월 8일(음력 윤5월 16일) 수요일(주간)

“경내지 공원서 제외 안 되면 승려대회 개최”

조계종 전국본말사주지 결의대회서 MB정부 압박… 2일 통도사, 1500여 스님 ‘한 목소리’

국립공원에 편입돼 40여 년간 이중 삼중의 법적 규제와 재산권 침해로 불편부당함을 감수해야 했던 조계종이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었다. 또 전국 사찰에는 사찰경내지의 자연공원해제 등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스님들을 지지하는 조계종 중앙신도회 성명도 이어지면서, 자연공원 정책을 둘러싼 불교계와 정부의 오랜 갈등이 폭발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은 7월 2일 양산 통도사에서 ‘사찰경내지를 자연공원에서 해제하기 위한 조계종 전국본말사주지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불국사 신흥사 대흥사 선운사 등 조계종 25개 교구본·말사 주지스님과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을 비롯한 종회의원스님 등 1500여 스님들이 참석해 결의문과 대국민호소문 등을 발표했다.

행사명에서 드러나듯 조계종의 요구는 “사찰경내지를 자연공원에서 해제하라”는 것.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불교계와 관련한 중첩규제를 일원화시키겠다고 공약한 것과 맞물리며 MB정권을 압박하고 있다. 40여 년 한결 같은 조계종의 주장이 이번에는 관철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7월 2일 양산 통도사에서 열린 조계종 전국본말사주지 결의대회에서 총무원장 지관 스님,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 등 1500여 스님들이 행진하며 정부의 일방적인 자연공원법 개정 중단과 불교계 관련 다중규제를 일원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국립공원 명칭부터 잘못

1967년 군사독재정권 당시 건설부는 ‘공원법’을 제정해 천년고찰들을 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국립공원에 편입시켰다. 이때부터 해인사 송광사 화엄사 법주사 등 주요 사찰이 공원화, 관광지화 됐고, 사찰의 자주권과 재산권의 침해가 시작됐다. 종교 본연의 수행과 포교의 권리는 억압받을 수밖에 없었다.

물론 국립공원 제도 시행 초기부터 불교계는 반발해왔다. 1967년 당해부터 1971년,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이었던 청담 스님이 정부에 ‘공원법 시행반대 건의서’를 제출했다. 최근에만도 1986년 9월 합천 해인사에서 전국승려대회가 개최된 것을 비롯해 1999년과 2002년, 2007년 계속해서 범불교도대회와 결의문 발표가 줄이었다.

이날 결의대회도 청담 스님이 자연공원법 전신인 공원법 제정 당시 “공원법 시행은 종교의 존엄성과 사찰의 자주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사찰경내지의 공원 지정을 반대한 것과 같은 맥락이었다.

조계종이 정부에 항의하는 동안에도 사찰은 공원화되고 명산은 유흥지로 변질됐다. 산과 사찰이 함께 망쳐지면서 문화재가 단순히 죽어버린 옛 것으로 폄하된 것은 당연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2008년 기준)에 따르면 국립공원에만 국보 38점, 보물 142점 등 749점의 문화재가 있다. 이들 문화재를 비롯해 국립공원에는 39개 사찰이, 국립·도립·군립공원 전체에는 150여 사찰이 있어 자연공원법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셈이다.

#위법망구 각오, 역량 총결집

이날 행사에서 1500여 주지스님들은 △사찰경내지를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 도립, 군립공원에서 해제할 것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 전통사찰보존법 등 불교계에 대한 다중규제의 일원화 △(가칭)문화유산법 제정과 문화유산지역 신설 등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사찰 토지 위치와 면적을 표시한 사역도를 각 사찰 입구해 게시하고, 전국 사찰에 결의사항 등을 적은 현수막을 내거는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시민단체 및 국회의원과 연대하는 등 요구조건이 수용될 때까지 종단의 역량을 총결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특히 스님들은 자연공원법 개정 등 이명박 정부의 불교계 공약이 실천되지 않으면 서울 조계사에서 전국승려대회를, 서울시청 앞에서 범불교도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산문폐쇄도 불사하기로 결의했다.

#문화유산지역지정이 해답

불교계의 반응이 거세지자, 환경부는 결의대회에 앞서 6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계종과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계종 기획실장 장적 스님은 “정부와 협의체 구성이나 어떻게 해결하자는 안에는 현재까지 의논도, 합의도 된 바가 없다”고 말해 환경부의 발표가 일방적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이날 법어에서 “사찰이 통일된 법을 엄격히 준수해 자연 훼손이 없도록 소중히 지킬 것을 굳게 다짐해야 한다”고 당부한 것은 정부와 상당 수준 조율됐음을 짐작케 한다.

사실상 사찰경내지가 자연공원에서 해제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조계종이 최근 공개한 사찰사역도에 따르면, 가야산국립공원 내 해인사 소유 토지는 39%, 문화경관적 이용가치를 따지면 가야산 국립공원의 80%에 달한다. 이는 속리산 법주사나 오대산 월정사, 설악산 신흥사 등 국립공원 내 조계종 사찰들이 모두 비슷한 수준. 면적만 따져도 자연공원 중 2억 여 평(坪)이 조계종 사찰경내지다. 때문에 사찰경내지가 자연공원에서 제외된다면 국립공원 자체가 무색해진다.

결국 자연공원법을 개정해 사찰경내지를 문화유산지역으로 지정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해법으로 보인다. 이 다통령 공약대로 불교계를 중첩규제하는 법들이 일원화돼야함은 물론이다.

결의대회 하루 전인 1일, 이명박 대통령은 민주평통 출범식에서 “남남갈등을 극복해 국민 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MB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불교계와 잇단 갈등을 빚어왔다. 이번 7·2 조계종 본·말사주지결의대회로 드러난 자연공원법 개정 논란은 이명박 대통령이 불교계에 심은 갈등의 씨앗을 화해의 열매로 수확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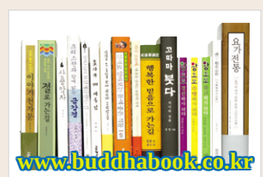
불교계와 MB정부가 선연이 될지, 계속된 악연으로 남을지가 40여 년 불교계 숙원을 둘러싼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있다. 조동섭 기자

법구경

자신을 어리석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이미
어리석은 이가 아니다.

현대불교@장터
HyunbulShop.com
문의전화 02)2004-8215~6


신상품 LED인등 LED전구
찬덕 031)792-6288
연등 031)794-4055


www.buddhabook.co.kr
02)3672-7181~5
불교서적총판
운 주 사

〈PR〉 불경금책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복장의식 및 소장용으로 휴대가 가능하며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맞춤식 주문제작이 가능합니다
실물크기(3.5×5cm) 금강경 23매
용도:상량식, 불사 복장의식, 영가천도
문의 02)722-1850


기축년(운년)!
삼사순례와 방생법회는 윤장대가 있는 용문사에서!
054)655-1011·011-336-4665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소백산 용 문 사


열대과일 두리안 전문
향다원
보이茶, 각종 茶器 생활 도자기
031)882-1357
전국 직접 배송


선지식을 찾아서 ▶14 동명 스님


인터뷰 ▶8 고준환 교수

“불교 배척하는 엄중한 범죄 행위”

北 조불련 자연공원법 개정 비난 성명

6월 27일 북한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이하 조불련)가 남한 정부의 ‘자연공원법’ 개정을 비난하는 성명을 내고, 이를 7월 1일 양산 통도사에 팩스로 보내왔다.

조불련은 “남한의 자연공원법 개정 추진은 불교를 배척하고 신성한 도장(道場, 도량)에 막대한 해를 끼치려는 또 하나의 엄중한 범죄행위”라며 “‘종교차별 책동의 또 하나의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는 “(관례에 어긋나게) 담화문은 북측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보내온 것”이라며 “(담화문에 대해 사전에 전달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은 없다. 아무 대응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감 사 의 말 씀

귀의삼보 하옵고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법하의 존체청안 하심과 하시고자 하시는 제반 불사가 부처님의 자은으로 원만하게 회향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난 6월 25일(음력 윤5.3) 충북 청원군 미원면 쌍이리 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 평화재단 제2담화정사에서 봉행한 일붕 서경보(一鵬 徐京保)존자 탄신 96주년 및 원적 13주기 추모대제와 세계평화 및 남북평화통일기원대법회와 세계불교법왕청 제2세 법왕 추대법회에 공사간 다망하심에도 불구하시고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시어 추모와 축하의 예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도리이오나 우선 서면으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불교텔레비전 방송시간안내

1차 – 6월 30일 오후 2시 30분 | 2차 – 7월 2일 오후 7시 30분 | 3차 – 7월 4일 오후 4시 10분

불기 2553(서기 2009)년 6월 일

세계불교고승총연합회 원로의장 신인왕
일붕존자탄신96주년및열반13주기추모대제와 세계평화남북평화통일기원대법회 봉행위원장 김원각
(재)세계불교법왕청평화재단 이사장 담화 이존영 합장



죽비와 목탁



김성우 취재부장
buddhapia5@buddhapia.com

김어수 법사 탄생 100주년

"자기 수양을 위해 입산이 필요한 것처럼, 남에게 봉사하기 위해 하산도 필요하다."

현대의 대표적인 시조시인이자 조계종 첫 중앙상임포교사였던 영담(影潭) 김어수(金魚水, 1909~1985) 법사. 석주 스님과 함께 공부한 비구승이었다가 출가 25년만에 환속하면서 밝힌 하산의 변이다. 이후 국어교사와 교장, 한국현대시조시인협회 초대회장을 지낸 후 입적 직전까지 포교사로 법을 전했던 그가 탄생 100주년을 맞았다.

그러나 사후 25년이 지난 지금, 그를 기억하는 이가 많지 않다. 오히려 그의 고향인 영월군에서 시비(詩碑)를 건립하는 등 선양사업에 앞장서고 있다. 하지만, 불교계와 문단의 기억에서 잊혀지는 사이 중동면 직동리 주민들의 뜻과 군의 예산지원으로 설립된 시비를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해 8월 단풍산 계곡축제에서 제막식을 가진 김어수 시조시인의 시비가 잘못 제작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 법사의 제자인 상욱 스님(불암사)과 한국시조시인협회(이사장 한분순) 등이 "시조의 형식(율격)을 살리지 못한 채 내용이 새겨져 선생의 작품과 시정신이 왜곡됐다"며 재제작과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김어수 선양사업회는 올해 가을 쯤 추진하는 '김어수 100주년 기념사업'에 문학공원비를 세우면서 기존의 시비를 치우고 시비를 다시 건립할 계획이다. 주민들도 불교계나 선양사업회 등에서 시비를 다시 제작할 경우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예산 확보 문제로 기념사업이 제대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김 법사의 사진과 시집, 자필원고 등 유품을 보관하고 있는 상욱 스님은 "김어수 선생의 작품과 삶이 문학사적으로 재조명 받고 있는 현시점에서 고향사람들의 무지와 소홀한 행정으로 선생의 참뜻이 왜곡되고 있다"며 "늦었지만 선생의 사상과 문학정신을 되살리기 위해 불교계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만해 스님과 함께 대불청의 기초를 다지고 1세대 포교사로서 전법의 큰 공을 세운 김어수 법사. 탄생 100주년을 맞아 그의 공덕을 기억하는 조계종 포교원과 대불청, 중앙신도회 관계자를 중심으로 시급히 김 법사 선양사업에 관심을 기울였으면 한다. 불교계에서 100주년 기념사업을 벌이지 못한다면, 영월군에서 추진하는 선양사업을 자문하고 힘을 실어주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가 아닐까.

東大 새 이사장 정련 스님

상임이사에 성관 스님 선출… 영배 스님 사퇴

동국대 새 이사장에 정련 스님(부산 내원정사 주지)이 선임됐다. 공석이던 상임이사에는 성관 스님(수원사 주지)이 선출됐다.

동국대 이사회는 6월 30일 본관 대회의실에서 제245차 이사회의를 열고 참석 이사 전원 찬성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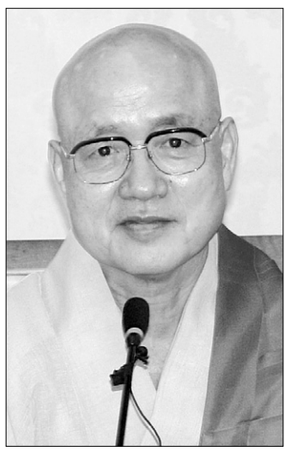
이날 이사회에는 13명 이사 중 정념 스님(월정사 주지)을 제외한 이사 전원이 참석했다. 선출 직후 정련 스님은 "학교 발전은 이사회의 원만한 운영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며 "이사님들을 비롯한 종도와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모든 일을 잘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영배 스님은 "6월 30일자로 모두 물러난다. 9년간 부족한 저를 돕고 격려해 준 임원에 감사하다"며 "(동국대) 이사장은 혼자로는 힘든 자리다. 모두가 힘을 모아 100년 사학 동국대의 발전이 계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학생 · 교수 만족하는 학교 만들겠다"

동국대 제36대 이사장 정련 스님



"아무리 좋은 뜻이 있어도 소통하지 못하면 아무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소통으로 화합된 이사회를 통해 동국대의 발전을 견인하겠습니다."

6월 30일 동국대 제245차 이사회의에서 새 이사장에 선출된 정련 스님(사진)은 이사회의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소통과 화합을 강조했다.

스님은 "개인적으로는 100년이 넘는 종립대학 이사장으로 선출된 것이 영광이지만 주어진 소임을 다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과 그 무게를 절감하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련 스님은 "동국대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모든 종도와 학교구성원들의 염원을 높이 받들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며 이사회의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스님은 "학교발전은 이사회가 원만히 운영되는데서 시작된다. 법인이 안정돼야 대학도 안정될 뿐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안정된다"며 '위로부터의 변화'를 강조했다.

정련 스님의 논리는 갈등과 발전저해의 원인을 남이 아닌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찾겠다는 말로, 그동안 동국대 이사회를 비롯한 교계 지도부가 화합하지 못해 지탄 받았던데 대한 반성으로도 해석된다. 또 '노블레스 오블리제'의 불교적 실천으로도 보인다.

정련 스님이 학교 운영과 관련해 주목하는 부분은 학생의 면학분위기와 교수의 연구분위기 조성이다.

스님은 "학생과 교수가 만족하는 학교를 만들어 동국대가 명문사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필요한 재정수입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종단 권력이 조계종 총무원장과 동국대 이사장으로 대립됐던 구도에 대해서도 스님은 '화합'과 '상생'을 기조로 변화시킬 뜻을 내비쳤다.

스님은 "종단 내 원로대덕스님들 가운데에는 동국대에 애정을 갖고 있는 분이 많다"며 "총무원과 잘 협력해서 종단문제에 도움이 필요하면 돕는 등 종단과 학교발전을 위한 상생의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정련 스님은 1956년 석암 스님을 은사로 부산 선암사에서 출가했다. 1958년 석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8년 비구계를 수지했다.

스님은 조계종 포교원장,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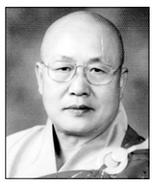
사회복지법인 내원, 재단법인 내원청소년단 등을 설립한 스님은 1997년 조계종 포교대상 수상, 2002년 국무총리표창 등을 수상했다.

원로의원 무공 · 선관위장 일운 스님

태고종 종무기관 및 총무원 인사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은 7월 1일前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무공 스님을 원로의원으로 추대하는 등 종단 인사를 단행했다.

신임 원로의원 무공 스님은 해인사 대교과와 영남대 행정대학원을 수료하고 삼각사, 무량사를 창건했다. 서울강북경찰서 경승실장, 한국불교태고학회 창립회장, 태고종 중앙포교원장, (사)대륜불교문화연구원 이사장, 태고원융회 창립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무공 스님.

이날 인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는 일운 스님, 종책기획위원회 부위원장에 호명 스님, 종정예경위원에 상허 · 상명 · 상진 스님, 총무원 호법부장에 완월 스님, 호법국장에 혜성 스님이 각각 임명됐다.

김성우 기자



군종특별교구 42기 신임군승 고불식 봉행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일면)는 6월 26일 제3사관학교 충성호국사에서 신임군승 42기 20명의 임관 · 고불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교구장 일면 스님 외 수덕사 주지 웅산 스님 등 은사 스님, 선임군승들이 함께 했다. 이어 신임군승들은 29일 조계종 총무원을 찾아 총무원장 지관 스님에게 신고식을 올렸다. 지관 스님은 "그동안 어려운 훈련을 이겨내느라 고생이 많았다. 가행정진으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지관 스님 봉암사서 대중공양

종립 특별선원 수좌 격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6월 30일 종립 특별선원 문경 봉암사를 찾아 대중공양을 올리고 안거중인 스님들을 격려했다.

총무원장스님은 대중공양 후 봉암사 수좌 적명 스님과 주지 원타 스님과 함께 경내를 둘러본 뒤 환담을 나눴다.

현재 봉암사 태고선원(太古禪院)과 성적당(惺寂堂) 등에는 80여 수좌스님들이 정진 중이며, 조계종에는 전국 100여 개 선원에서 2200여 스님들이 하안거 중이다.

조동섭 기자

8개 본사 포교원장배 축구대회 개최

전국 8개 본사 스님과 신도, 포교사들의 화합과 교류의 장이 마련됐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은 7월 12일 충북 보은 종합운동장에서 '제1회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배 축구대회'를 개최한다.

각 사찰 및 신도 단체의 축구팀과 대회는 종종 있어왔지만 조계종 포교원장배 축구대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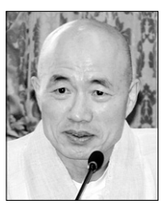
축구대회는 제2교구 용주사, 제3교구 신흥사, 제4교구 월정사, 제7교구 수덕사, 제9교구 동화사, 제8교구 직지사, 제19교구 화엄사, 제25교구 봉선사에서 참가한다.

한편, 이날 대회에서는 결승전에 앞서 가수 김흥국씨가 소속하고 있는 연예인 축구단의 시범경기도 선보일 예정이다.

이상언 기자

"종단과 소통에 최선 다할 터"

동국대 상임이사 성관 스님



"화합은 소통의 문제입니다. 종단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임 동국대 상임이사 성관 스님(사진)은 "화합을 위해서는 소통이 중요하다"며 "전임 이사장스님이 일궈온 업적을 잇고 새 이사장스님을 잘 보필해서 학교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를 위해 스님은 총무원장스님과 종단의 대덕스님들을 자주 찾아뵙고 학교 비전에 대한 종단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신임 상임이사 성관 스님은 1972년 화성 용주사에서 정무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6년 부산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공동의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수원사 주지, 로터스월드 이사장을 맡고 있다.

제37기 서울 · 경기 등 본사 행자교육

조계종 교육원 실시

조계종 교육원(원장 직무대행 법장)은 6월 22~26일 오대산 월정사에서 제37기 서울 · 경기 · 강원권역 본사 행자교육을 실시했다.

행자교육원 입교 전 사전 습의점검을 위해 열린 이번 행자교육에는 남행자 40명, 여행자 20명이 참석했다.

법장 스님은 입재사에서 "이번 교육을 통해 행자교육원에서 결연한 출가정신을 확립하고 확고한 수행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밑바탕을 갖추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원은 9월 5~27일 김천 직지사에서 제37기 행자교육원을 개원한다.

조동섭 기자

(사) 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생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 대학장 : 호암 ◆ 대학원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 학장 : 성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각 6개월 과정)
◇원서교부 : 2009년 7월 15일 부터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개 강 : 2009년 9월 7일 월요일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박사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외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범패 · 작법무 -
불교예술대학
◆ 교수 : 해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모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보존회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불자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의내용 : 사물다루는 법 등 기초교육
◇원서교부 : 2009년 7월 15일 ~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7시
◇개 강 : 2009년 9월 7일 목요일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www.kumgangnet.com 전화 02)969-2410/969-4981 / 팩스 02)964-2433

세계문화유산 경주에 산업공단 들어선다

'명계2산업단지' 2010년 완공 · 총사업비 115억 투입… 사찰 · 지역주민 등 반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된 경주 남산에 대규모 산업공단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발단은 최근 국보로 지정된 칠불암 마애석불과 보물 12점, 지정문화재 41점 등 신라불교 문화재 631점이 산재한 남산을 더욱 보호해야 할 경주시가 남산 인근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부터다.

진양개발(대표이사 안재효)이 추진하는 '명계2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10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115억원이 투입된다. 부지만 149,255㎡에 이르는 산업단지에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전자부품, 영상, 음향 등 철강 · 기계 산업이 유치된다. 업체 측은 이미 98%까지 토지 매입을 마친 상태다.

해당 업체와 지역개발과 산업입지 담당부서는 "현재 건설 중인 국도 7호선과 인접해 있고 경부고속도로가 가깝다. 명계리가 남산 국립공원을 비켜가기 때문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주민을 비롯해 용은사, 봉명암, 불일암 등 지역 사찰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미세먼지가 대기환경기준 100㎍/㎥을 초과하는 135㎍/㎥로 예상됐고, 산업폐수도 다량 발생되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계단식 공장시설로 인해 사업장 진동 및 토사침전 등 다양한 문제도 지적됐다. 이와 더불어 인근 마석산 마애장여래입상을 비롯해 북명사지 등 신라유적이 산재한 것도 중요한 반대 이유다.

지역 주민 최명호(56)씨는 "예전부터 '탑골'로 불린 이 지역은 일제시대까지 신라삼층석탑이 있었고, 고분군도 많았다. 국도7호선 공사 때도 신라사찰인 북명사 터에서 기왓장 등이 발굴됐는데도 대충 조사한 후 그대로 공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에 불국사, 은해사 등 5개 교구 본사 등은 사업을 재고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지역 불교계는 150여 주민 서명을 받아 탄원서를 제기한 상태다. 경주시가 진행한 3차에 걸친 주민설명회도 이와 같은 반대 속에 무산됐다. 하지만 문제는 산업공단 특성상 주민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봉명암 주지 법일 스님은 "산120번지 뿐만 아니라 산 118, 119번지도 함께 매입한 것은 향후 더욱 공단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라며 "그 자체로 찬란한 신라문화의 보고인 남산 인근에 산업공단을 육성하고자 하는 경주시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며 관련 당국의 대책을 촉구했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일붕 스님 열반 13주기 추모대제

법왕청 평화재단서 6월 25일 봉행



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 평화재단이 6월 25일 일붕 스님 열반 13주기 추모대제를 봉행하고 있다.

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 평화재단(이사장 담화)은 6월 25일 충북 청원 세계불교법왕청 평화재단 제2담화정사에서 세계불교법왕청 초대법왕이며 국제연합 UN. NGO 전권대사로 중생을 제도하다 원적한 일붕 서경보 스님의 열반 13주기 추모대제와 만등불사 및 세계평화와 남북통일기원 대법회를 봉행했다.

100여 종단의 200여 스님 등 1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추모법회에서 담화 이사장은 "19세의 어린 나이에 불문에 귀의한 뒤 전국의 제방선원을 두루 거치며 화두일념으로 참선정진과 중생교화에 매진해 온 존자님의 구도행을 본받아 남북통일과 세계평화에 앞장서자"고 인사말을 했다.

이어 법회에서는 고승연합회 추천으로 제2세 세계불교법왕에 부산 대각사 경우 스님이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취임식은 10월 31일 세계 60여 개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법회에서는 30여 초 · 중 · 고 학생을 대상으로 법왕청 장학회 제8회 장학금 전달식과, 노인공경 효사랑 가수초청 공연, '아직도 끝나지 않은 한국전쟁' 사진전도 함께 열렸다.

김성우 기자

대전불교사암련 대전시와 간담회

대전불교사암연합회(회장 도안)는 6월 29일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에 도움을 준 박성효 대전시장을 만나 감사를 표하고 지역불교계와 구정정책 등에 대한 담론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전불교사암연합회 회장 도안 스님을 비롯해 원로위원 등 임원 15명과 박성효 대전시장, 종무담당자 3명이 참석했다.

도안 스님은 "올해 대전에 전국체전과 국제우주대회 등 큰 행사가 많아 외국인 등 손님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문화를 알리기 위해 템플스테이 등을 개발하고, 불자들에게 공공질서 확립을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대전불교문화예술회관 및 독거어르신 위한 무료장례시설 건립, 불우이웃돕기 협조, 문화행사 시 불교예술공연 확대 등을 제안했다.

대전시는 불교문화예술회관 사전조사 · 무료장례식장 현장답사 실시 검토를 약속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하나님께서 6·25 주관?

국군 안보교육서 기독교 찬양 영상 상영

"하나님께서 신속히 미국과 UN을 들어 6 · 25 전쟁을 주관하셨다."

국군 안보교육에 기독교 찬양 영상이 상영돼 파문이 일고 있다. 육군 71사단은 6월 23~25일 실시한 동원훈련 중 안보교육시간에 문제의 동영상을 방영했다.

이 동영상은 한국예비역기독군인회 6.25 전쟁 진실알리기운동본부가 약 20분 분량으로 제작한 '6.25전쟁의 진실'이란 동영상(video.mgoon.com/1558184).

문제가 된 동영상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라는 성경구절을 시작으로 찬양 일색의 문구가 지속적으로 반복된다.

특히 6 · 25 전쟁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전쟁 발발 시 하나님께서 신속히 미국을 들어주셨으며 유엔을 통해 이 전쟁을 주관하셨다고 믿는다. 지난 전쟁을 회상하며 결정적인 순간을 주관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파문이 일자 해당부대 연대장은 6월 30일 오전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와 군종교구를 방문해 "종교관련 내용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이에 대해 종평위는 국방부에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는 한편, 안보교육교재에 대한 현황조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이어 군종교구와 함께 군내 종교편향 예방을 위한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군법사 종교편향 교육 등에 나설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대구서 단기 출가학교 열려

한국불교대학서 보름간 개최해



1일 한국불교대학 제5기 단기출가학교 입교식에서 열린 수계식에서 연비하는 우학 스님.

출가 수행자의 생활을 직접 체험하는 제 5기 단기 출가학교가 대구 한국불교대학에서 문을 열었다.

7월 1일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직장인과 군인, 학생 등 16명의 일반인들이 삭발과 수계식을 갖고 예비 승려로서 보름간의 단기출가에 들어갔다.

입교식에서 한국불교대학 회주 우학 스님은 "보름에 불과한 단기출가가 일생에서 가장 큰 보람과 의미를 주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용기있는 선택이 결실을 맺도록 최대한 뒷바라지하겠다"고 격려했다.

참가자들은 단기출가 기간 한국불교대학 부설 경주 감포도량에 머물며 기초 불교공부, 참선, 목탁 염불 습의 등 출가생활을 경험하게 된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社告 라오스 공생청소년센터 건립을 위한

희망Dream 꿈 드림

사단법인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와 현대불교신문사는 '공생청소년센터(GoodHands YouthCenter Laos)' 후원 캠페인 '희망Dream 꿈드림'을 전개합니다. 라오스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세요.



- 주 최 : (사)지구촌공생회, 현대불교신문사
- 주 관 : (사)지구촌공생회
- 기 간 : 2009년 5월 13일 ~ 8월 3개월간
- 모 금 액 : 3000만원 목표(1구좌 1만원)
- 후원계좌 : 농협) 170341-51-015696 (사)지구촌공생회
- 문 의 : 지구촌공생회 02)455-9596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00

부처님 일천 팔십분의 이름과 복장으로 사찰경제 중흥발원

"업장소멸 법륜대 부처님 자비로 복장 행사 개최!"

많은 스님들과 불자님들께서
너무나 큰 관심과 성원을 주셨습니다.
지면으로 나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달마사 청오 합장 -





이름명패

실용신안특허의 기술

- 제품명: 순금천불봉안법륜대
- 재 질: 대한민국 상감청자
- 높이 110cm
- 원통폭 45cm
- 밑받침폭 30cm
- 무게 25kg

불사의 어려움을 한탄하지 마시고 화주승의 마음으로 중생구제와 중생불사의 서원을 이루소서

지금 법당 탁자위에 한분 한분 명단이 적힌 경책이 쌓여가는 이유가 있다. 부처님이 새겨져 황금빛으로 빛나는 초소형 경책을 법륜대에 복장하기 위해서다.

집안을 위한 금강경과 건강발원으로 약사경, 수험생을 위한 반야심경에 이름을 붙여 복장하는 독특함이 있다고 한다. 한분 한분 제각기 다른 소원을 가지고 돌릴때마다 공덕을 쌓느라 법당에 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양쪽 법륜대의 1080분 명단이 돌아감은 물론 이름 수대로 경책을 할 수 있어 이 시대 포교와 사찰경제 지킴이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고 한다.

■ 법륜대 예약 대축제
(전시장에 직접 방문하시는 분에게 드리는 혜택)

1. 순금 개금비만 도착 시 지불하시고(봉안시) 나머지는 연중 4회 (정월, 봉축, 백중, 동지)로 나누어 지불하는 혜택을 드립니다.
2. 한분 한분 명단 및 주소를 적을 수 있는 카드형 권선문을 드립니다.
3. 법당 탁자 크기에 맞춤식 소법륜형, 보급형, 특대복장봉안작품이 있습니다. 직접 보시고 선택하시는 분에게 특별한 선물과 경책 견본을 드립니다.



■ 한분 한분 수작업으로 법당 탁자 크기에 맞추어 직접 봉안하여 드립니다.

불사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중생의 업장 소멸법륜대를
가장 평안하게 봉안 할 수 있는 절묘한 기회입니다.
양쪽 법륜대 1080분의 명단과 복장 불사로(일억원) 사찰경제 기반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덕유산 청다향 055)941-1083 / 010-4595-0017
생산지 :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156-4 달마사

특별기고-씨랜드 화재사건 10년을 맞으며

10년 전 오늘, 아직 풀지 못한 의문

참혹한 취재 현장에서 인과와 죽음에 의문 생겨

1999년 6월 30일, 취재를 위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를 가고 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핸드폰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갑자기 다급한 목소리로 큰 화재로 문제가 생겼으니 그리로 가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데스크의 다급한 목소리로 보아 심각한 사건임에 분명했습니다. 다른 취재를 가던 중이었지만 다 팽개치고 화성시 서신면 백미리로 달려갔습니다. 바닷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고 포개어진 컨테이너 박스가 아이들이 잠들었을 숙소로 보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화제가 진압된 상태였지만 난리였습니다. 몇몇 엄마들은 실성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면서 아들과 딸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또 어떤 엄마들은 다행히 변을 당하지 않은 아이를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재빨리 가슴에 품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고, 경황이 없이 도착하는 부모들은 자식들의 이름을 부르고 찾느라고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유치원생이 19명을 포함해서 모두 23명이 숨졌습니다.

현장에 들어갔을 때는 소방차가 뿌린 물과 처참한 흔적만이 남아있었고, 곳곳에 타다 남은 머리카락 같은 것도 보였습니다. 기자로서 보도의 모든 것을 걸고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아픔을 느끼기 전에 내 바쁨에 더 마음이 쏠려있었습니다.

그로부터 꼭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그 당시에 만났던 사람들의 울부짖음과 괴로움이 잔상으로 남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죄 없는 아이들이 죽음을 맞는 것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아도 죽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과 왜 이런 죽음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품고 그 의문을 풀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교의 인과법이 존재한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인과에 의해서 그곳에 한꺼번에 모여 죽음을 맞아야 했을까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당시 피해자 가운데 필드하키 선수로서 86년과 88년에 국가대표로 뛰어서 국가로부터 훈장을 받은 김순덕씨가 있었습니다. 김 선수의 아들이 형제도 없이 타 죽었고 이들 부부는 국가에 훈장을 반납하고 뉴질랜드로 이민을 갔습니다. 김씨는 그곳에서 중국식당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후의 소식이 궁금하던 터에 인터넷에 글이 올랐습니다. 김씨는 아들이 사라진 것에 대한 원망도 잦아들었고, 죽은 김도현(당시 6세)이의 환생으로 느껴지는 시현이가 2001년 크리스마스이브에 태어났답니다. 식당을 찾았던 어떤 스님께서 도현이에 대한 그리움이 절박한 나머지 시현이가 환생했다고 말했답니다.

가톨릭을 믿는 부부이지만 이들 부부는 이 말이 사실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시현이의 행동이 죽은 도현이와 너무도 닮았기 때문이랍니다. 간절한 서원이 그리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그때 의문으로 품었던 생사윤회 인과법에 따른 삶과 죽음의 모든 것에 대해서 간혹은 믿음과 회의를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죽음을 볼 때 그런 의문은 더욱 커집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이러한 인과법을 고칠 길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있다면 과연 피할 수 없는 것인지 도통 풀리지 않는 문제에 오늘도 골몰하고 있습니다.

나는 왜 그곳에서 죽음을 보도해야 했을까 이것도 인연이 있다면 무슨 인연이었을까를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최형식(매일유업 홍보이사)**

균형 있는 심신 만드는 요가는 수행

대원불교문화대학, '불교선요가' 첫 번째 특강… 매주 목 · 금 강의

요가는 운동일까, 수행일까?

웰빙 열풍과 함께 건강과 다이어트의 이미지로 각인된 요가는 운동이기 전에 균형있는 몸과 마음을 만들기 위한 호흡을 통한 불교수행의 하나다.

요가에 대한 오해를 씻어주고 불교 요가의 소의 경전이나 다름없는 <유식삼십송(唯識三十頌)>에 근거해 체계적으로 요가에 접근하는 강좌가 열렸다. 대원불교문화대학의 '불교선요가' 특강 첫 번째 강의 날인 7월 2일 서울 마포구 불교방송 3층 법당에서는 100여 명의 수강생들이 금정 스님(포천 불국선원 주지)의 1시간 <유식삼십송> 강의에 이어 요가, 명상실수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이 <유식삼십송> 강의에 이어 선요가 실수를 하고 있다.

금정 스님은 강의에서 "유식(唯識)은 요가의 이론으로 불교와 요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불교선요가의 최고 목적은 유식성(唯識性)을 깨달아 대원경지 즉, 열반(涅槃)에 드는데 있다. 이를 위해 몸짓, 호흡, 명상, 신앙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스님은 <유식삼십송> 서분, 정종분 1송 강의를 통해 "고정불변하는 불성을 깨우치기 위해 유식공부와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성은 무상(無相)이요, 무아(無我)임을 알기 위한 것임을 알라"며 "만법연기의 근본이 되는 종자인 아뢰야식은 자기가 만든 정보로서, 이 정보가 연(緣)을 만나 굴러(轉)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가자들은 강의에 이어 선(禪)요가 체험에 들어갔다. 가볍고 쉬운 동작인 연꽃자세로 시작을 했지만 스스로 놀라는 눈치다. 내 몸이지만 그동안 쓰지 않아 있는지도 몰랐던 부위를 당겨주고, 늘려준다. 자신의 몸에 대해서 관찰하고 느끼며 새로운 경험을 하는 참가자들의 쑥스러운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금정 스님은 "부처님께 예배를 올릴 때 하는 합장의 자세나 가부좌 뿐 아니라 거꾸로 엎드려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요가"라며 "호흡은 가슴호흡을 그치고 뱃속 깊이 코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를 습관화 하고 매일 아침 15분씩 배운 자세를 반복하며 부처님께 늘 경배한다는 생각을 하라"고 설명하며 동작과 호흡을 지도했다.

금정 스님은 네팔에서 10여년 간 전통 선요가를 수행하고 돌아온 원조 불교 선수행자다. 스님은 "선요가와 그 이론인 유식 강좌를 통해서 무한한 자비심으로 산천초목 미물까지 사랑하고 마음을 가다듬어 업장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대 자유인들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이들의 참여를 부탁했다.

선요가에서 몸짓은 아사나, 불교 이전부터 행했던 연꽃자세에서부터 발전을 거듭한 것이다. 외부의 대상을 감각해 안으로 인식 작용을 일으키는 오관(五官)의 신경에 해당하는 승의근(勝義根)을 활성화 시키는데 있다. 건강과 함께 아름다운 몸을 가꾸고, 질병 치료에도 효과적이다.

특히 선요가는 몸과 마음의 안정을 위한 올바른 호흡, 위빠사나 명상 즉 관찰을 통한 우주인생의 진리를 깨닫게 해 지혜를 샘솟게 하고 자신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준다. 강의는 7월 2일~8월 28일 매주 목, 금요일 오후 3~5시, 오후 7~9시 무료로 진행된다. (02)707-1072

이상언 기자

만해 스님 열반 65주기 다례재

심우장 · 선학원 등서 잇따라 봉행


6월 29일 성북동 심우장에서 만해 스님 열반 65주기 추모다례재를 봉행하고 있다.

불교사상가, 독립운동가이자 민족시인이었던 만해 한용운(韓龍雲, 1879~1944) 스님 열반 65주기 추모다례재가 6월 29일 서울 성북동 심우장, 서울 선학원 등에서 잇따라 봉행됐다.

동방대학원대학교(총장 정상옥)와 성북문화원은 만해 스님이 열반하신 서울 성북동 심우장에서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 '만해 한용운 선사 추모 예술제'의 하나로 열린 행사에는 동방대학원대학교 정상옥 총장, 배진섭 성북구 부구청장 등 50여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상옥 총장은 인사말에서 "만해 한용운 선생의 높은 뜻이 전 세계 만방에 퍼져 대한민국을 드높이길 바란다"고 추모했다.

재단법인 선학원(이사장 법진)도 같은 날 오전 서울 안국동 중앙선원 대법당에서 만해 스님 열반 65주기 다례재를 봉행했다.

다례재는 선학원 총무이사 황백 스님, 만해 스님의 딸 한영숙 여사 부부를 비롯한 유족과 불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또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정웅정)는 기일을 맞아 스님의 유해가 안장돼 있는 서울 망우리 공동묘지에서 추모 법회를 봉행했다. **이상언 기자**

"참여하는 불청, 시대 변화 이끌라"

대불청 제28차 전국불교청년대회 개최

창립 90주년을 한 해 앞둔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정웅정, 이하 대불청)가 '제28차 전국불교청년대회'를 열고 시대의 변화에 앞장서 도전하는 청년 불자가 될 것을 다짐했다.

대불청 경북지구(회장 최훈기) 주관으로 개최된 '제28차 전국불교 청년대회'는 6월 27~28일 경주 위덕대학교와 포항 문화예술회관에서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도전하는 불청인, 변화하는 불청'을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이명박 정부의 역 민주주의, 종교편향, 자연공원법 등 불교계 내외 위기상황에 대해 청년 불자들의 참여와 행동을 결의하는 자리였다.

6월 28일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청년대회는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의 특강, 불청대상 시상, 대회기 이양 등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 조계종 포교부장 계성 스님, 박승호 포항시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불청대상에는 원각불청 감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승동씨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또 울산 · 경남 지구는 최우수지구로, 부산지구 대각불교청년회는 최우수지회로 선정됐다.

정웅정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중앙, 지구, 지부, 지회 모두가 하나로 뭉쳐 자비와 평화의 정신을 기반으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최측은 2010년 창립 90주년 제29차 전국불교청년대회를 서울 조계사에서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언 기자**

상도선원 웰다잉 특강

18일 오진탁 교수 강의

서울 상도동 상도선원(선원장 미산)은 윤달에 봉행하는 생전예수재의 의미를 살려 죽음을 진지하게 성찰하는 강의를 마련했다.

생전예수재는 현재의 삶을 되돌아보고 남은 생을 의미있게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전통의식이다. 상도선원은 의식에 그치기 쉬운 생전예수재를 '행복한 죽음 체험교실'을 주제로 웰다잉(Well Dying)특강으로 준비했다.

이번 강연은 7월 18일 오후 1~4시 상도선원 대법당에서 '행복한 죽음을 위한 명상'과 '존엄한 죽음을 위한 3가지 준비', 19일에는 '죽음을 알면 자살하지 않는다'와 '죽음 치유, 자살시도자의 의식 변화'를 주제로 진행된다. 특강은 한림대 철학과 오진탁 교수(한림대 생사학연구소 소장)가 진행한다. (02)815-3391 **이상언 기자**

1일 아미타불 1만정근 전국염불만일회 개최

전국의 불자들이 '1일 아미타불 1만 번 정근' 정진대회를 펼친다.

전국염불만일회(회장 안동일, 동산불교대학 이사장)는 7월 26~28일 땅끝마을 해남 미황사에서 전국 불자들을 대상으로 '제12차 해남 미황사 염불정진대회'를 실시한다.

불자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염불정진대회는 나무아미타불 염불 철야정진, 1일 아미타불 1만 번 정근 정진기도, 염불신행발표, 행선 염불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염불은 불교 수행법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행법 중 하나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수행이다. 특히 염불결사는 8세기 발징(發徵, ?~796) 화상이 염불만일회를 개설한 것이 시초로 종교적 민중운동으로 종교인들의 자각과 반성, 사원 경제의 든든한 후원체, 사회적 국난 극복과 민중의 귀의처 역할 등 살아있는 실천 정토신앙으로 자리잡고 있다.

한편 전국염불만일회는 1998년 8월 6일 고성 건봉사에서 제1차 염불정진대회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만일염불운동을 진행해오고 있다. (02)732-1215 **이상언 기자**

진시황제가 비밀시 활용하던 천비술서! 금쇄옥약시의 귀신뽑는 신통술!
백초귀장술
찾아온 시간과 모습의 점쾌로
왜 왔는지, 무슨 귀신이 붙었는지
상대방마음을 꿰뚫어 보는 비법!
* 귀장술12신궁으로 신년운세 보는 법
* 귀장술12신궁의 직장취업운 보는 법
* 귀장술12신궁의 시험합격운 보는 법
* 귀장술12신궁의 매매 • 이동운 보는 법
* 매물로 내놓으면 매매가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 언제쯤 매매가 성사 되겠는가?
* 귀장술12신궁의 금전재물운 보는 법
* 받을 돈이 있는데 받을 수 있겠는가?
*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습니까?
* 사업을 확장할까? 다른 사업으로 바꿀까?
* 동업을 해도 괜찮을까?
* 부부인연因緣에 낀 액운厄運암시록
* 집안 동토귀신 알아내는 법
* 자녀액운 착귀탈 정단법
* 취직시험 • 승진시험의 합격 판단법
* 선거 후보당선 벼슬하는 여부 판단법
* 관청 • 공무원 빈자리 입관가능여부
* 소송 • 관재사의 승패 판단법
* 보고싶은사람, 기다리는 사람 소식가능일
* 가출자가 언제쯤 집에 돌아올까?
* 잃어버린 분실물 위치 추정법
* 도주 • 도망간 사람이 어느쪽으로 갔을까?
* 12신궁 숨어있는 조상원귀법
* 12신궁에 암장된 악령귀신
* 귀장술歸藏術로 보는 前生투시법
* 前生의 夫婦인연 원침살이 現生에 미치는 현상
* 귀장술歸藏術로 뽑은 빙의착귀신론
* 귀장술歸藏術로 뽑은 사후死後환생 귀신작해론
* 산소 • 무덤에 관해서 [음택법]
* 무덤안 유골의 현재상태 알아내는 법
글 • 백초스님
상 • 하권/720면/정가 각120,000

십자성 래정비법 전수생모집
사주를 뽑지않고, 자신이 갖고 들어온 점괘로 쉽게 푸는 법
1:1강의 저자 백초스님 직강
지방에 계신분들을 위한 1일(8시간) 속성반 인기 교육중 (필히 예약가능)
百超律歷學堂
입금 | 농협 023-02-500940 임현주
계좌 | 신한 010-6413-4443 임현주
비법전수중
(02) 3667-4446
010-3813-4443

“1400년 전 국태민안 원력 기적처럼 되살아나길…”

긴급보존처리 후 익산 미륵사지서 첫 공개… ‘미륵사지석탑 사리장엄 특별전’ 26일까지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셔서 중생들의 근기(根機)에 따라 감응(感應)하시고, 중생들의 바람에 맞춰 몸을 드러내심은 물속에 달이 비친 것과 같다. 그래서 석가모니께서는 왕궁에 태어나셔서 사라쌍수 아래에서 열반에 드시면서 8곡(斛)의 사리(舍利)를 남겨 3천 대천세계를 이익되게 하셨다. 그러니 마침내 오색(五色)으로 빛나는 사리를 7번 오른쪽으로 돌면서 경의를 표하면 그 신통변화는 불가사의할 것이다.”

–익산 미륵사지석탑 출토 사리장엄기 中 (김상현 동국대 교수의 해석을 의역함)

서동과 선화공주로 알려진 백제무왕과 왕후의 원력으로 봉안돼 1400여 년간 한결같이 익산 미륵사지를 지켜 온 사리가 일반에 공개됐다.

미륵사지 석탑의 사리는 지난 1월 출토 당시부터 사리장엄구 등과 함께 전국민적인 관심을 모아왔다. 불자들은 부처님 사리 출현에, 일반인들은 사리장엄구에서 보이는 예술성에 탄성을 자아냈다. 학자들은 익산 미륵사지 역사에 대한 해답을 기대하고 사리봉안기에 주목했다.

지금까지 학계의 학술발표가 잇따르고 사리장엄구 등 출토 유물 사진전은 열렸지만 정작 불자들을 위한 사리 친견은 허용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6월 27일, 익산 미륵사지 일대에는 ‘미륵사지석탑 사리장엄 특별전’ 개막일을 맞아 사리친견 법회가 봉행되면서 몰려든 인파가 인산인해를 이뤘다.

조계종 제17교구본사 김제 금산사 본 · 말사와 익산지역 사암연합회 소속 사찰을 비롯해 전국에서 모인 1만여 사부대중은 무더위에도 흔들림 없이 경건한 마음으로 사리를 친견했다.

이날 행사를 위해 사리는 오전 8시,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 등에 의해 이운됐다. 이운법회와 함께 불단에 사리가 안치되고 본격적인 행사의 막이 올랐다.

미륵사지유물전시관 앞에서는 ‘미륵사지석탑 사리장엄 특별전 개막식’이 열렸다. 이어 바로 옆 미륵사지 연지에서는 영산작법이 펼쳐지며 ‘부처님 사리친견 법회’ 시작을 알렸다.

금산사 회주 월주 스님은 증명법어를 통해 “1400여 년 전 봉안된 사리를 지금 이 자리에서 친견하는 것은 희유한 인연”이라며 “이 인연을 소중히 여겨 모두의 갈등이 해소되고 화합하길 바란다”고 법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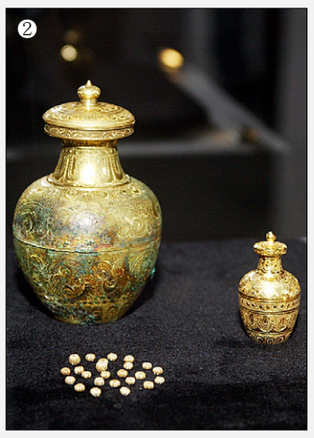
완주 송광사 주지 도영 스님도 축사에서 “이번 사리친견의 공덕으로 모든 대중의 지혜와 자비심이 고양되고, 이 땅에서 갈등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이번 사리친견에 그치지 않고 익산 미륵사지를 복원해야 한다. 이것은 백제불교의 영광을 재현하는 의미 있는 불사”라며 “부처님 가피로 국태민안을 기원했던 백제 무왕의 원력이 기적처럼 되살아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조계종 문화부장 수경 스님도 축사에서 “미륵사지의 보존이 아닌 미륵사 복원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익산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 등의 세계문화유산등록을 기원했다.

행사에 참석한 김완주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이춘석 · 조배숙 지역구 국회의원 등 지역인사들은 축사를 빌어, 익산 미륵사지 유물전시관의 국립박물관 승격과 익산 지역의 세계문화유산 등록 등을 강하게 주장했다.





❶ 미륵사지석탑 사리장엄 특별전 테이프 컷팅.
❷ 사리장엄구.
❸ 부처님 진신사리.
❹ 사리를 친견하는 금산사 회주 월주 스님과 김완주 전북도지사.





친견법회 후에는 백중과 윤달을 맞아 생전예수재가 봉행됐다.

이번 특별전은 미륵사지 사리장엄구 발견에 불교계 관심이 컸던 점을 감안해, 사리장엄구 일체가 수습된 후 긴급보존처리만을 거쳐 현지에서 유물을 공개하는 첫 전시다.

때문에 신속한 보존처리가 가능했던 금제사리호와 사리장엄기 등 금속소재 유물 등은 전시됐지만, 보존상태가 좋지 않은 가죽 및 섬유소재 유물 등은 제외됐다.

김봉건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금속의 경우 녹제거 등에만 6개월이 소요되는 등 보존처리에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여가 걸린다”면서 “미륵사지 사리장엄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감안해 이번 특별전을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부처님 사리 이운과 친견법회를 주관한 원행 스님은 “백제사찰인 미륵사지에서 부처님 사리가 출현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특별전을 계기로 백제문화 복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특별전은 7월 26일까지 계속된다. (063)548-4441~2 **관련기사 5면, 글=조동섭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눈에 띄는 전시물은?

익산 미륵사지 사리장엄구 가운데 ‘금제사리호(金製舍利壺)’는 국보 제287호 백제 금동대향로와 비견될 정도로 백제 금속공예기술의 백미로 평가된다.

사리외호는 높이 13cm, 어깨 폭 7.7cm의 크기로, 위로 보주형 꼭지가 달린 뚜껑과 긴 목, 둥근 어깨를 지닌 동체(胴體)로 매우 힘차고 당당한 느낌을 준다. 뚜껑과 목 저부에는 연꽃잎을 동체는 인동당초 연화당초문으로 선각하고 여백에는 어자문(魚子紋)을 가득 시문했다.

사리내호는 높이 5.9cm, 어깨 폭 2.6cm 크기다. 외호와 유사한 모습이나 외호와는 달리 뚜껑과 동체 상부가 일체형이다. 금판을 두드려 만든 단조기법으로 제작됐다.

내호에서 유리제사리병 파편과 사리 등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금제사리외 · 내호 안에 다시 유리제사리병이 있어 3중 구조로 봉안된 것이 밝혀졌다.

유리제사리병은 짙은 갈색의 뚜껑을 갖고 있으나 형태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수십개 파편으로 수습됐다.

이 외에도 미륵사의 창건 배경과 시주자가 명문으로 기록돼 선화공주의 실체를 둘러싸고 학계에 반향을 불러일으킨 금제사리봉안기(金製舍利奉安記, 가로 15.5㎝, 세로 10.5㎝), 유리 구슬류, 사리, 금제 족집게, 금제 소형판, 은제관식 등 전시물 하나하나가 백제 불교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다.

사리장엄구 어떻게 발견됐나?

사리장엄구는 지난 1월 미륵사지석탑 탑신 해체 작업 중, 2층 심주석을 들어 올리는 순간 사리공과 함께 발견됐다.

사리공은 길이 25cm, 깊이 27cm 방형 크기로 1층 심주석 가운데를 중심으로 열십자로 먹줄을 튕겨 위치를 잡았다. 보관 상태가 양호해 먹물이 그대로 눈에 띌 정도였다.

사리장엄 수습은 고고학, 보존과학 분야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완벽한 사전준비 후 이뤄졌다. 조사카드와 실측도면으로 유물의 배치와 상태가 기록됐고, 사진 및 3D 촬영 등으로 현장을 촬영했다.

수습된 유물은 훼손방지를 위해 포장재와 수습용품을 이용해 목록 작업 후 안전히 보관처리 됐다. 사리외호에는 X-선 조사가 실시돼 그 안에 작은 내호가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를 다시 현미경으로 관찰해 금제소형판 등의 확인조사가 실시됐다.

3월 31일, 조계종 문화부장 수경 스님 등 불교계 인사가 참관한 가운데 금동사리외호가 개봉됐다. 이 안에서는 사리 12과가 수습된 것을 비롯해 금제사리내호, 유리제사리병과 다량의 구슬 등이 발견됐다.

삼사순례는 문경새재 흥천사로 오세요



동봉큰스님 친필 달마

연꽃 든 달마의 향기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매매, 건강쾌차, 결혼성혼
취업, 시험합격, 삼재소멸

동봉 큰 스님께서 중국 육조사 대원 방장으로부터 육조 대가사를 한국 최초로 전수 받으시고 말로만 듣던 기적을 달마대사로부터 선몽으로 연꽃 든 달마를 받으셨습니다.
달마대사께서 연꽃을 들어 보이시며 이 달마를 이번 생전예수재를 통하여 모든 중생의 업장을 소멸케 하라는 계시를 받으시고 곧바로 일어나시어 일필휘지로 직접 그리신 연꽃 든 불사시 동참하는 분에게 올리고저 합니다.

태국왕실에서 모셔온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산사음악회

제1회 나옹선사 천복 문화 예술제

- 주요행사 -

▶ 초재일 : 양력 6월 28일 (음, 윤 5월 6일) 오전 10시 - 흥천사
▶ 이재일 : 양력 7월 5일 (음, 윤 5월 13일) 오전 10시 - 흥천사
▶ 삼재일 : 양력 7월 12일 (음, 윤 5월 20일) 오전 10시 - 흥천사
※ 산사음악회 : 양력 7월 12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 사재일 : 양력 7월 19일 (음, 윤 5월 27일) 오전 10시 - 흥천사
▶ 오재일 : 양력 7월 26일 (음, 윤 6월 5일) 오전 10시 - 흥천사
▶ 육재일 : 양력 8월 2일 (음, 윤 6월 12일) 오전 10시 - 흥천사
▶ 칠재일 : 양력 8월 9일 (음, 윤 6월 19일) 오전 10시 - 흥천사
▶ 회향일 : 양력 8월 16일 (음, 윤 6월 26일) 경우큰스님 법문

※ 동봉 큰스님 법문 : 매재마다 오후2시-3시
◎ 생전 예수재
◎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 만등불사 (초재부터 회향일까지)
◎ 먹거리 장터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 특산물)
◎ 불서코너, 불교용품 코너
◎ 웰빙 된장 (보현스님이 직접 담금)
◎ 특산물 (대합찰옥수수, 고추, 절임배추)

※ 산사음악회 : 양력 7월 12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 7시까지
불자가수회 : 남강수, 김활선, 금사향, 선선호, 한도현, 태산법사 외 다수 출연

부처골 풍경소리
cafe.daum.net/jijangsw
달마구입 문의
H.P 011-9585-4908 혜봉 스님

주소 : 충북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48번지
전화 : 043)833-5525
문경새재 흥천사
(재)세계불교법왕청평화재단

관광버스 1대당 10만원 상당의 농산물 및 선물 증정 (지역 경제 살리기)

이웃 종교 RELIGION

칼뱅탄생 500주년 '장로교의 날'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27개 한국 장로교단 참여 대규모 집회

2009년은 종교개혁가 장 칼뱅(1509~1564)이 탄생한지 500주년이 되는 날이다.

장로교회의 창설자이기도 한 칼뱅의 5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국내 개신교 단체에서는 다양한 기념행사를 펼치고 있다.

'요한 칼빈 탄생 500주년 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는 6월 21~22일 대치동 서울 교회에서 '칼빈과 한국교회'이라는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 및 기념음악회를 열었다. 또한 칼뱅의 생일인 7월 10일은 '한국 장로교의 날'로 선포해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27개 한국 장로교단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가 개최된다.

하지만 기념사업회가 지난 4월 서울교회 인근 대치동 삼성로 서 73길을 명예도로 '칼빈길'로 추진하고 있어 불교계와 개신교계


장 칼뱅.

는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하고 있다.

이같이 칼뱅5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많을 정도로 칼뱅의 탄생은 개신교인들에게는 의미가 크다.

칼뱅은 훗날 칼뱅주의라고 불리는 기독교 신학의 체계를 발달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공헌을 한 인물이다.

중세의 부패한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항해 독일에서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고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했을 당시 프랑스 북부 지방 출신의 칼뱅은 1523~1528년 파리에서 신학을 공부했다. 1536년 복음주의의 고전이 된 <그리스도교 강요>를 저술한다.

칼뱅은 자기의 직업에 근면, 성실하게 종사할 것을 강조, 이는 중산 시민 계층에게 받아들여져 초기 자본주의 발전의 토대가 됐다. 이러한 칼뱅 교도를 영국에서는 청교도, 프랑스에서는 위그노, 네덜란드에서는 고이센이라고 불렀다.

이나은 기자

국제 카리타스 대북소위 성명서 발표

"북한주민들에 대한 인도주의적지원 계속돼야"

한국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관심은 북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북한 정권 후계자,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 등에 쏠려 있다. 자연히 기본적 욕구조차 충족시키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에 대한 지원 목소리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가톨릭 교회의 공식 원조 기구인 국제카리타스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은 계속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국제카리타스 네트워크 회원국들은 6월 14~16일 중국 베이징에서 대북 지원 특별소위원회 회의를 갖고 이 같은 요지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회원국들은 "북한 핵 실험 등으로 동북아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의 삶이 더욱 피폐해지고 있는데 주목한다"며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회원국들은 이어 "동북아 지역에서의 비핵화는 평화적인 개발과 발전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경제위기 시대에 빈곤의 극복을 위해서는 대량 살상 무기와 핵무기 개발에 대한 투자가 철회돼야 한다" 강조했다. 국제카리타스 레슬리 사무총장은 "앞으로 북한에 대한 관심이 국제 카리타스의 주요 의제로 상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나은 기자

한국 가톨릭 신자 500만 넘어

국내 가톨릭 신자가 500만 4115명으로 집계됐다.

한국 천주교주교회의(의장 강우일 주교)가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08>을 2009년 5월 30일자로 발행했다.

200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이번 통계자료에 따르면, 1784년 한국천주교회가 시작된 이래 225년 만에 5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대비 비율로 보면 우리나라 총인구 5039만 4374명 (통계청 자료)의 9.9%로 10명 중 1명이 신자인 셈이다. 전년도 487만 3447명에 비해 13만 명이 늘었고 2.7%의 증가율을 보였다.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직자는 모두 4204명으로 나타났으며 추기경과 대주교, 주교는 모두 31명으로 집계됐다.

이나은 기자

저출산 극복, 불교계가 나선다

법회자료집 3000부 전국 사찰 및 교계 기관 배포

우리나라 여성 1인당 출산율은 1.19명. 홍콩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낮은 '초저출산' 국가다. 현재 수준의 인구를 유지하려면 여성 1인당 2.1명을 낳아야 하는데, 절반 밖에 안 되는 수준이다. 100년 뒤 한국인구가 1500만 명으로 줄 것이라고 경고가 나올 정도로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고령화와 맞물려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위기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정부도 6월 9일 '아이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를 출범, 6월 30일 사회각계 및 지자체가 적극 동참해 16개 시 · 도별로 지역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대오, 이하 복지재단)이 종교계에서는 처음으로 저출산 극복문제 해결에 앞장 서 눈길을 끌고 있다.

복지재단은 6월 30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법회자료집 개발발표회'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복지재단은 불교계 최초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의 지원을 받아 여러 전문가들이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법회 현장과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저출산 인식개선 기본교육 교재인 <아기탄생과 양육, 세상을 희망으로 바꾸다!>를 발간했다.

발표에 앞선 인사말에서 대오 스님을 대신해 참석한 정관 스님(종로



6월 30일 열린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법회자료집 개발 발표회'에서 발제하는 이동권 국장.

노인종합복지관 관장)은 "생명의 존엄성을 널리 알려 불교계의 사회적 역할과 영향력을 재확인하고 건강한 가정문화 확산에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발표회는 △이용권 사무국장(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저출산 사회의 미래와 법회자료집 개발 의의' △오지연 강사(동국대)의 '아기의 탄생은 부처의 탄생-불교의 출산관 △이영호 센터장(중랑구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 · 이웃과 함께하는 출산과 양육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용권 국장은 발제에서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은 일선 법회 등 주관 스님들과 포교사 · 교계 지도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불교에서는 이들이 법회 현장에서 신도들을 대상으로 설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저출산 · 고령화 극복을 위한 불교계 방안들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오지연 강사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낙태와 입양에 주목해야한다"며 "태아는 수태 순간부터 독립적이고 주체적 존재이며 나아가 아기를 갖는 행위는 곧 또 하나의 깨달은 자, 부처를 잉태하는 것"이라고 낙태를 막아야함을 역설했다.

이영호 팀장은 "가족의 힘이 사회자본이 되려면 가정이 건강해야 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가족이 많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출산에서 양육을 하는 기간 동안 가족 및 아버지의 역할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재단은 이번에 법회자료집 3000부를 발행해 전국 사찰 및 교계기관 · 단체에 배포해 법회 · 신도교육 시 저출산의 심각성을 알리고 출산을 장려할 예정이다. 이나은 기자

청소년수련관 '풋살' 장 개장

대구사원주지연합회(회장 법혜)는 6월 26일 수성구청소년수련관 내에 '풋살'장을 개장했다.

개장식은 부설기관인 수성구청소년수련관(관장 무문)에서 회원사찰 스님 10여 명과 구청관련 인사, 연합회 신도회(회장 임문우), 수련관 관계자 등 사부대중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식에 앞서 연합회 소임 스님들은 "건강한 심신이 함께하는 도량의 스포츠장으로 거듭가꾸어 나가길 바란다"며 발원했다. (053)761-9400

손법천 대구지사장

동국대 불교회 의료봉사활동

경주시 복지회관서 200여 지역주민 참여

동국대 경주병원 불교회(회장 강석, 지도법사 무구)는 6월 27일 경주시 내남면 복지회관에서 무료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내과 정형외과 안과 등 7개 진료과와 50여 교직원이 지역주민 200여 명의 건강을 살폈다.

초음파기와 안과 검사장비 등 고가의 의료장비 등을 이용한 전문적인 검사와 왕래가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차량을 이용해 직접 모셔다 드리는 편의도 제공해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았다.

한편, 동국대 경주병원 불교회는


동대 경주병원불교회 의료봉사 장면.

지역민들을 위한 정기적인 무료 의료봉사활동은 물론 수년간 해외 무료진료를 실시해 왔다. 올해는 7월 6~11일까지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조동섭 기자

승가원장애아동시설 개선사업 '첫 삽'



6월 29일 승가원에서 시작된 '2009 사회복지시설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승가원장애아동시설(관장 동옥) 어린이들이 올 겨울을 더욱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됐다.

정유업계(대한석유협회,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 오일뱅크)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6월 29일 승가원장애아동시설에서 '2009년 사회복지시설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첫 삽을 떴다.

승가원장애아동시설의 시공을 첫 시작으로 정유업계와 사회복지공동모금기금회는 7월부터 전국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중 개선이 필요한 시설을 심사 · 선정, 10월 말 까지 노후 보일러 및 배관 교체, 단열재 공사 등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나은 기자

저소득 일자리 제공 본동복지관서

노동부에서 추진하는 2009년도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 '구인개척' 사업에 선정된 본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종성)이 저소득취약계층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일자리 제공에 나선다.

이에 복지관은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통합 취업지원을 강화시킬 계획이다.

복지관 관계자는 이번 사업에 대해 "현재 경제상황 및 저소득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에 있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구인업체 및 빈 일자리를 개발해 연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02)817-8052

이나은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71기 佛教儀式 (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 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09년 7월 9일까지
◆ 개강일시 : 2009년 7월 10일 매주 (금) 오후 5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참나와의 친밀한 만남

몸 마음 영혼의 완전한 치유법!
- 전 통 활 락 법 : 최상의 에너지인 수중화(물 속의 불)로 전신에 경락을 일거에 타통한다.
- 체 절 조 절 법 : 모든 난치병의 뿌리는 뇌에 있다. 체절 조절로 뇌를 다스려 난치병 근치의 신기원을 이룸.
- 전신골격 조정법 : 손가락 하나를 가볍게 접촉하여 참나의 기운을 나눔으로써 5분 이내에 뒤틀어진 골격을 바로 잡는다.
- 전생업장소멸법 : 뇌하수체에 훈습된 아뢰야식의 전생업장을 천연에너지로 강렬하게 태운다.

자동 운기법! 자동 축기법!
수행의 최고 경지는 의념이 배제된 채 저절로 운기와 축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진인의 경지에 바로 진입한다.

운명의 공식! 개운의 법칙!
우주생성의 근본원리로 자타의 운명을 파악하고, 미래를 정확하게 예단하는 혜안이 열린다. 사업, 취업, 결혼, 부동산매매, 주식거래, 각종 시험 등등 인생 제만사의 각종 문제들을 미리 조정하는 능력자가 된다.

영혼의 과학에 의거한 참된 영가 천도법!
영가의 상태를 직접 파악하고 직접 천도하며 결과까지 직접 확인하는 초유의 비법을 누구나 증득할 수 있다.

최강의 양택 발복법!
9등급으로 양택을 정밀하게 판정하고 기운을 조정하여 최상급의 명당으로 만든다.

완전한 깨달음! 행복한 현실창조! 아름다운 진화!
수 천년 동안 어렴풋한 말로만 전해져서 긴가민가하던 전설이 누구나 실현할 수 있는 최상승법으로 현실화 됐다. (1:1 방식으로 완벽하게 전수하며 회비는 3백만원입니다.)

무료체험신청하세요
좁은 지면에 담지 못한 놀라운 효능!
02)511-5945/ 010-9336-2698

정부에서 10억 지원

'가산불교대사림' 발간

가산불교연구원(원장 지관, 조계종 총무원장)이 발간 중인 <가산불교대사림> 발간사업이 정부로부터 5년간 10억원을 지원받는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허상만)은 6월 23일 인문사회분야 기초연구과제지원(토대연구)에서 선정된 사업을 발표했다.

이번 선정 과제 25건 중 가산불교연구원은 불교학 분야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됐다. 연구원은 앞으로 5년 동안 9억8140만원을 지원 받아 <가산불교대사림> 12~16권까지를 편찬할 계획이다.

한편, <가산불교대사림>은 지관스님이 교육현장에서 30여 년을 지내며 편찬중인 불교대백과사전이다. 15만여 개의 불교술어가 수록될 예정으로 가산불교연구원이 1999년 제1 · 2권 출간을 시작으로 매년 1권씩 발간해 왔다. 2008년 '보살계본'에서 '분비'까지 'ㅂ'항목을 다룬 10권이 출간됐다. **조동섭 기자**

동아시아 문화 조명

고려대·버클리대 국제포럼

국내외 학자가 한자리에 모여 불교와 유교를 통한 동아시아 문화를 재조명했다.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HK한국문화연구단과 미국 버클리대 동아시아연구원은 6월 24~27일 고려대에서 '동아시아 문화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하여'를 주제로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행사에서 로버트 버스웰 동국대 불교학술원장은 한국 불교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해 눈길을 끌었다.

루이스 랭카스터 미 버클리대 명예교수는 주제발표 '불교 정전(正典)-문화적 민족적 정체성의 구현'에서 중국에서 불교경전이 복제 · 전파된 과정을 소개하고, 디지털 경전화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요그르 플라센 독일 보쿰대 교수는 '서구의 동아시아 불교 연구에 대한 이론적 접근들에 대한 견해'를 통해 서구학자들이 서구문화 연구방법으로 불교학에 접근하려는 시각을 지적하는 한편, 새로운 연구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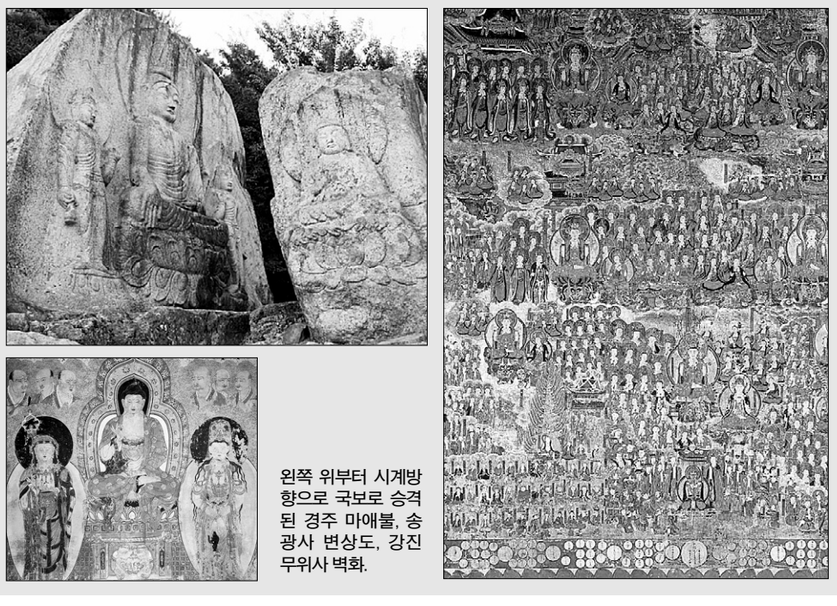
칠불암 마애불상군 등 3건 국보 승격

혼란 우려 지정명칭도 변경… '이헌국 호성공신교서' 보물 지정

'경주남산 칠불암 마애석불'(보물 제200호)과 '무위사 극락전 아미타후불 벽화'(보물 제1313호), '송광사 화엄전 화엄탱'(보물 제1366호)이 국보로 승격 지정예고 됐다.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경주 남산 칠불암 마애석불 등 국가지정문화재(보물) 3건을 국보로 승격 지정예고 한다"고 6월 29일 밝혔다.

이들 문화재는 국보 승격과 함께 '경주 남산 칠불암 마애석불'은 '경주 남산 칠불암 마애불상군'으로, '무위사 극락전 아미타후불벽화'는 '강진 무위사 극락전 아미타여래삼존벽화'로, '송광사 화엄전 화엄탱'은 '순천 송광사 화엄경변상도'로 각각 지정명칭이 변경된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국보로 승격된 경주 마애불, 송광사 변상도, 강진 무위사 벽화.

'경주 남산 칠불암 마애불상군'은 경주 남산에 있는 수많은 불상 중 대표적인 마애불상군이다. 넓은 면의 암벽에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의 본존과 입상의 두 협시보살상(본존을 옆에서 모시고 있는 불상)을 높은 부조로 표현했고, 그 앞쪽 사면석주의 각 면에는 비슷한 크기의 불좌상을 부조해 모두 일곱 구(軀)로 구성돼 있다.

삼존상은 절제된 얼굴표정, 적합한 신체 비례와 탄력 넘치는 양감, 그리고 유려한 선의 표현 등에서 통일신라시대 전성기의 웅장하고 아름다운 조각 기술과 예술적 감각, 그리고 종교적인 숭고미를 표현한 수작으로 평가된다.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오춘영 학예연구관은 "삼존상 앞에 놓인 사면석주에는 각 방위를 주재하고 있는 부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 이곳의 사방불은 이후 전개될 석탑 사방불의 조형이 된다는 점에서도 매우 큰 조각사적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강진 무위사 극락전 아미타여래삼존벽화'는 조선전기 불화를 대표하는 벽화로 알려져 있다. 무위사 주불전인 극락보전불단 뒤편 후불벽면에 그린 '아미타여래삼존도'로 화면 중앙의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관음 · 지장보살을 좌우에 배치했다. 이어 상단 구름 속에 상반신만을 표현한 6구의 나한상과 4구의 화불(化佛)을 배치했다.

오 학예연구관은 "강진 무위사 극락전 벽화는 1476년(성종7)이라는 제작시기와 조성 주체, 작가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데에서 조선 초기 불화 연구에 있어 기준이 되는 매우 중요한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조선후기를 대표하는 불화로 평가되는 '순천 송광사 화엄경변상도'는 <화엄경(華嚴經)> 역본 중 실차난타(實叉難陀)가 번역한 80화엄경에 의거해 일곱 장소에서 아홉 번의 설법이 행해지는 칠처구회(七處九會)의 설법 장면을 하나의 화면에 그린 불화이다.

화기에 따르면 '송광사 화엄경변상도'는 1770년(영조46) 무등산 안심사에서 연화(蓮華) 등 13명의 승려화가가 조성해 송광사 대화엄전에 봉안했다.

이 작품은 국내에 알려진 채색 화엄경변상도 중에서 연대가 가장 앞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같은 날, 문화재청은 "명칭이 동일 유형과 달라서 혼란이 우려됐던 국보 제243호 <묘법연화경> 등 6건의 국가지정문화재 명칭을 변경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보 제243호 <묘법연화경>은 '<상지은니묘법연화경> 권 제1~7(橡紙銀泥妙法蓮華經 卷第一~七)'로 명칭 변경됐다.

또 △국보 제243호 '<현양성교론> 권11(顯揚聖教論 卷十一)'을 '초조본 <현양성교론> 권제11(初雕本顯揚聖教論 卷第十一)'로 △국보 제244호 '<유가사지론> 권17(瑜伽師地論 卷十七)'은 '초조본 <유가사지론> 권제17(初雕本瑜伽師地論 卷第十七)'로 △국보 제245호 '<신찬일체경원품차록> 권20(新纂一切經源品次錄 卷二十)'은 '초조본 <신찬일체경원품차록> 권제20(初雕本新纂一切經源品次錄 卷第二十)'으로 △국보 제246호 '<대보적경> 권59(大寶積經 卷五十九)'는 '초조본 <대보적경> 권제59(初雕本大寶積經 卷第五十九)'로 △국보 제251호 '<대승아비달마잡집론> 권14(大乘阿毗達磨雜集論 卷十四)'는 '초조본 <대승아비달마잡집론> 권제14(初雕本大乘阿毗達磨雜集論 卷第十四)'로 명칭이 바뀌었다.

또 문화재청은 '이헌국 호성공신교서(李憲國扈聖功臣敎書)'를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제1617호)로 지정하고, 보물 제1598호 '함경도 · 경기도 · 강원도지도(咸鏡道 · 京畿道 · 江原道地圖)'에 '함경남도지도(咸鏡南道地圖)'를 추가 지정해 수량을 기존 3장에서 4장으로 정정했다.

보물 제1617호 '이헌국 호성공신교서'는 임진왜란 당시 선조와 세자를 모시고 피란해 끝까지 함께 한 신하들에게 내려진 '호성공신교서(扈聖功臣敎書)' 중 하나로 이헌국(1525~1602년) 사후 3년인 1604년(선조 37) 내려진 것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당시 호성공신의 수는 86명에 달했지만, 그 교서로 현재 남은 것은 매우 희귀하다"며 "'이헌국 호성공신교서'는 그의 전기 자료로서의 가치를 넘어 임진왜란사 연구와 고문서(古文書) 연구에 매우 중요한 사료(史料)"라고 말했다.

이어 "보물 제1598호 '함경도 · 경기도 · 강원도지도(咸鏡道 · 京畿道 · 江原道地圖)'에 이번에 '함경남도지도'가 추가되면서 완전한 모습을 갖추게 됐"고 설명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조선왕릉,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문화재청, 제33차 세계유산위원회 결과 발표

개발 홍역을 앓고 있는 화성 용주사 인근의 수원 융 · 건릉을 포함한 '조선왕릉' 40기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한 '조선왕릉' 40기가 6월 26일 스페인 세비야에서 열린 제33차 세계유산위원회(WHC)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World Cultural Heritage)으로 등재됐다"고 27일 발표했다. 이로써 한국은 1995년 등재된 석굴암 ·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등에 이어 아홉 번째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유네스코측은 등재평가 보고서에서 "조선왕릉은 유교적, 풍수적 전통을 근간으로 한 독특한 건축과 조경양식으로 세계유산적 가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지금까지 제례의식 등 무형의 유산을 통해 역사적인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는 점, 조선왕릉 전체가 통합적으로 보존관리 되고 있는 점 등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에 손색이 없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등재평가보고서는 "일부 훼손된 능역의 원형 보존과 개발압력에 따른 완충구역의 적절한 보존지침을 마련 · 시행할 것" 등을 권고해 주택단지로 개발 중인 융 · 건릉 일대의 보존이 새 전기를 맞게 됐다.

문화재청은 조선왕릉의 세계유산 등재를 알리는 고유제와 대국민보고회를 7월 15일 오전 10시 종묘에서 열고, 향후 '조선왕릉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에 관한 포럼'도 개최할 예정이다.

같은 날, 중국불교 3대 영산(靈山) 가운데 한 곳인 산시성 우타이산(五臺山)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조동섭 기자

"한국인 정서에 맞는 범종소리는?"

한국범종학회서 성굉모 교수 실험 결과 발표



한국인의 정서에 맞는 소리에 대한 과학적 실험 결과가 발표됐다.

한국범종학회(회장 정영호)는 6월 26일 한국역사문화기념관에서 '종소리, 그 울림의 미학'을 주제로 2009년 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행사에서 성굉모 서울대 교수(사진) 등은 주제발표 '한국 범종 선호도와 음향학적 특성과의 관계'를 통해 종소리의 주파수별 특성에 따른 선호도를 발표했다.

성 교수는 "선호도가 높은 범종군은 100hz 정도의 기본음과 250hz의 정도의 2번째 부분음을 갖고 400hz와 100hz 근처의 초기 · 후기 센트로이드(중심)값을 가지며 그 차이가 적었다"고 주장했다.

또 "여운음에서 큰 역할을 하는 2번째 부분음의 맥놀이 주기가 0.5~1초 정도일 때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이보다 짧은 주기를 갖는 경우 선호도가 낮았다"고 설명했다.

성굉모 교수는 "한국종에 대한 음색 선호도 등에 대한 음향학적 파라미터 연구는 한국의 중요한 문화유산인 범종의 복원 제작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진관사 수륙재 학술대회 9일 개최

서울 진관사(주지 계호)와 한국미술사연구소(소장 문명대)는 7월 9일 오후 2시 진관사 홍제루에서 '진관사 수륙재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문명대 소장의 기조발제 '진관사 수륙재의 역사와 성격'을 비롯해 이강근 경주대 교수가 '진관사의 수륙사(水陸社)'를 발표한다. 윤은희 한국미술사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진관사 수륙재의 의식절차'를, 김창균 동국대 교수는 '수륙재와 영산회 괘불회'를 발표한다. (02)359-8410

조동섭 기자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돌고래 슈퍼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합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 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돌고래 슈퍼 에너텍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334-5 / 사무실 : 02)471-2356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m

법명선원
달콤하고 향기로운 심신개혁 템플스테이
1회 8월 1일(토) 1시 ~ 8월 2일(일) 1시 2회 8월 15일(토) 1시 ~ 8월 16일(일) 1시
• 장 소 _ 강화도 법명선원 (문의전화 032-937-9108) • 참가비 _ 10만원
010-2311-7700

13시~14시	자기소개(꽃과 나무 이름으로 대체) 및 입재식
14시~15시	마음수련법 (선일스님)
15시~16시	내면 정화법 (태광스님)
16시~19시	척추교정과 정체운동 (이남진 교수)
19시~20시	저녁공양
20시~22시	소리선 쿤달리니 각성(윤도곡 법사)
22시~02시	수면 명상
02시~03시	마음수련법 (법명사 주지스님)
03시~06시	싸마타와 위빠사나 그리고 체조명상 (태광스님)
06시~07시	아침공양
07시~10시	동양의학과 육미섭생법 (한명준 교수)
10시~12시	내면정화법과 수련 후 소감 발표 (태광스님)
12시~13시	점심공양 및 회향식

■ 지도교수 소개
• 선일스님 : 인도철학을 전공하고 30년 동안 사람들의 심리를 치료한 배터랑 상담학 박사. 저서 : 선문촬요 강설 등
• 태광스님 : 붓다의 수행법을 배우려고 태국 미얀마 인도 티벳 등지에서 30년 이상 이론과 수행을 배운 수행자 지금도 초막에서 정진 중. 저서 - 붓다가 직접 지도한 수행법 등
• 윤도곡 법사 : 소리로 쿤달리니를 일깨워서 질병을 치유하고 다스리는 소리禪의 전문가, KBS 탤런트 공채9기 흙 피리 제작 연주자
• 한명준 교수 : 식이요법으로 질병을 치유 예방하는 국내 최고의 식이요법 전문가 캐나다에 대학을 창건하고 국내에서도 여러 대학에 출강. 저서 - 동양의학 육미 섭생법 등
• 이남진 교수 : 뒤틀린 척추와 자세를 교정하는 국내 최고의 정체 전문가. 저서 - 정체운동 등
법 명 선 원 주지 무상

일주문



혜정 정사, 종단협 부회장 추대

진각종 통리원장 혜정 정사는 6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이사회에서 부회장에 추대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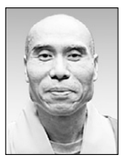
제 12회 파라미타 전국연합캠프

파라미타청소년협회장 도후 스님은 7월 20~23일 경주 보문청소년수련원에서 '제12회 파라미타 청소년 전국연합캠프'를 개최한다. (02)723-6165



불교환경연대 광명지부 창설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수경 스님은 7월 12일 광명 금강정사에서 광명 불교환경연대 창립식을 개최한다. (02)720-1654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쉐어윌 개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대오 스님은 6월 27일 쉐어윌 1기 50여 학생을 대상으로 서울대 수의과대학에서 '수의학 직종과의 만남'을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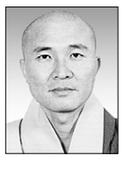
제3회 불교문화상품 공모전 개최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단장 종훈 스님은 8월 3~5일 '제3회 불교문화상품 공모전'을 실시한다. (02)2031-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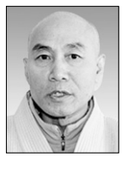
성보박물관 관람객 만명 돌파

영천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은 6월 29일 성보박물관 관람객 1만열 돌파를 기념, 부산 선암사 신도 김순엽 보살에게 증서와 선물을 증정했다.



카자흐스탄 전통종교 회의 연설

조계종 불학연구소장 현종 스님은 7월 1~2일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서 열린 세계 35개국 '전통종교 지도자 국제회의'에서 기조연설 했다.



원주불교사암연합회장 선출

원주 구룡사 주지 적천 스님은 6월 25일 열린 원주불교사암연합회 정기총회에서 제14대 원주불교사암연합회장으로 선출됐다.



금강대 교내 인사 단행

성낙승 금강대 총장은 7월 1일 교내 인사를 단행했다. △원각도서관장 김창남 △산학협력단장 서문성 등이다.



전국불교합창단연합회장 임명

전국불교합창단연합회 김귀련 회장은 6월 26일 총재인 한국불교종단협의 회장 지관 스님으로 임명장을 받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인류 행복의 길 '선정문화' 서 찾아야"

세계교수불자연합회 창립 추진 고준환 교수



1963년 창립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대불련)의 산파역을 했고 1988년 창립된 한국교수불자연합회(한국교불련)의 초대 회장을 맡았던 고준환 교수(경기대)가 세계교수불자연합회(세계교불련)를 설립하기 위해 동분서주한 날을 보내고 있다.

-세계교불련의 창립이 한국에서 주도되는 것은 한국교불련의 20년 역사를 두고 볼 때 당연한 일이겠습니다. 세계교불련의 창립 취지는 무엇입니까?

"한 마디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고는 인류의 위기를 극복할 대안이 없다는 절박한 믿음입니다. 오늘날 이 지구상의 모든 분쟁과 갈등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외면한 인류의 공업이라고 봅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발전을 거듭해 온 인류문명이 붕괴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는 우려도 팽배하지 않습니까? 2분법적 사고로 인해 형성된 분별집착의 망상도견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연기적 세계관에 의한 불이법(不二法)에 있습니다. 선정(禪定)문화를 고양하여 세계일화를 이루기 위해 세계 지성의 보루인 불자교수들이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간단한 일은 아닐 텐데, 현재 어느 정도 진행 됐고 어떤 분들이 동참하고 있는지요.

"우선 국내의 불자교수들이 먼저 동참하고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미 50여 불자교수들이 동참해 기본적인 조직은 꾸려졌습니다. 저와 정천구(영산대) 교수가 창립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연기영(동국대), 정기웅(건국대), 정경연(홍익대) 정재락(영산대) 우희종(서울대) 최종남(중앙대) 교수 등이 총무 재정 국제 등 각자의 소임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교불련의 최영춘 회장과 고진호 사무총장도 동참 하고 있으며 성기태(전 청주대총장) 한대희(서울대) 황진수(한성대) 김진(연세대) 유국현(동국대) 이희재(광주대) 권오민(경상대) 장영길(동국대) 정주헌(외국어대) 등의 교수들이 수시로 모임을 가지며 창립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창립이 되면 세계적인 조직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각국의 교수불자연합회를 지부로 하고 대륙별 지회를 둘 생각입니다. 우선 각국의 지부 설립을 위해 다양한 섭외를 하고 나라별로 불자교수들의 모임이 자생할 수 있도록 도울 생각입니다. 한국의 준비위와 각국의 교수불자들이 쌍방향 소통을 통해 지부들을 확산해 나갈 것입니다. 국내의 사단법인 설립은 물론이고 유엔에 NGO로 등록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자생도 우선적인 과제가 되겠군요.

"이미 한국교불련 차원에서도 '교불련 선원'을 만들자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교불련 선원'을 중심으로 자력을 길러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뜻을 함께 하는 불자교수들이 어느 정도의 기금 형성을 할 의지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교불련의 설립에 남다른 열정을 보이시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불자로서 인류와 동시대를 살고 있는 교수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대불련 창립멤버, 한국교불련 초대회장이라는 경력도 그렇고 말입니다. 그런데, 대불련 창립이 반세기를 지났지만, 그 창립 과정을 잘 모르고 왜곡되게 글을 쓰는 분들이 있더군요."

-당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요?

"서울대학교 법대 3학년 시절입니다. 신호철 최동수 하장춘 전창렬 명호근 오형근 김윤권씨 등과 대불련을 창립했는데 초대회장은 신호철씨가 맡았습니다. 우리의 슬로건은 '불교의 지성화 대중화 청년화'였습니다. 당시 홍도 스님(일명 방울 스님)이 도움을 주셨어요. 스님은 룸비니불교학생회를 지도하며 학생 포교에 남다른 열정을 쏟으신 분이지요."

-교수님께서 개인적으로 가지시는 비전은 무엇입니까?

"제가 절실하게 느끼는 확신하나는 '나를 모르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수행법을 경험했지만 인류의 행복을 열어줄 길은 '선정문화'에서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어느새 '명예교수'가 됐으니 석가모니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인류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세계교불련 설립에 여생을 바칠 생각입니다."

임연태 기자

진각논문대상 김경집씨 등 4명 수상

4개월간의 논문작성 기간 거쳐 11월 중순 발표회 개최

진각종 교육원(원장 경정)은 6월 25일 제11회 진각논문대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이번 진각논문대상은 제출된 논문계획서를 중심으로 심사해 진각종교학 4편, 불교일반 2편, 밀교일반 1편 등 7편을 선정했다.

진각종교학 분야에서는 △회당 대종사의 근대불교 인식(김경집) △재가와 출가에 대한 고찰(김치온) △회당 대종사의 불교인식(장용철) △회당 대종사의 재가출가관에 대한 연구(이상호)가 뽑혔다.



김경집씨.



김치온씨.



장용철씨.



이상호씨.

불교일반 분야에서는 △켄웰버의 홀라키적 온우주론에서의 불교의 심식고찰(강대현) △신라 경흥의 경전관과 정토관(박광연)이, 밀교일반 분야에서는 △삼예사 논쟁의 배경과 전개과정에 대한 사회역사적 고찰(이규완)이 선정됐다.

선정된 수상자들은 4개월간의 논문작성 기간을 거쳐 11월 중순 논문발표회에서 발표하며, 이때 최우수작 1편을 가린다.

상금은 최우수 1편 500만원, 그 외 200만원. (02)913-0753

조동섭 기자

대구경북불교언론인회 무여스님 초청법회



대구경북불교언론인회(회장 정일태)는 6월 27일 대구 인터불고엑스코에서 봉화 축서사 선원장 무여 스님 초청 대법회를 봉행했다. 동화사 주지 허운 스님과 주호영 국회의원, 정일태 회장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조계종 군종교구 특전사 위문법회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일면)는 6월 28일 서울 송파구 특전사령부 호국사자사를 찾아 위문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사령관 최용림 장군을 비롯한 장병, 신도 100여명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만불선원 천불부처님 점안식 봉행



대전 선화동에 있는 만불선원(주지 선오)은 6월 28일 1천불 부처님을 봉안했다. 점안법회에는 공주 학림사 대원 스님(오등선원 조실), 주지 선오 스님 등 스님과 신도 200여 명이 참석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교정위원과 함께하는 한마음 등반대회



청주교도소(소장 한본우)는 6월 27일 속리산에서 교정협(회장 혜철 ,대성사 주지)과 함께 산사랑자연사랑 등반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불우수용자 영치금 지원 및 '교정위원의 날' 노래자랑 개최 등을 결의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원학 스님 서화전 성료



삼이실 원학 스님(조계종 총무부장) 서화전이 불교중앙박물관 나무갤러리에서 1주간 열렸다. 6월 29일 열린 개막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혜정 · 종하 등 원로의원스님등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조동섭기자

대한불교선밀종에서

임원, 종도를 모십니다

대다수의 종단이 선교(禪敎) 양종이거나 밀(密)종으로 이루어진 한국불교에 해동대선사인 원효성사를 종조로 밀(密)로 점수(漸修)하고 선(禪)으로 돈수(頓修)를 지향하는 선밀종(禪密宗)을 창종하고자 발원하니 사부대중의 동참을 바라며 특히 한국 전통적 불법을 이끌어 나가며 세계에 널리 알릴 임원, 대덕스님, 각 지역을 이끌어 나아갈 종도 분들과 인연 닫기를 바랍니다.

입종 구비서류

- 본종 입종(포교소 등록)신청서
- 서약서, 승려증 발급 신청서
-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지사 및 대리점 모집

- **식품사업부** 국제/국내 특허제품(숙취해소제, 마가목차) 보유
- **출판사업부** 출판을 원하시는 종도 및 사부대중
- **복지사업부** 자비실천모임(복지에 관심을 둔 자원봉사단 모집)

연 락 처

- **총 무 원**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495-1(태남빌딩2~3F)
- **전 화** 053)311-2675~7 / FAX : 053)311-2634
- **사업상담** 053)311-2675~6 / 010-3134-8484
- **입종상담** 053)311-2677 / 010-3134-8484 (원묵)

비영리종교단체 등록번호 (37451-00292) / 비영리종교단체 고유번호 (513-82-65714)

大韓佛敎禪密宗 總務院

http://www.sunmiljong.or.kr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나무"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약품은 아니며 체질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충북 청원군 북일면 초정약수 **토굴암**
전화번호 : 043)214-1280 **대진 스님**

일주일 철야 정진법회 안내



본 보림선원에서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동계 철야정진 법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보림선원 일주일 철야정진 법회는 백봉선생님께서 확철대오 하신 후 본격적인 대중교화를 펴실 때 학인들을 개오(開悟)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여름과 겨울에 정기적으로 실시 하셨으며 입적 후에도 철야정진을 놓치지 말라는 유훈에 따라 제자들이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생님께서는 세속에서 맺어진 생업을 가지고 혈연을 돌보면서 공부를 해야 하는 학인들이 일주일 철야정진 기간 동안 좌선과 설법을 통해 불교공부를 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 하시어 많은 공부인을 양성하셨습니다. 뜻 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일주일 철야정진 기간동안은 백봉선생님의 육성법문과 불교공부를 할 수 있는 바탕마련을 위한 교재로 하고 선생님의 도반이시자 제자이신 보림사 회주 묵산스님께서 지도 해 드립니다.)

아 래

- **일 시 : 2009년 7월 28일(화) 오후 8시부터**
  2009년 8월 3일(월) 오전 7시까지
- 장 소 : 보림사 선방(서울 성북구 정릉4동 약수길 17-1호)
- 회 비 : 일반 9만원
- 접수 및 문의 : 010-6332-4096
- 준비물 : 간편한 참선복, 세면도구
- 교통편 : 지하철 4호선 돈암역 하차 정릉 청수장행
  143, 162, 1012, 1013 → 대우아파트 하차 (돈암역 25분 소요)

조계종 보림사 회주 묵 산
보림회서울지부장 청 봉 합장





미완의 아름다움, 내소사

빛바랜 나무 꽃잎 사이로 빛깔 없는 단청이 속삭이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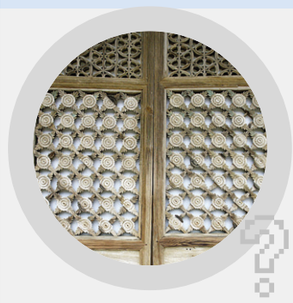
법당 문살에는 빛깔도 없는 꽃잎들이
목수의 고백처럼 피어 있고,
법당 안에는 끝맺지 못한 단청의 여백이
전설 속의 시간을 붙들고 있다.
내소사다.

그 옛날, 목침 하나를 잃은 목수는
포(包) 하나가 모자란 법당을 짓고,
법당에 단청을 들이던 작은 새는
미혹한 중생 탓으로 단청을 마치지 못한다.
목수는 법당 문을 꽃으로 해 달고 떠나고,
작은 새는 미완의 법당만을 남긴 채
전설 속으로 사라진다.

긴 시간을 지나온 햇살이 석탑에 스며든다.
먼 길 온 스님은 법당 꽃살문에 기대서서
아득한 이야기를 듣고,
엄마 손 끝에 매달려 법당에 든 아이는
엄마를 따라 절을 한다.
종각에서 종소리가 들려온다.
예불 모실 스님은 가사를 두르고,
꽃살문 만져보던 객들은
풍경 소리 한 번에 바람처럼 사라진다.

그저 '오늘'이었던 하루는 전설이 됐고,
미완의 법당은 오늘도 중생을 맞는다.
꽃살문 연꽃 위로 나비 한 마리가 날아가고,
법당 처마 밑에서는 제비가 집을 짓는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내소사는…

백제 무왕 34년(633)에 두타 스님이 창건했다. 오랜 세월에 걸쳐 중건중수를 거듭해오다 임진왜란 때 대부분 소실된 절을 조선 인조 때 청민 스님이 중창했으며, 인조 11년(1633)에는 웅장하고 아름다운 대웅보전을 중건했다. 그 후 광무 6년(1902) 관해 스님과 만허 스님의 증축이 있었으며, 1932년에는 해안 스님이 계명학원과 서래선림을 개원했다. 이후 혜산 우남 스님이 선풍을 이어 봉래선원을 열어 현재의 가람을 이루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복장의식 상량식 불사 소장용 영가천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 / 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55,000원
10mm×10mm×12mm 65,000원
12mm×10mm×12mm 85,000원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26×16×16cm ~~13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온열뜸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정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불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천태산에 아미타불 나투시니…

천태사 마애아미타불 점안대법회 봉행

양산 3대 명산 중 하나인 천태산의 깍아지른 절벽에 16m 규모의 대형 마애아미타부처님이 나투셨다.

천태사(주지 진우)는 지난 5년간에 걸쳐 마애아미타불과 좌우협시 보살상을 조성하고, 6월 28일 오전 10시 점안대법회와 만등불사, 산사음악회를 봉행했다.

이 아미타불본존상은 좌우협시 보살과 함께 16m에 이르는 대형 마애불로, 2004년 조성원력을 세운 뒤 5년 여 기도정진으로 불자들의 신심과 각고의 노력 끝에 점안법회와 함께 불사를 회향하게 됐다.

양산 8경 중 하나인 천태산에 자리 잡은 천태사는 신라 원효 대사가 창건하고, 이후 많은 고승대덕들이 머물렀던 절이다.

1부 점안식에 이어 2부 법요식은 육법공양, 고불문 낭독, 경과보고, 감사패 수여, 주지 진우 스님의 인사말, 보선 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장)의 법어, 격려사 및 축사, 발원문 낭독 등의 순으로 2시간 여 진행됐다. 이어 3부에는 마당놀이 배우 김종엽씨가 사회와 공연을 맡아 산사음악회를 열고, 사부대중과 출연자 모두가 한마음으로 원만회향을 축하했다.

주지 진우 스님은 "이곳 천태사에 온지 30여 년이 지나는 동안 가람을 중수하고 도량을 가꾼 것은 산승이라면 의당 해야 할 도리요 책임일 것"이라며 "앞으로 천태사 도량이 고통이 소멸되고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주는 정토도량으로서 중생들의 정신적 귀의처가 될 것"을 발원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보선 스님, (재)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 및 지역 정재계인사 등 사부대중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법하게 봉행됐다.

한편 천태사는 마애아미타불 점안법회의 회향과 동시에 천일기도에 들어가 만등불사를 입재했다. (055)382-5515 박지원 기자



양산 천태산 절벽에 웅장한 모습을 드러낸 높이 16m의 마애아미타부처님.

신도 집단 · 조직화해 실천운동해야 '상승효과'

부산불교연합신도회, '역할과 책임' 세미나

불퇴전의 신심으로 부산 재가불교의 중흥을 이끌 야단법석이, 한국불교를 선도한 천년 신라의 고도 경주에서 열렸다.

부산광역시불교연합신도회(회장 설동근, 이하 연합신도회)는 6월 27일 오후 6시부터 1박2일간 코모도호텔 경주조선에서 첫 세미나를 개최했다.

'부산불교연합신도회의 역할과 책임'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하만경 감사(부경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만 교수(동국대 불교학과)가 그 발전적인 모색과 기초자료에 관해 기조발제했다.

하 감사는 "신도조직은 신심 형성과 유지가 필수적이다. 종교적 신심은 개인적이지만 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신행도반이 필수요소"라며 "신도의 활동을 집단화 · 조직화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참여와 만남을 위한 실천운동을 벌이자"고 말했다.


6월 27일 경주 코모도호텔에서 첫 세미나를 가진 부산불교연합신도회 회원 및 참석 인사들이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이어 주제토론은 왕선자 부산여성불자회장의 '여성 불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불교발전', 류상영 대각불교대학 교학처장의 '부산불교연합신도회의 역할과 책임', 정순회 부산불교사회복지청소년기관협의회 사무총장의 '불교사회복지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 등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또, 재정분과 김정선 위원장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한 재가불교', 교육연구분과 임장근 위원장의 '불교교육과 문화적인 시스템 마련이 우선돼야', 교권수호 및 언론대책분과 김상현 위원장의 '교권수호 및 언론대책분과위원의 책임과 역할', 민족화합분과 권승렬 위원장의 '불교의 전래와 호국불교' 등 다양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설동근 회장(부산시 교육감)은 "오늘날은 국가의 발전과 민족의 화합을 위해 불교를 바탕으로 한 애국애민이 절실한 때"라며 "11월 창립한 부산불교연합신도회가 국가의 경제발전으로 호국호법의 기치를 높이고자 마련한 세미나가 유종의 대미를 장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부산불교연합신도회는 부산 재가불교 교육과 포교, 수행에 이르는 불자의 자질향상과 수적 증대를 위한 심도 깊은 토론으로 부산불교 발전뿐만 아니라 한국불교를 견인하는 출발점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지원 기자

광진 스님 취임

해운대구불교연합회

부산시 해운대구불교연합회장으로 동해사 주지 광진 스님이 취임했다.

6월 29일 오후 4시 해운대 글로리콘도에서 열린 이번 취임식은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장 정여 스님(범어사 주지), 수석부회장 화산 스님, 상임부회장 정각 스님 및 배덕광 해운대구청장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법하게 진행됐다.

광진 스님은 취임사에서 "항상 육바라밀을 바탕으로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대승적 이념을 실천하며, 해운대구와 부산 불교의 발전과 포교에 전념해 상내지 않고 실천하는 회장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정여 스님은 법어를 통해 "불교수도 부산 중에서도 세계인의 주목을 받는 해운대구의 불교련 회장인만큼 불교문화의 발전과 포교에 힘쓰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박지원 기자

'정진 30년' 출판

부산불교정진회

부산불교정진회(회장 최병문)의 지난 30년간 발자취가 책으로 나왔다.

부산불교정진회는 6월 25일 오후 6시30분 라메르뷔페에서 <정진 30년>의 출판기념법회를 열었다.

이 책에는 그간 순례한 사찰 총 54곳과 80여 회의 야외법회 코스와 일정, 두 차례 중국 불교 성지순례 및 사진으로 보는 정진 30년, 회칙, 회원 및 임원 변동사항, 회원 주소록 등 30년 간 정진회가 걸어온 길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최병문 회장은 발간사에서 "힘들 때도 많았지만 마음을 내어 부처님 도량인 산사를 찾아간다는 그 마음자세가 바로 정진 수행이었다"며 "깊은 불심과 환희심의 30년을 한결같이 함께 해준 모든 회원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복 짓는 화두·염불 등 수행하라"

홍법사 큰스님 초청법회 9월 3일까지

홍법사(주지 심산)는 7월 1일 오전 11시 '2009 홍법사 대웅보전 낙성기념 큰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했다.

'수행, 삶의 향기 찾기'를 주제로 한 이번 법회는 대웅보전의 낙성을 기념하고, 윤5월 생전예수재 및 백중을 맞아 특별히 마련됐다.


7월 1일 홍법사 대웅보전 낙성기념 큰스님 초청법회에서 불교TV 회장 성우 스님이 입재법문하고 있다.

7월 1일부터 총 10회에 걸쳐 매주 수요일 대덕스님 10명의 법문을 차례로 듣는 릴레이 법회의 입재법문으로 불교TV 회장 성우 스님이 법석에 올랐다.

이에 앞서 오전 10시 불공을 올리고, 11시 초청 법문 후 12시에는 '생전예수재 및 우란분절 영가천도' 시식을 봉행했다.

성우 스님은 "<아함경>에는 이 세상 모든 힘 중에서 복의 힘이 으뜸이며, 그 복의 힘으로 부처님은 깨달음을 이뤘고, 모든 중생들도 복의 힘으로 성불까지 할 것이라고 했다"며 "한 사람이 맑고 복된 생각을 일으키면 곧 복된 세상이 되기 때문에 복을 마음을 일으키는 화두, 염불, 다라니, 사경 등을 이 세상에서 떠날 때까지 놓지 않으면 다음 생에도 사람으로 태어나 불법을 만나게 될 것"이라며 복 짓기의 공덕에 관해 법문했다.

향후 법회 일정으로는 7월 8일 전 중앙승가대학 총장 종범 스님, 15일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 22일 영축총림 전계사 혜남 스님, 29일 서울 능인선원장 지광 스님, 8월 5일 부산 효산선원장 효산 스님, 12일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 19일 석종사 금봉선원장 혜국 스님, 26일 전주 송광사 주지 도영 스님, 9월 3일 장수 죽림정사 조실 도문 스님 등이 차례로 법석에 오른다. 박지원 기자

'자연' '리더십' 등 5色 캠프

함지골청소년수련관, 초·중·고생 방학 프로그램

영도 함지골청소년수련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창의력과 도전의식을 함양하고 올바른 인격을 형성시켜 줄 5가지 주제의 특별한 여름방학 캠프로 찾아온다.

(재)내원청소년단 함지골청소년수련관(이사장 정련)은 7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2009 여름방학 캠프를 개최한다.

7월 27~29일 함지골수련관과 내원정사에서 열리는 템플스테이 '풍경소리'는 중 · 고등학생 3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8월 8~9일에는 하늘사랑 캠프, 8월 10~11일 자연창작공예캠프에는 모두 초등학교 3~6학년이 참여할 수 있다.

이어 12~14일 리더십캠프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은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한다.

17~19일 한일 청소년 문화교류 캠프가 함지골수련관과 홈스테이 가정에서 함께 진행되며, 초등학교 5~6학년 중 홈스테이가 가능한 가족이면 참가할 수 있다.

신청은 8월 3일까지 등록순 마감이며, 단 템플스테이는 7월 24일에 마감하니 서두를 것. 접수는 수련관 2층 사무실에서 이뤄지며 전화 및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051)405-5223

박지원 기자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장성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천안 동심사 영구위패

찬덕연등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아름다운 등
'동해 독도는 한국 땅'
※ 주름등 · 종등 주문 받습니다(사찰명 인쇄)


칼라(보카시)연등 · 공단등 · 오색공단등 · 영가등 · 종등



육바라밀 만월등(육바라밀 주름등) · 팔각봉축접등 · 종등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진신사리 앞에 참배공간 無

익산사암련 등 익산 불교계 지도자 등 전시관 항의방문

6월 27일 봉행된 미륵사지친견법회 후 미륵사지석탑 사리장엄 및 사리가 일반에 공개됐다.

이를 친견 또는 관람하려는 관람객이 하루 1만명이 넘게 미륵사지를 찾고 있는 가운데, 사리를 공개하고 있는 장소가 협소함은 물론 불자들이 참배할 공간이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불교계와 익산미륵사지 유물전시관측은 사리친견 법회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관람객들의 관람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불자들의 참배를 허용하는 것으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유물전시관 측은 당초 합의한 불자들의 관람에 대한 편의는 전혀 제공하지 않고 불교계와의 아무런 협의 없이 협소한 공간에 사리를 배치해 이 같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익산사암연합회장 우성 스님과 김진수 전북포교사단장, 박중근 익산불교신도회장 등 익산지역 불교계 지도자들은 6월 28일 익산 유물전시관을 항의 방문해 불자들이 참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진영 익산미륵사지유물전시관장은 "상급기관의 조치"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난색을 표했으나, 불교계인사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서야 "사리를 중앙 메인홀에 다시 배치해 불자들이 참배할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수 전북포교사단장은 "그동안 사리를 친견하기 위해 서울, 부산, 대구 등 멀리서 방문한 불자들의 민원이 빗발쳤다"며 "문화재청을 비롯한 문화재 관련 공무원들의 불교 문화재에 대한 인식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미륵사지 현장에서 금산사, 익산 사암연합회, 익산불교신도연합회, 전북포교사단 소속 스님들과 불자들은 미륵사지를 찾는 불자들의 편의를 위해 사리친견기간동안 커피, 녹차, 생수 등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등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유등에 희망과 소원 담아요"

광주 원각사, 유등 띄우기 행사 열어



7월 2일 광주천에서 열린 '유등 띄우기'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등에 소원을 적어 강에 띄우고 있다.

빛고을을 광주도심을 흐르는 광주천에 소원을 담은 유등 띄우기 행사가 열려 눈길을 끈다.

광주 원각사(주지 도제)는 7월 2일 광주천에서 생전예수재 회향을 기념하고,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저마다의 희망과 소원을 담은 유등 띄우기 행사를 봉행했다.

도제 스님을 비롯해 신도 200여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법요식에 이어 원각사 합창단 공연, 살풀이, 통기타가수 공연 등 문화공연과 유등띄우기 행사가 이어졌다.

도제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생전에 천도재를 지내는 의식인 생전예수재 회향을 맞이해 광주시민의 편안한 휴식처인 광주천에 밝은 등을 띄우는 것은 자비와 광명을 세상에 비추는 것과 같다"며 "오늘 띄운 등불이 광주시민의 마음속에 작은 물줄기가 돼 부처님의 법이 시민들의 가슴에 스며들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저마다 컵등에 연잎을 붙이고 소원을 기록해 광주천에 등을 띄웠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연꽃도 보고 명상수련도 하고

완주 옥련암 연꽃지와 차밭 조성

전북 완주군 옥련암(주지 일감)에 연꽃지와 차밭이 조성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완주군 옥련암에 조성된 연꽃지.

일감 스님이 봉사자들과 함께 올 봄부터 조성하기 시작한 연지는 마음을 닦는다는 의미를 담은 마음 심(心)자 형태로 조성됐다.

홍련, 백련, 황련이 피어오르는 연지는 옥련암을 찾는 사람들이 연지를 보며 명상수련을 하고 최근 건립한 등지선원에서 참선수련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일감 스님은 "연꽃이 흙탕속에서도 물들지 않는 것처럼 고고한 성품을 유지하고 부처님처럼 수행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아 마음 심자의 형태로 조성했다"며 "누구나 참배하고 명상과 참선수행을 할 수 있는 열린 도량으로 가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흑산도 무심사지서 기와 등 유물 출토

선종 계통 사찰로 추정되는 전남 신안군 흑산도 무심사지에서 기와 조각 등 유물이 다량으로 출토됐다.

목포대박물관은 7월 3일, "6월부터 한달 여 동안 흑산도 무심사지 일대에서 시굴조사를 벌인 결과 사찰 건물터와 담 등 유구와 다량의 기와 조각, 막새류, 전돌, 자기류, 도기류 등 통일신라에서 고려시대로 추정되는 유물이 출토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굴조사는 '흑산 무심사지 3층 석탑 및 석등(전남도 문화재 자료 제193호)' 유적을 중심으로 무심사지 가람 규모와 보존 범위를 파악해 무심사지 정비복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시행됐다.

한편, 흑산도는 '반월성'이라 불리는 상라산성과 무심사지 3층 석탑 등 문화재가 곳곳에 분포해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선암사 사법사규 부활' 등 의결

종회 의장 호명 · 부의장 운범 스님 등 임명

순천 선암사에서 사중 현안을 두고 재적스님들 전체가 모여 의논하는 산중총회가 열렸다.



6월 17일 순천 선암사에서 열린 재적승려 총회에는 92명의 재적스님들이 참석했다.

태고총림 선암사(주지 경담스님)에서는 6월 17일 적묵당에서 산중총회에 해당하는 재적승려 전산총회를 재적스님 92명이 모인 가운데 열었다.

선암사 소속으로 법랍 5년 이상 스님들이 참가한 가운데 임시의장 법천 스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총회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선암사 사법사규(寺法寺規)를 부활해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도선암(순천시 상사면 비촌리 소재)을 선암사 말사로 환원시키고' '선암사와 조계종간의 오랜 분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는 내용을 의결했다.

또한 향후 선암사를 이끌어갈 종회의원과 종회소임자를 위촉했다.

종회의원에는 금봉 · 보안 · 상명 · 성관 · 성암 · 시각 · 운범 · 원문 · 월인 · 월호 · 정안 · 지상 · 혜신 · 혜정 · 호명 스님이 위촉됐다.

종회소임에는 의장 호명 스님, 부의장 운범 스님, 총무 시각 스님, 서무 정안 스님이 각각 임명되었다.

총회에 앞서 경담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취임한 지 1년 반 동안 많은 일을 진행했다. 부족한 점이 있다면 대중들의 넓은 이해를 바란다"며 "그동안 순천시청과의 관계계선과 노후된 전각을 보수하는데 많은 성과가 있었다. 또한 여름과 겨울에 불교학교를 개설하고, 템플스테이를 진행하는 등 포교에도 진력을 하고있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익산불교신도연합회 오창록 사무국장

"바라밀 실천이 포교효과 높일 수 있어"

최근 익산미륵사지 석탑에서 출토된 사리친견법회 행사장에서 사리친견을 위해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봉사활동 중인 익산불교신도연합회 사무국장 오창록 거사(사진)를 만났다.



오 국장는 20여 년 전 큰스님들의 법문집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법열을 느끼던 중 불교를 좀더 체계적으로 공부해보고자 이리불교대학에 입학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불교와 인연을 맺은 오창록 국장은 포교사고시까지 통과하면서 적극적인 불교활동을 펼쳐왔다.

오 국장은 익산의 마한거사림을 비롯한 신행단체와 익산불교신도연합회를 박중근 회장과 함께 4년 여를 이끌어 오며 엄청난 양적, 실적 성장을 이뤄냈다.

이러한 결과에 오창록 국장의 보이지 않는 원력과 실천행이 숨어 있었음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 국장은 익산지역 불교계에서 자신의 상(相)을 내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맡은바 소임을 다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오창록 국장은 개신교와 원불교가 강세를 보이는 어려운 지역불교계 현실에서도 많은 불자들이 꾸준히 신행활동과 봉사활동을 통해 익산지역 불교계가 발전하는데 중점을 두고 활동 중이다.

"지역실정상 직접 사람들과 부딪히는 포교활동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보다는 부처님 가르침과 바라밀을 실천하는 것이 포교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 국장은 이런 생각에서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를 익산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축제로 발전시키려 노력해 왔다. 뿐만 아니라 소외되기 쉬운 불자들을 위해 사암연합회 스님들과 함께 익산불교인의 밤을 개최했다.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는 그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수 있도록 자비의 연탄을 전달하고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수많은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익산시민들에게 자연스럽게 불교의 자비사상을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해 온 오창록 국장.

요즘 오 국장은 장의봉사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활성화된 부분이지만 올해 익산불교신도회 장의봉사팀장을 맡아 상을 당한 회원 가족이나 불자들을 위해 염불봉사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창록 국장은 정기적으로 가까운 사찰을 찾아 108참회를 해왔다. 남원사에서 진행된 신묘장구대다라니 10만독 기도에도 동참해 매일 천수다라니를 100회씩 1000일간 독송하는 남다른 신심을 보여주기도 했다.

오 국장은 "익산 미륵사지 사리친견법회를 계기로 지역의 불교가 한단계 성숙하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한다. 또 지역 불교계가 이를 계기로 더욱 화합하고 단결해 옛 백제불교의 영화를 재현하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다.

오창록 국장은 "익산지역 사찰들이 대부분 시 외곽에 위치해 있는 점을 들어 익산시내에 불교회관이 건립됐으면 한다"며 "자신은 아무런 내세울 것도 없고 단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뿐"이라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현대불교 현불샵

생활도자기 특별기획전

전화주문 ☎ 02)2004-8215~6

도자기의 본고장 경기도 이천에서 도자기의 생활화를 목표로 순수자연원료로 제작된 도자명품 생활자기입니다. 우리 도자기의 품질로 완성된 생활 명품입니다. 도자기 접시와 찻잔(머그잔, 커피잔), 다완, 퇴수기, 화병, 화로 등 다양하고 품격 높은 생활자기는 불자님들의 생활을 더욱 향기롭게 할 것입니다.

· 퇴수기는 흔히 물버림 사발이라고도 하며, 버리개라고도 합니다. 다관과 잔을 데운 물을 버리거나 다관을 엎어 찌꺼기를 버리는 그릇입니다. 입구가 넓으면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3단도라지꽃합접시
大20,000원/中10,000원/小5,000원


둥근3꽃접시3종세트
판매가 35,000원


4발접시
판매가 45,000원


검정사각흰꽃접시
판매가 45,000원


청자수반퇴수기
판매가 50,000원


분청퇴수기
판매가 80,000원


이도덤벙퇴수기
판매가 40,000원


분청동그리화병
大 40,000원 / 小 20,000원


분청하얀꽃화병
大 60,000원 / 小 40,000원


벚찌화병
大 100,000원 / 小 80,000원


보리꽃커피잔
판매가 18,000원


카키색흰물고기찻잔
판매가 8,000원


카키색도라지꽃찻잔
판매가 16,000원


백자도라지꽃찻잔
판매가 16,000원


하트모양커피잔
판매가 15,000원


연꽃백자커피잔
판매가 18,000원

현대불교@장터
www.HyunbulShop.com
이외 다양한 상품은 현불샵(www.hyunbulshop.com)에서 만나보세요.

석공은 무슨 마음으로 사자 앞에 사람 앉혀 놓았나?

16 계룡산 갑사 익명의 아름다움 혹은 그윽함







기단부의 조각이 매우 선명한 갑사부도(큰사진)와 안상에 새겨진 사자와 사람의 모습(오른쪽 아래). 석종형이 대부분인 부도밭 전경

'갑사부도' 지대석 조각솜씨 결구 수법 뛰어나

크기 비슷한 부도들 선방 같은 분위기... 탑비는 하나도 없어

무문관 수행 일으킨 정영 스님 부도 '단아한 모습'

계룡산 갑사(甲寺) 부도밭은 푸른 그늘 속에 있습니다. 6월의 숲은 겉도 푸르고 안도 푸릅니다. 릴케가 '장미의 내면'이란 시에서 "어디가 이 속에 대한 밖인가요?"라고 물었듯이 갑사로 오르는 숲길도 안과 밖의 경계가 없습니다. 착한 것도 악한 것도 생각하지 않는[不思善不思惡] 삶을 추구하던 선사들의 체취가 스며 든 부도밭도 안과 밖이 따로 없습니다.

갑사의 부도는 부도밭에도 있고 대적전 앞에도 있고 선방 곁에도 있습니다. 역사속의 스승과 오늘의 후학이 한 공간에서 한 호흡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대적전 앞의 '갑사부도(보물 제257호)'를 배알하기 위해 일주문에서 오른쪽 계곡길을 따라 걷습니다. 키가 15m나 되는 철당간(보물 제256호)에 반배를 하고 대숲 우거진 돌계단을 올라서니 커다란 침묵[大寂]의 공간이 나타납니다. 화단의 꽃들도 배롱나무의 흰줄기와 푸른 잎들도 고요 속에 빠져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과 문수와 보현보살님도 반쯤 감은 눈으로 고요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갑사부도는 주인을 알 수 없습니다. 원래 절 뒤 산중에 쓰러져 있던 것을 1917년에 이곳으로 옮겨 모셨습니다. 신라말이나 고려초기에 조성되었을 것 같은 팔각원당형의 기본구조인데, 기단의 조각이 압도적입니다. 비교적 높다란 느낌을 주는 8각의 지대석 위에 3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맨 아래층은 피어나는 연꽃 사이로 안상이 마련됐고 그 안쪽에는 사자가 조각되어 있습니다. 둥글둥글한 사자의 몸체는 살아 있는 듯한데 특이하게도 한 곳은 사자 앞에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그 사자 앞에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거기에 사자가 있는 것이 부도를 수호하는 의미라면 그 사람은 사자를 부리는 신장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부도의 주인이 천지만물의 공양을 받으며 덕화를 베푼 후덕한 스승임을 강조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천여 년 전에 조각을 한 석공의 마음이 어땠는지 알 수 없지만 사자 앞에 사람을 앉혀 둠으로써 부도가 더 많은 법문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기단 아래쪽에 구멍을 내어 빗물이 빠져나가게 한 점으로 보아 그 이름 모를 석공은 참으로 주도면밀하고 불심이 그윽했을 것입니다.

부도의 양식은 화순 쌍봉사 철감도윤(798~868) 선사 부도와 비슷해 보입니다. 철감 선사는 구산선문 가운데 사자산문의 조사입니다. 그의 법을 이은 징효절중(826~900) 스님이 사자산문을 흥륭시켰는데 그의 탑비에는 말년에 공주에 머물렀다는 사실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는 갑사부도의 주인이 징효절중 스님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기록이 없으니 짐작은 짐작일 뿐 익명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음 순례지는 징효절중 스님의 부도가 있는 흥녕선원, 영월 법흥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익명(匿名). 의도적이든 뜻하지 않았든 부도에는 이름을 모른 다는 것이 주는 아름다움도 있습니다. 세세하게 전하지 않는 역사가 한 덩어리의 부도로 뭉쳐져 바람의 켜를 휘감고 있으니 드러나지 않은 아름다움을 읽기 위해서는 나그네가 먼저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도밭 기행은 그 자체가 하나의 수행이기도 한 것입니다.

갑사부도의 익명성은 주인을 알 수 없는 탑에서 풍겨져 나오는 가르침과 그토록 공력을 들여 조탑(造塔)을 한 조각가의 마음을 읽으려는 구도적 노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갑사 경내에 있는 또 하나의 부도는 선원 옆에 있습니다. 대웅전과 삼성각을 지나 선원으로 가는 길은 '통행금지'입니다. 여름안거에 든 선원은 외부인의 발길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가보고 싶은 마음이 앞섰지만, 혹여 결제대중의 정진에 방해가 되면 그 또한 막중한 업보가 될 것 같아 발길을 표충원으로 돌립니다.

표충원은 청허휴정과 사명유정 그리고 기허영규 대사의 진영이 중심입니다. 이 고승들은 잘 알려진 대로 임진왜란의 영웅들입니다. 공주 계룡면 월암리 출신인 영규대사는 청허 스님의 제자로 19세에 출가했습니다. 본분사를 구하는 일에 남다른 정열을 기울이다가 전쟁이 일어나자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승병을 모집해 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주로 충청지역에서 활약하며 청주성 탈환 전투에 승리하고 옥천지역에서도 전과를 올립니다. 금산에서 고경명 조헌 장군과 함께 치열한 전투를 벌이다가 유산에서 장열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이른바 700의총이 형성되는 결전의 현장에서 군사들을 독려하며 적들을 대항하는 영규대사의 모습을 그려보다가 전쟁은 과거만의 일이 아니란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 집니다.

비록 수행자의 신분이었으나 풍전등화의 조국을 위해 창검을 마다하지 않았고 목숨을 던졌으니 왕이 감읍하여 '진위장군'으로 추봉했습니다. 스님의 법구는 절집의 화장법을 따르지 않고 매장 하였는데 무덤은 계룡면 유평리에 있습니다. 1810년에 세운 묘비가 있으니 탑비를 대신한다 하겠습니다. 표충원 마당에도 1973년에 세운 '승병장영규대사사적비'가 있는데 정인보 선생이 지은 글이 사뭇 장중하고 웅혼합니다.

표충원 아래쪽에 자연석을 기단삼아 세운 갑사사적비가 있고 그 아래 그윽한 숲 그늘에 부도밭이 있습니다. 모두 18기의 부도가 둥그렇게 배치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석종입니다. 현은당 부도와 낙서당 부도는 각각 1657년과 1815년으로 연대가 읽혀집니다. 대산당 충허당 함황당 용월당 청심당 등의 명문은 흐릿하게나마 읽혀지지만 그들에 대한 기록은 찾을 수 없습니다.

이 푸른 숲 그늘 속의 부도밭도 익명의 아름다움 혹은 그윽함에 잠겨 있습니다. 이끼 묻은 석종들이 어깨를 맞대고 앉아 바람이 실어다 주는 독경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마침 초하루 법회가 열리는 날이라 스님의 우렁찬 <천수경> 경문이 도량 가득합니다.

갑사 부도밭은 부도들의 크기가 모두 엇비슷해 보기 좋습니다. 지나치게 큰 부도가 위용을 떨침으로 주변의 작은 부도들이 위축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안목에 크고 작음의 분별이 붙어 있어서 그런 것이지 법은 크고 작음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비슷한 크기로 도열해 있는 부도는 크고 작음을 분별하는 중생심을 잠재워 줍니다. 오래된 석종들 사이에 키를 알맞게 맞추고 조용히 자리한 새 부도 하나가 눈길을 당깁니다.

영파당(靈波堂) 정영(瀞暎) 스님의 부도입니다. 2007년 12월 24일 입적한 정영 스님은 현대 한국불교에 큰 족적을 남긴 분입니다. 무문관 수행의 새 길을 닦은 스님입니다. 정영 스님은 1964년 도봉산 천축사에 무문관을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1993년에는 계룡산 대자암에 무문관을 열었고 재가자를 위한 무문관도 열어 수행불교의 새로운 틀을 제공했습니다.

문 없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수행. 기간을 정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작은 구멍으로 간소한 공양물만 받아 주림을 극복합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수행입니다. 자기를 버린 곳에서 더 철저한 정신력으로 자기를 관리해야 합니다. 눕고 싶은 마음의 항복을 받아야하고 자고 싶은 마음을 이겨내야 합니다. 화두를 놓치지 않기 위해 일체의 잡념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무문관 수행은 자기를 죽여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닫힌 문을 박차고 나와 덩실덩실 춤추며 오도송을 부를 수 있을 때까지 자기를 없애는 수행입니다.

정영 스님이 개설한 천축사 무문관은 지금 시설의 노후로 인해 운영되지 못하고 있지만, 대자암 무문관에서는 오늘도 승가와 재가 납자들이 푸른 눈으로 정진하고 있습니다. 정영 스님의 부도는 또 다른 모습의 무문관인 부도밭에서 단아한 모습으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갑사 부도밭은 선방 분위기를 드러냅니다. 타원형으로 둥그렇게 앉아 있는 모습이 멀리서 보면 수좌들이 정진하는 풍경과 흡사합니다.

참이거니 거짓이거니 의논하지 말게
만사는 처음부터 봄눈과 같은 것
이 암주(庵主) 어디로 가느냐고 묻지 말게나
툉활(通闊)한 하늘에 눈달이 잠기네!
(정영 스님의 열반송)

정영 스님 부도 곁에는 아직 탑비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문도들이 이 열반송을 담아 비를 세우겠지만, 정영 스님의 부도가 거기 '익명의 선방'에 자리하고 있음으로 갑사의 역사는 더욱 깊어집니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천년동안 중생들의 아픔을 보듬어 주고 계신 은진미륵 (보물 제 218호)

미륵성지 기도영험도량
은진미륵 관촉사로 초대합니다

일천년 동안 한 곳에 서서, 수많은 중생들을 안아준 은진미륵!

은진미륵은 서기968년 조성을 시작하여 장장 38년간 불사를 진행. 서기1006년(목종 9년) 완성하였는데 찬란한 서기가 삼칠일 동안 천지에 가득하여 찾아오는 사람으로 저잣거리를 이룰 만큼 북적댔다고 합니다. 심지어 은진미륵의 백호에서 나오는 황금빛이 너무 밝아 송나라의 지안대사가 빛을 따라 찾아와 예배하고 "마치 촛불을 보는 것 같이 빛나는 미륵불이구나!"하고 감탄했다하여 사찰 이름이 관촉사(灌燭寺)로 명명됐다고〈관촉사사적비명〉은 적고 있습니다.



기축년 윤달 생전 예수재 및 성지순례 안내

생전 예수재의 내력과 원력

부처님의 대공덕주인 '밤비사라' 왕은 명부를 체험한 후에 다시 깨어나 전생을 참회하고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생전 예수재를 무려 59번이나 열어 그 공덕으로 도솔천에 환생하였다고 합니다. 중국 양무제 역시 매년 봉행하여 인연도리를 널리 알렸다고 합니다. 이에 관촉사에서는 생전 예수재 및 가사 불사를 봉행코저 하오니 나와 조상 그리고 자손만대로 이어지는 업장소멸과 극락왕생의 발원이 담긴 생전 예수재와 가사불사를 통해 전생, 금생 인연 법문을 듣고 이 목숨 다 할 때까지 수행하겠다는 원력을 세우시고 가피 입으시길 바랍니다.

■ 생전 예수재
· 기도입재 : 2009년 6월 5일 (음, 5월 13일) / 천도재 봉행 : 매주 목요일 대웅보전 오전 10시 30분
· 기도회향 : 2009년 7월 23일 (음, 6월 2일) / 동참금 : 예수재 1인 5만원 / 가사불사 성의껏 동참

■ 성지순례
· 일 정 : 2009년 6월 30일 (윤 5월 8일) / · 순례사찰 : 화엄사, 천은사, 연곡사
· 출발장소 : 관촉사 주차장 오전 7시 / · 동 참 금 : 1인 3만원 (점심 제공)
· 입금계좌 : 우체국 310086-01-000089 / 국민은행 453201-04-164635 (예금주 : 관촉사)

■ 1029일 영가 천도 12번째 회향
· 기도일정 : 2009년 6월 7일 (음, 5월 15일)

■ 2009년 수능 100일 기도 입재
· 2009년 8월 4일 (음, 6월 14일)

* 관촉사 은진미륵 부처님께 좋은 성적 성취 발원 수능 기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 많은 대중스님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축원 및 기도 봉행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반야산 관촉사 충남 논산시 관촉동 254번지 ☎ 041)736-5700~2 / 팩스 041)733-4169



월서 스님의
주련 이야기 23

있는 그대로 보면 된다

[원문]
구족신통력(具足神通力)
광수지방편(廣修智方便)
시방제국토(十方諸國土)
무찰불현신(無刹不現身)
–신륵사 극락보전

[번역]
부처님은 신통력을 갖추고
지혜와 방편을 널리 펴서
시방세계와 전 국토 어느 곳이든
그 몸 나타나지 않는 곳이 없네.

[선해(禪解)]

전국의 많은 사찰에서는 템플스테이를 하고 있다. 오늘날 사찰들이 물질만능주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삶의 해방감을 조금이라도 맛보게 하기 위해서이다. 한번쯤 찌든 일상을 벗어나 마음의 안락을 찾는 것도 좋으리라 싶다.

인간이 종교를 믿는 것은, 보다 나은 삶과 정신적 안락을 구하기 위해서이다. 말하자면, 종교는 이념과 구도를 넘어서서 한 개인이 추구해야할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 종교를 믿는 이유 중의 하나는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여 오래 살기 위함인지도 모른다.

사람이 장수를 누린다는 것은 오복 가운데 하나로 꼽힐 만큼 예로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관심의 대상이다. 오래 산다는 건 생명이 있는 존재들이 본능적으로 요구하는 법칙이다. 하지만 예로부터 볼 때, 대개 장수하는 사람들은 오래 사는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마음을 편하게 하면서 자신의 형편과 분수에 맞게 적절하게 섭생을 조절하며 산 사람들이다.

백 년 전 영국의 유명한 의학자가 있었다. 그는 임종이 다가오자 가족을 모아놓고 밀봉한 상자를 건네주며 유언을 남겼다.

"이 상자 안에는 내가 평생 동안 연구한 '무병장수의 비결'이 들어 있다. 하지만 지금 공개 해서는 안 된다. 은행금고에 보관하되 어느 때인가 그것을 세상에 공개할 임자가 나타나면 그때 이 열쇠를 건네주어라."

그 후 몇 년이 지나 어떤 사람이 찾아왔다. 그는 돈이 많은 부호로서 당대의 부자였지만 몸이 병약해 고민을 거듭하다가 마침내 유명한 의학자가 장수의 비결에 대한 유언을 남겼다는 소문을 들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상자를 열어 보기 전 이렇게 말했다.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의 절반을 고인의 기념사업과 의학발전을 위해 내놓을 테니 그 유언상자를 양도해줄 수 있겠습니까?"

가족들은 상의 끝에 고인이 말한 상자의 임자가 바로 이 사람임을 알고 열쇠를 주었다. 마침내 상자가 열리게 되자 많은 사람이 호기심어린 눈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부호는 겹겹이 싸인 흰 보자기 속에서 노트 한 권을 꺼내었다. 거기에는 다음과 구절이 적혀 있었다.

"내가 일생을 바쳐 의학 연구를 하여 얻은 장수에 대한 비결은 오직 다음 한 구절에 불과하다. 모든 병의 원인은 음식을 잘못 섭취하는 것에서 연유한다. 그러니 음식을 되도록 적게 먹고 잘 씹어 먹어 위가 언제나 만복이 되지 않도록 하라. 또한 머리는 차갑게 하고, 발은 따뜻하게 하라. 이것이 바로 건강의 지름길이다. 이대로 실천하면 만병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부질없이 불로양생을 찾기 위해 헛되이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지 말라."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부처의 모습으로 보면
집착과 번뇌 사라져 항상 '부처 마음'으로 살아

많은 돈을 들여 유언상자를 사들인 부호는 노트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실천하여 그 후 건강한 일생을 보내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무병장수의 비결은 이처럼 쉽고도 가까운데 있다. 사찰의 템플스테이를 찾아가 보면 소식하는 소욕지족의 삶을 통해 어쩌면, 오래 사는 비결을 스스로 체득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럼, 오늘의 주련여행으로 들어가 보자. 여주 신륵사는 아름다운 남한강을 끼고 있는 천년 고찰로서 중요문화재인 보물이 많아 시민들이 많이 찾는 명승지다. 아미타 부처님을 주존으로 모신 극락보전은 조선 후기 건물이다. 양식적으로 보면 앞면과 옆면 각 세 칸의 팔작지붕으로 자연석의 주춧돌 위에 흘림기둥을 세우고 다포식 공법으로 지었는데 극락보전의 주련은 근대 서예가인 성당(惺堂) 김돈희(金敦熙)의 글씨다.

극락보전 앞 다층석탑(보물 제225호)은 조선 초기의 탑으로 탑 몸체 사면에 구름무늬와 용무늬가 새겨져 있는 뛰어난 대리석의 조각품이다. 조사당에 모셔져 있는 석종부도(보물 제228호)는 나옹선사의 사리를 봉안한 것으로 봉 모양을 닮았다. 석종비(보물 제229호)는 나옹 선사의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비문은 목은 이색(李穡)이 짓고 한유(韓愈)가 글을 썼으며 이인중이 새겼다고 한다. 또한 석등은 팔각 기단부 위에 팔각의 화사석과 옥개를 얹고 그 꼭대기에 보주를 올렸다. 각 우주에는 용을 양각하였고, 각 면에는 선(線)을 나타낸 창문이 여덟 개 있으며 창구(窓口)마다 비천상이 있다. 석등은 인간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는 연등의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색은 나옹의 비문에서 '보리의 몸은 이미 화장을 하였건만 강물과 달은 지난날과 다름이 없구나. 이제 신륵이 장강에 임하여 있고 석종이 거기에 우뚝 솟아 있어 달이 뜨면 그림자가 강에 거꾸로 걸려있고 물빛은 등불 빛 같고, 무럭무럭 타오르는 향기만 그 속에 엉겼으니 이른바 강월헌이로다. 비록 한없는 세월이 흐른다 해도 마치 보리가 살아있는 것만 같구나' 하고 읊었다.

신륵사 극락보전에 새겨져 있는 주련의 의미는 위대한 부처님의 신통력을 한 눈에 보여 준다. 원래 부처님의 방편은 인간의 지혜로서는 다 헤아릴 수 없이 무궁무진하다. 그럼 부처님의 방편이란 무엇일까?

'즉심시불(卽心是佛)'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마음이 곧 부처이다'라는 뜻이다. 사람은 내가 가진 마음이 부처인데 이를 자신이 잘 다스리지 못해 마라(魔羅)가 되고 만다.

그래서 옛날 조사 스님들은 '봄에는 꽃이 피고/ 가을에는 달 밝고/여름에는 바람 불고/겨울에는 눈 내리네/ 쓸데없는 생각만 마음에 두지 않으면/ 인간사는 한결같이 호시절이 되리라'고 했던 것이다.

즉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만이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신통력을 가질 수가 있다는 말씀이다. 이와 달리 인간이 괴롭고 힘든 것은 오직 자신이 지어내는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시비 · 분별을 일삼음으로써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내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가진 부처의 지혜를 잘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로 가슴을 울리는 진리라고 하겠다.

이처럼 우리가 그토록 만나기를 원하는 부처님은 시방세계, 모든 국토 어느 곳에서든 있다. 저녁에 바라보는 달빛, 별빛은 물론, 길을 가다 만나는 풀꽃조차 모두 부처이며 또한 내 곁에 있는 소중한 남편과 아내, 자식, 친구들도 모두 부처임을 알아야 한다.

말하자면 내 마음이 부처가 되면 내가 만나는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이 부처가 되고 내가 마귀가 되면, 그들도 마귀가 될 수 있는 게 이 세상이라는 말이다.

이와 같이 부처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이다. 신륵사 극락보전에 새겨져 있는 주련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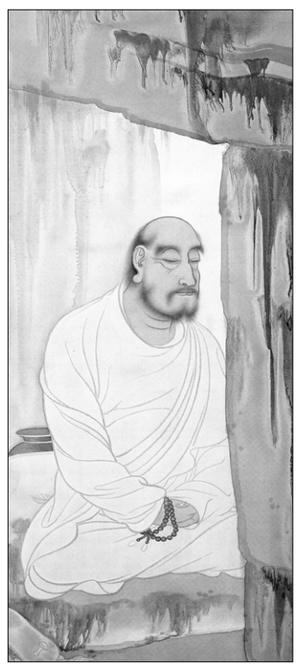
■ 조계종 원로의원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혈맥론 23

부처 아닌 존재가 없다

[원문]

此心是佛 人皆欲得見 於此光明中 運手動足者 如恒河沙 及乎問着 摠道不得 猶如木人相似 摠是自己受用 因何不識 佛言一切衆生 盡是迷人 因此作業 墮生死海 欲出還沒 只爲不見性 衆生 若不迷因何問着 其中 無有一人 得會者 自家運手動足 因何不識 故知 聖人語不錯 迷人自不會故知 此心難明 惟佛一人 能會此心 其餘人天衆生等 盡不明了 若智慧 明了此心 方名法性 亦名解脫 生死不拘 一切法 拘他不得 是名大自在王佛 亦名不思議 亦名聖體 亦名長生不死 亦名大仙 名雖不同 體卽是一.



日 다이쇼우(1912~1926년)시대 '면벽달마도' (島根縣立미술관 소장)

"이 마음이 곧 부처이니라. 사람들은 모두가 자성을 보고자 하나 이 광명 가운데서 수도 없이 손과 발을 움직이면서, 물어보면 전혀 알지를 못하니 허수아비와 같구나. 모두 자기가 경험하고 활용하면서 어찌하여 알지 못하는가? 부처님이 말씀하시길 '중생들은 모두 미혹하여 업을 지으므로 생사의 바다에 빠지며, 나오려 하지만 도리어 빠지는데 그 이유는 성품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하셨다. 중생들이 어리석지 않다면 어찌하여 물어 볼 때 한 사람도 아는 이가 없는가? 자기의 손과 발을 움직이는 것을 어찌하여 모르는가? 그러므로 알지니라. 성인의 말씀은 틀리지 않는데 어리석은 사람이라서 알지를 못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알지니라. 이 마음을 밝히기가 어려워 부처님만이 이 마음을 아시고 그 밖의 사람이나 하늘의 중생들은 분명히 알지를 못하는 것이니라. 만일 지혜로 이 마음을 분명히 깨달으면 비로소 법성(法性, 진여)이라 하고, 해탈이라 하니, 생과 사에 거리낄 것이 없고, 일체 법에 걸림이 없으니 대자재왕불(大自在王佛)이라 하며, 부사의(不思議, 불가사의)라 하며, 성스러운 것이라 하며, 장생불사(長生不死)라 하며 대선(大仙, 부처님)이라 하느니라.

[해설]

볼 수 없는 부처님의 실상자리를 사람들은 모두 보려 애쓰지만, 이 광명 가운데서 부처 아닌 게 없는데 따로 보려고 하기에 '사람들은 이 광명 가운데서 수도 없이 손과 발을 움직이면서, 물어보면 전혀 알지를 못한다'고 달마 대사는 말합니다. 우주 전체가 부처(법신) 아닌 게 없는데,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는 그대로가 부처인데, 따로 부처가 있다고 찾는 것을 안타까워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진 존재가 모두 부처 아닌 게 없다' 이렇게 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부처님을 바로 보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주를 그대로 하나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 분별 하느냐 입니다. 분별하면 중생이고 분별하지 않고 보면 그것이 부처님 세계입니다. 부처 아닌 게 없는데 따로 부처를 구한다면 영원히 부처를 볼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는 중생의 삶이 미혹의 세계에서 사는 것이며, 생사가 없는 도리를 모를 때 또한 미혹의 삶이 됩니다. 생사가 없는 도리를 알고 경계에 끄달려 가지 않으면 반야의 삶이지만, 형상이나 소리로써 진리를 구한다고 하면 도리어 윤회의 수렁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관세음보살을 찾든 지장보살을 찾든 그것은 이름입니다. 본래는 어떤 이름도 붙일 수 없는 것이기에 그렇게 찾아 들어가야 생사를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생들이 어리석지 않다면 어찌하여 물어 볼 때 한 사람도 아는 이가 없는가? 자기의 손과 발을 움직이는 것을 어찌하여 모르는가?' 이 말씀은 사람의 동작이 다 '부처 작용'인데 어찌하여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마음을 밝히기가 어려워 부처님만이 이 마음을 아시고 그 밖의 사람이나 하늘의 중생들은 분명히 알지를 못하는 것이니라.' 이 마음은 밝히기가 어렵다 하신 말씀은 부처님께서도 49년 동안 설하시고 '나는 법을 설하지 않았다' 말씀 하셨듯이, 이것은 수행을 통해서 업을 맑히고 성품이 드러나야 느끼는 것이지 말로나 문자로는 표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어떤 표현도 할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그 자리에 대해 말씀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문자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자리를 우리들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신 것이니, 우리도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정진하면 생사 없는 도리를 깨달아 해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지혜로 이 마음을 분명히 깨달으면 비로소 법성(진여)이라 하고, 해탈이라 한다' 고 할 때의 '지혜'는 우주를 있는 그대로 하나로 보는 견해를 말합니다. 우주를 하나로 보고 오온에서 벗어났으면 부처라 하고 해탈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오온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부지런히 정진해서 오온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오온에서 벗어나서 우주를 그대로 쓸 수 있으면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주를 그대로 쓸 수 있다면 경계가 다 끊어졌기 때문에 대자재왕이요, 좋다 나쁘다가 모두 끊어졌기 때문에 성스러운 것이며, 나고 죽음이 끊어졌기 때문에 장생불사라 하며 우주를 하나로 한 몸으로 쓰니 대선(부처님)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청주 혜은사 주지

한방(韓方)치료로
간경화, 간질
갑상선항진증, 결핵성 임파선염
백납, 뇌수종
산후풍, 수족냉증
불임, 갱년기(울화)병
한솔한의원
031)555-7780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47번지 타워크리닉 3층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90423-중-5041호

설법 연수생 모집
교육내용
1. 대인불안공포증의 원인분석과 대안
2. 단전호흡 & 발성훈련의 실기훈련
3. 설법의 개념과 부처님의 5종 설법
4. 설법자료 및 훈련자료에 의한 연수
5. 음성언어와 몸짓언어의 실기훈련
6. 표현상의 수사 및 논리상의 수사
7. 경우에 따라서 '최면(催眠)'도 지도함
회원모집 & 특징
◆ 본인이 원하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음
◆ 맞춤식 개인지도 (2시간 기준. 8과정)
◆ 동영상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지도교수 又佛 김철회 박사 직접지도
◆ 한국설법연수원 원장 ◆ 한국인성개발원 회장
◆ 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법인 이사장
◆ 대한최면심리학회 부회장 / 대통령 표창(교육 부분)
◆ 美 로드랜드 의과대학에서 최면전문가 자격증취득 / 최면지도사
◆ 대한웅변 중앙회 회장 역임
◆ 문의 및 신청 ◆
TEL 02)747-1567
H·P 011-248-1567
E-mail : kch3296@hanmail.net
한국설법연수원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층)
<지하철 1, 3, 5호선 종로 3가역 2번출구>

영남범음범패 학인모집
자 격
승려 및 범음범패에 관심 있는 모든 재가불자
교육과정 1년
내 용
범 패 : 거불 / 복청계 / 가영 / 향수나열 / 도량계 / 다계작법
작법무 : 천수바라 / 사다라니 / 법고
※ 각단 불공 및 사찰의식 전 과정
※ 천도재 및 49재 의식을 중심으로 교육
시 간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5시 (3시간)
교육장소 해동 성취사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동백리 317-4
강사진 : 교육원장 해륭 큰스님 (무형문화재 9호)
교수_ 보암 스님
전문강사_ 우암 스님, 동암 스님, 송암 스님
문의 전화 051) 727-0859
팩스 051) 727-0809
휴대전화 010-3004-0859
010-2847-3500

심의필번호 제070605-중-336호
건선치료
아토피 피부염
아토피.... 이젠 긁지 마세요.
아토피 피부염 치료!
습진, 알레르기, 비염, 갑상선클리닉, 임파선클리닉
풍부한 치료 경험,
정통 한방 치료법을 바탕으로
자생초 한의원 아토피크리닉에서
아토피 환자 여러분들을 돕겠습니다.
자생초한의원
www.jasaengcho.com
TEL 053)746-0075
위치 : 대구 지방노동청 옆, 아웃백(황금점)옆

시대가 요구할 땐 대중과 울고 웃는 보살 많아져야

선지식을 찾아서 동명

전등사 전등선림 선원장 동명 스님

해안 스님 10일간 십만배 시켜… '생활이 곧 법문' 배운 행자생활

"고행이 바른 수행법은 아니야"… 심성 곧고 반듯한 게 정도



서울 성북동 북한산 자락에는 '깨달음의 숲'이 있다. 바로 전등사 전등선림(傳燈禪林)이다. 전등사의 선원이름이 '선림(禪林)'인 이유는 나무가 홀로 성장할 수 없듯이, 수행자도 도반들과 함께 정진해야 큰 선지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근현대 호남의 대표 선사였던 해안(海眼, 1901~1974) 스님이 지은 이름이다.

올 하안거에도 16명의 재가자가 방부를 들인 전등선림은 해안 스님이 "재가불자들도 스님과 함께 수행해야 한국불교에 희망이 있다"며 1967년 만든 '불교전등회'의 등불을 이어온 대표적인 재가 참선도량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공부가 실전 수행'이라며 도심에 전등사를 개원한 해안 스님은 "화두일념에 들면 누구나 7일만에 깨달을 수 있다"고 수행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경봉 스님과 함께 '동(東) 경봉, 서(西) 해안'으로 불리며 선풍을 떨쳤던 해안 스님의 유지를 이은 선원장 동명 스님은 스승이 입적한 지 35년이 지난 오늘까지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선(禪)의 가풍을 이어오고 있다. 전등선림의 안거 수행자들은 오전 4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하루 8~15시간 참선한다. 동명 스님은 대중과 함께 선방에서 좌선하거나 죽비 경책을 내리는 한편, 수시로 일대일 점검을 하며 수행자를 지도하고 있다.

소박하면서도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돈된 선원장 실에 들어가 삼배를 하려니, 일 배만 하라고 한다.

"스님, 성북동 재개발 문제로 사찰이 이전해야 될지도 모른다면서요?"

"재개발 허가가 났지만, 주민들의 찬반이 팽팽해서 아직 확정되진 않았어요. 재개발 여부가 결정되면, 절 바로 옆에 홀로 된 어르신들이 마지막까지 정진하며 살 수 있는 쉼터를 만들까 해요."

사진기자가 연신 플래쉬를 터뜨리자, 스님은 해맑은 미소를 지으며 겸연쩍게 말한다.

"인터뷰라는 게 꼭 연기하는 거 같네요."

"스님, 세상살이가 연극 아닌 게 있나요."

"그렇지. 하하하!"

전등선림의 수행현장을 여러번 방문한 터라 스님의 출가인연과 공부담에 대해 여쭈었다.

1950년 충남 부여에서 태어난 스님은 어머님이 자식을 키우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아 완주 일출암에서 2년 동안 지내기로 하고 절에서 생활했다. 열네살 때부터 1년반 동안 출가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데, 신심행이라는 노보살님이 "전라북도의 큰스님 한 분이 전주에 오신다"며 만나뵙도록 해 주겠다고 했다.

어린 나이에도 도인스님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하던 일을 놓고 도망쳐 나왔다. 순진한 마음에 절에서 잡으러 오는 줄 알고 가시덤불을 헤치고 산을 넘어 그렇게 도망나와 해안 큰스님을 뵈러갔더니, 이미 날짜를 하루 넘겼다. 다행이 큰스님께선 "충남 보덕사로 찾아오라"는 전갈과 200환을 넣은 돈봉투를 남기고 떠나셨다.

다음 날, 보덕사를 올라가니 비구니스님들이 "전주에서 꼬마가 왔다"며, 목욕을 시키고 머리를 깎아주었다. 옷을 갈아입고 당시 보덕사 선원 조실로 수좌들을 지도하던 해안 큰스님을 뵈었는데, 그리도 엄숙해 보일 수가 없었다. 절을 하고 앉은 동명 스님에게 큰스님께서 "무엇을 했느냐?"고 묻자, "꼴도 베고 나무도 하고 일도 했다"고 대답했더니 반가워하면서 옆방에서 자라고 했다.

"그날 밤, 그렇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가장 많이 사랑 받았으며, 내 생애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모했던 스승님을 뵈었지요."

동명 스님은 보덕사에서 무더운 여름 날, 큰스님의 지시에 따라 일념으로 하루에 일만배씩 열흘 동안 십만배를 했다. 그러고 나니, 큰스님께서 청소하는 것에서부터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가르쳤다. 이때부터 동명 스님은 내소사 지장암(現 서래선원)으로 가서 해인사 강원으로 공부하러 갈 때까지 서너 해 생활 그대로가 법문이었던 행자시절을 보냈다. 큰스님은 어린 상좌에게 목탁 치는 법이며 염불하는 것을 가르쳤고, <금강경>을 외우다 모르는 것이 있어 여쭈면 자다가도 일어나 가르쳐 주었다.

"나는 그 때 스승은 무엇이든 물으면 가르쳐 주는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큰스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편했고, 그 때부터 스님을 모신 이후 돌아가실 때까지 한번도 스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었지요. 스승이 시키는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곧 배우는 것이며, 그것이 사제지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해안 스님은 동명 스님에게 '불교가 무엇이다, 수행자란 이런 것이다'라는 말은 거의 하지 않았다. 공부를 가르칠 땐 무서울 정도로 엄숙하게, 사적으로 스님과 신도를 대할 때는 한없이 부드럽고 자상하게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는 일상생활 속에서 법을 깨닫게 했다.

"지장암에서 스님을 모시고 살 때, 스님은 종종 내소사가 한눈에 보이는 곳에 앉아 '산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느냐?'하고 물으시면서 '산을 보거들랑 산의 부동(不動)함을 배워라'하셨고, 흐르는 물 앞에선 '만물의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하는 모습'을 보도록 가르치셨어요. 일상생활의 모든 게 법임을 배웠던 것이지요."

일 년에 한 번 두부를 먹어볼까 말까 할 만큼 가난했던 지장암 시절엔 오전에 참선과 경전 공부가 끝나면, 오후 내내 농사짓는 울력이 많았다. 먼 곳에서 도인스님을 찾아 공부하러 왔던 수좌스님들도 못견디고 돌아가는 일이 비일비재 했다.

하지만 동명 스님은 스님 곁에 있는 것으로 감사해 그런 마음을 한번도 먹지 않고 한시도 스님을 떠나지 않았다. 일을 하다가도 멀리서 들려오는 스님의 목소리, 기침소리만 듣고도 원하는 걸 감지하고 그대로 대령하곤 했다. 그러면 큰스님이 "내가 물을 먹고 싶었는데 네가 알고 떠왔구나"하고 기뻐하셨고, 가을이면 산에 올라가 다래며 머루, 으름 등을 따다 드리면 어디서 어떻게 따왔는지를 물으면서 맛있게 드시곤 했다.

해안 스님은 16세의 어린 동명 스님이 법기(法器)임을 알고 행자생활과 함께 참선을 시켰다.

"어느 날 우물가에서 걸레를 빨고 있는데 다가오셔서, 주장자로 우물을 세 번 두드리며 '이게 무엇이냐?'고 물으시길래,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더니, 그 뒤로 '은산철벽(銀山鐵壁)을 뚫으라'는 화두를 내리셨습니다."

그후 동명 스님은 해안 스님과 늘 화두에 대해 문답을 주고 받았는데, 해안 스님은 법회 때 사람들 앞에서 "동명이 공부를 잘 했다"고 칭찬했다. 막상 제자 앞에선 칭찬을 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선, "공부도 잘 하고 착하고 좋은 아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아 어린 상좌를 기쁘게 했다.

"스님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든 공부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준 선지식입니다. 선지가 투철한 대선사이셨고 시문(詩文)에 능하셨던 스님께선 내게 시를 읊어 주시며 받아 적게 하셨고, 스님들이나 신도분들에게 보내는 편지도 기록하도록 하셨어요. 스님은 내게 글을 짓는 법에서부터 말하는 법까지 수행자가 지녀야 할 법도 등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한 가르침은 내 평생의 살림살이로 가슴 속에 살아 있습니다."

해안 스님의 공부에 대한 지도방법은 독특했다. 용맹정진을 할 때 한 사람씩 불러들여 문답을 하면서 잘못된 점은 지적하고 혼을 내어 분심과 의심을 일으키게 해서 잡생각 할 틈을 두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제자가 다른 틈을 두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참선이고 간경이며 공부였다.

스승의 엄격하면서도 자상한 가르침을 동명 스님은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받아들였지만, 세상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동진출가했던 스님은 수행과정에서 큰 사고(?)를 치고 만다.

나이 열여덟이 되자, 스님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바지 속에서 불쑥불쑥 치솟는 욕망덩어리를 확인하고 심한 자괴감과 혐오감을 느꼈다. '성욕(性慾)이 없어진다면 더 열심히 수행할 수 있을텐데…' 하는 고민 끝에 스님은 극단적인 선택을 결행했다. 아궁이 문으로 사용하는 두툼한 나무판 위에 성기를 올려놓고 시퍼런 삭두(머리 깎는 칼)로 힘껏 내리친 것이다. 순간 스님의 몸에서 붉은 피가 머리까지 분수처럼 뿜어져 나왔다. 잠시 후 이를 발견한 열일곱 살 더 많은 사형 혜산 스님이 깜짝 놀라 손수레에 스님을 싣고 병원으로 가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다.

"공부가 안 될 때는 생식이나 단식, 묵언 정진 등 안 해본 게 없었죠. 몸뚱아리를 조복받아야 견성한다는 고정관념이 강했던 겁니다. 하지만 고행은 인내력만 기를 뿐, 오히려 나태해지고 교만해지기 쉽다는 것을 깨닫고 그 때부터 고행을 멈추고 대중과 울고 웃는 보살이 되기로 했습니다."

동명 스님은 …

1950년 전북 부안에서 태어난 스님은 1964년 해안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내소사에서 사미계를, 통도사에서 구족계를 수지했다. 1975년 합천 해인사 강원을 졸업하고 해인사, 송광사, 통도사, 백양사 등 제방선원에서 '은산철벽(銀山鐵壁)'을 화두로 참구했다. 1987년 동국대 불교대학원을 졸업한 스님은 부안 내소사 주지와 조계종 종회의원, 개운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현재 전등사 주지 겸 선원장을 맡고 있는 스님은 해안 선사의 유지를 받들어 시민선방을 개설, 사부대중에게 참선을 지도하고 있다.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해성불원(海成佛院) 자비회(慈悲會)

삼보에 귀의 하옵고
부처님의 자비의 광명이 온누리에 비추어 중생들의 소원성취 이루도록 발원 하옵니다.

베트남, 중국(한족),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몽골
아가씨와 짝지어 주기 운동

- 결혼정보 초혼 · 재혼 -

중국(한족)아가씨 신랑 한 사람 당 신부 열 명의 선을 보고 일일이 궁합을 보고 궁합이 좋은 아가씨 자택 방문하여 부모들을 만나보고 사는 모습과 미진한 점등을 묻고 살펴서 완전 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스님의 직접 통역 하에)

□ 의심점이 있으신 분 먼저 중국에 결혼한 신랑들과 연결하여 투명하게 연결도 하여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들께)
□ 한족은 태국, 필리핀, 베트남 아가씨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말을 전혀 모르니까 (한국말을 나오면 가르쳐야 합니다)
□ 자격 : 직장이 있는 자, 전세방이라도 있는 자
(직장 확인서 1통, 갑근세 증명 1통, 전세 계약서 사본 1통)

초혼 · 재혼 일본으로 결혼 하실 여성분

해성불원자비회는 봉사단체로서 실비로 여러분의 인연을 맺어 다문화 가정을 이루어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하라고 노력하는만치 완전 무결함을 우선으로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왕복항공료, 호텔숙박비, 식대, 국제결혼 서류 작성비
신부 입국 모든 제반 일체를 책임성 있게 일괄 처리

감사의 안내말씀

삼보에 귀의하옵고,
각 사암 스님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저희 해성불원자비회가 발족 한지도 어언 4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각 사암스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 오늘날까지 많은 발전을 가져와 농어촌 노총각 들을 대과 없이 짝을 이루어 살매, 근원을이루어 주었고 현재는 더욱 발전하여 여러 국가 여성들 중국, 베트남, 네팔,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등 다수 국가의 아가씨와 폭 넓게 발전하게 됨은 오로지 스님들께서 다 같이 염려하여 주시는 은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문화 가정을 이루어 노총각들의 삶의 보람과 굳건한 한국 인구 발전에 더욱 협조하여 주시기를 기원 하옵니다.

◆ 담당 : 만해 스님 합장 인천 광역시 남구 용현동 463-57 우.402-202 (전등사 내)
주 · 야 핸드폰 010-5494-9595 / 전화 032)886-1661
서울사무실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지하도 1번출구 옆 (아쟈빌딩 1505호)

‘일행일구’라도 실천하세요



깨달음과 멀어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시절인연에 의해 발원할 때는 손을 끊거나 태워도 아프지 않지만, 그게 항상 수행의 바른 법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쾌락과 고행의 양극단을 버린 중도의 길을 택해 깨달으셨듯이) 괴각(乖角: 소의 뿔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듯 유별나게 고집부리는 것) 하지 않고 심성이 곧고 반듯한 게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사소한 일상속에서 인간미를 느끼게 한 자비로운 스승에 대한 동명 스님의 회고담은 40여년 전의 일이라고는 믿기지 않을만큼 생생했다. 한 마디 한 마디가 스승에 대한 사모의 정이 우러나는 표현들이어서, 요즘처럼 각박한 세상에서는 상상 조차 할 수 없는 사제지간의 애뜻한 정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비록 삭막해지긴 했지만, 다시 현실로 돌아와 ‘지금 여기’의 수행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예로부터 먹고 살기 힘들지 않은 시절이 없었지만, 수행자의 근기가 얕은 요즘 신도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십시오.”

“초보자는 일할 때는 화두 놓고 일에만 몰두해야 해요. 일하거나 운전할 때는 그 대상과 하나가 되면 됩니다. 이것 저것 많이 배우기 보다 일행일구(一行一句)라도 제대로 알아서 소화를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할 때는 일과 하나 되어 정성껏 일하고, 절에 와서 좌선할 때는 모든 망상을 쉬고 화두만 챙겨야 합니다. 화두공부는 한가하게 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절박한 공부죠. 험한 세상살이가 까딱하면 바깥 대상만 쫓아다니는 독약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상(我相)을 허무는 계기로 삼아 발심만 잘 하면 훌륭한 공부도량이 될 수 있습니다.”

“해안 선사께서는 일주일만에 깨달을 수 있다고 했는데, 요즘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일까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정진을 오래 해야만 깨치는 것으로 알지만, 견성(見性)은 단시일에 결정내지 않으면 안됩니다. 부처님과 역대 조사들은 아무리 미련한 사람이라도 7일이면 도를 성취한다고 했습니다. 만일 7일안에 깨치지 못했다면 그 원인은 수행자의 정신자세가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수행자는 ‘크게 한번 죽는(大死一番)’ 용맹심으로 오직 화두 일념에 사로잡혀 옆에서 뇌성벽력이 쳐도 듣지 못해야 하고, 찬 바람이 뼈 속에 스며들어도 추운 것을 간섭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죽기로써 대든다면 7일간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라 생사의 일대사를 결정짓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겁니다.”

“산문 밖이나 안이나 경제난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각박해지다보니, 수행자들도 탐진치 삼독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행과 생활이 조화되려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까요?”

“수행이란 마음 씀씀이를 좋은 쪽으로 바꾸는 일이고 자기 업을 전환하는 행위라 볼 수 있죠. 긍정적인 생각, 올바른 행동이 삶속에서 우러나오지 않으면 수행한다고 할 수 없어요. 공부가 잘 된 사람은 마음이 안정되어 있어 맡은 일도 잘 하고, 인격도 훌륭하죠. 그 사람의 언행(言行)을 보면 탐진치가 어느 정도 조복이 됐는지, 공부 정도를 가늠할 수 있어요. 부처님은 지극히 인간적인 분이셨고 완전한 인격자였듯이, 우리들 역시 바른 생각과 행동으로 반듯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마을에서도 신뢰를 잃거나 고통 받지 않고 잘 사는 법입니다.”

“<유마경>에 ‘직심이 도량(直心是道場)’이란 법문이 있듯이, ‘반듯하게 산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순수하고 곧은 마음, 일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으로 들리는군요.”

“그렇지요. 부처님께서도 정진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말할 게 없죠. 자신의 수행을 되돌아보고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어야 합니다.”

“끝으로, 불자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계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함과 꾸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꽃이 피려면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씨도 뿌리지 않고 꽃을 피우려고 해요. 부지런히 정진해서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꽃이 활짝 필 때가 있음을 믿고 한결같이 나아갔으면 합니다.”

동명 스님은 안거 횟수가 계급장처럼 여겨지는 수행 풍토와 훌륭한 선지식의 지도점검이 없는 선방의 현실에 대해 안타까워하면서도 말을 아꼈다. 일평생 선방에서 정진하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지만, 대중과 호흡하며 그들을 불법의 대해로 인도하는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 무심도인(無心道人)이 존경받는 것도 미덕이지만, 시대가 요구할 때는 시장통에서 대중과 울고 웃을 수 있는 보살이 많이 나와야 한다는 생각이다.

법문을 청하는 곳이 있으면 마다 하지 않고 설법 후 보시금도 사양하는 동명 스님. 언제나 동자승 같은 천진한 미소로 재가불자들을 자상하게 맞는 스님을 보면, 해안 선사가 전등선림을 스님에게 맡긴 이유를 알 것만 같다.

불조(佛祖)의 혜명(慧命)이 끊어질 듯 위태로워 보이는 요즘, 진흙속에서 연꽃은 더욱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 도심속에서 깨달음의 숲이 더욱 푸르고 무성해지기를 발원하며 선원의 불이문(不二門)을 나섰다.

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51. 진각종 회당 대종사

신라 신인종서 연원한 진각종 창종… 육자대명왕 진언 수행

진각종 회당 손규상(悔堂 孫圭祥, 1902~1963) 대종사는 울릉도 사람이다. 1962년 대구 심인당에 들르니 20여 명의 종도들과 함께 육자명호(六字名號, 옴마니반메훔)를 외우고 있었다. 신라 선덕여왕 때 명랑 법사가 창조한 신인종(神印宗)을 연원으로 하고 있으나, 육자진언을 외우는 것이 특징이었다.

인물이 훤하게 잘 생긴 어른이 하이칼라에 두루마기를 입고 정진하시는데, 단에는 부처님을 모시지 않고 육자대명왕진언(六字大明王眞言: 관세음보살의 광대원만한 자비심을 소리로 형상화한 진언) ‘옴 마니 반 메 훔’을 본존불로 모시고 있었다. 처음 보는 일이라 조금은 서먹서먹하여 쳐다보고 있으니 정진하던 사람이 옆으로 와 낮은 소리로 말했다.

“우리 종조님께서는 1946년 성불(卽身成佛)로 현세정화를 목적으로 하여 삼밀가지(三密加持: 부처와 중생의 신체와 언어와 마음이 서로 합치되는 것)를 하고 있네. 아직은 힘이 없지만 장차 후배들을 양성하면 어두운 세계에 밝은 빛이 될 거야.”



호기심으로 들렸던 심인당에서 한국불교 18개 종단의 하나인 불교 진각종의 총본산을 참배하게 되어 큰 의의를 가지게 됐다. 그런데 이듬 해 침산동 불승 심인당에서 62세로 입적하신 손 종조의 뜻을 받들어 1966년 재단법인 대한불교진각종 유지재단으로 변경, 1973년부터 진각종보를 발간하고 회당장학회를 설립, 심인중고등학교와 진선여자중고등학교를 세워 인재를 기르면서 기도원과 수도원, 진각대학을 설립했다. 여기에 소속된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원, 탁아소를 만들어 각 구 단위로 운영하니 오히려 기성 불교종단보다도 힘이 있고 단합된 종단을 운영하게 됐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진각종 교육원장께서 불교통신대학 대학원에 입학하여 성실하게 공부함으로써 타의 모범이 되었고, 또 교단의 정사들이 어떻게 생활하는가를 대중 앞에 공개하여 박수갈채를 받았다.

“우리 종단에서는 이성에 대해 갈등을 가진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으며, 반드시 부부가 함께 정진해야 합니다. 술을 마시고 바람을 피우는 사람은 정사가 될 수 없는데, 혹 어쩌다가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대중 참회를 통해 용서를 받아야만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막행막식으로 무애행을 하여 역행보살의 행을 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는 기성종교의 종단보다는 도덕적 생활과 수도정진의 수행이 타의 모범이 됨으로써 이 종단이 기성종단에 비해 빨리 성장할 것을 예측하였다.

나는 7~8년 동안 진각대학에서 <법화경>과 <금강경>을 강의하면서 학인들의 철저한 공부정신과 심인불교를 복지중심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재가불교 종단으로서 뿐 아니라 시대불교에 걸맞는 불교라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세상이 온통 술, 담배, 외도로 인해 이미 혼탁해져 있고 개인의 건강과 가정의 파탄이 눈앞에 전개되어 있는데, 그 가정을 바로 잡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면 이것은 부처님의 출가 정신과 예수의 희생정신에 걸맞는 종교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비록 재가불교운동에 국한하고 있다고 하지만 출가자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미래의 성불불교임을 느끼게 하고 있었다.

다른 밀교종단처럼 <대일경> <금강정경> <대승장엄보왕경> <대승이취육바라밀경>을 따로 읽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 정사들의 신심과 원력을 보면 진실로 시대에 걸 맞는 종교임을 인식케 한다. 회당 정사 이후 배신, 각해 등 7 · 8대 종인이 바뀌고 회정, 원명, 수성, 혜정 등 수 많은 인재가 갈려도 그 속에는 아직 부정부패가 없고, 상하 질서가 잘 유지되어 회당 정사의 유지가 부처님의 유언처럼 잘 실천되고 있다. 특히 현대교육사업과 보육복지사업은 모든 종단들이 본받아야 할 포교사업 가운데 하나이다.



이제 사찰도 화재보험 가입할 수 있다!

현존 대부분의 사찰은 전통적인 목조건물로 축조되어 있고, 초 · 향 · 장작등에 노출되어 있어 항상 화재 위험이 상존합니다. 또 대부분 산지에 위치하는 관계로 화재 발생 시 초기진화가 어려워 막대한 재산손실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불의의 사고에 대한 대비책은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비단 화재 뿐만 아니라 사찰을 운영하며 교화표교활동을 벌이다 보면 온갖 사고와 자연재해, 신도들의 인적 물적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찰도 합리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 사찰 종합 보험 상품 안내

담보내용

구분	화 재	화 재	상 해
기본담보	화재손해	시설소유 배상책임	24시간 상해
선택담보	구내폭발손해 풍수재해손해 지진손해 악의적인 파괴행위 손해 협정보험가액	물질손해확장담보 구내치료비 주차장배상책임 생산물(음식물) 배상책임	교통상해 간병비 질병사망 수술비용

유의사항 : 보험회사의 현장위험 실사(실측)후 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시 필요자료 : ◆각 건축물의 건축(증개축)년도 및 면적
◆각 보험목적물의 종류 및 수용장소
◆각 보험목적물의 구입년도 및 단가

사찰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203호
011-648-1203 | 010-7344-1881

유기농 보이차(ORGANIC PUER TEA)
유기농 보이차의 보급화 선언!
현불샵(hyunbulshop.com) 입점 기념 15%할인 판매
250,000원 ⇨ 15% DC 특별 할인가 212,500원

이주 특별한 선물 유기농 보이차 선물세트 (유기농보이차 숙차 357g + 대나무보관통 + 보이차 다기세트 7종)

1등급 100% 유기농 보이차만을 엄선하여 준비했으며 보이차 전용 다기세트는 드리는 분의 정성과 선물의 격을 한층 더 높혀 드립니다.

• 제 6기 중국보이차 “보이차왕” 수여
• 미국 FDA, 유기농인증 획득한 USDA
• 일본 유기농인증기관인 JAS

중국 보이차 기업 중 최대규모인 670만평 이상의 보이차 생산단지와
100%유기농법으로 생산하여 그 품질과 맛이 가장 뛰어난 (주)고진 유기농 보이차 !
후 발효차인 보이차의 깊은 맛과 오묘한향의 끝맛을 그대로 발효시켜
황제의 기운을 느끼게 하는 특별한 유기농 보이차입니다.

중국에서도 유기농회사로서 처음으로 생산 공정과 가공공정 발효공정에 특허를 받아
용생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깨끗하게 발효시켜서 만든 유기농보이차입니다.
중국황제가 마시던 보이차는 오래 묵을수록 귀한 고가의 차며 ,미생물에 의한 발효를 거치는 후 발효차이며 오래 묵히면 묵힐수록 고가품의 차가 됩니다. 방습통풍이 잘되는 적절한 온도하에서 보이차는 독특한 맛과 향, 약효를 가지게 됩니다.

유기농 보이차는 상류층이 주로 애용하는 고가의 차이며 국가주석 후진타오도 보이차를 즐겨 마시는 보이차 애호가입니다.
중국의 주석 후진타오가 용생유기농 보이차를 접하고 나서 유난히 맛과 품질이 뛰어나다는 점을 알게 된 후, 현재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용생 보이차만을 애용하고 있고 최고의 품질이라는 점을 인정하여 국제적으로 홍보를 대신해 주고 있으며 유명인사 방문 시 용생의 보이차를 선물로 주고 있습니다.



상세설명/문의 : (주)고진 031)437-1570,1580
• 주문전화 : 02)2004-8215~6

■ 유기농 보이차 숙차
· 제 품 명 : 유기농보이차 숙차 · 식품유형 : 침출차 · 내용량 : 357g
· 제조회사 : Yunnan Longsheng Green Industries (group) LTD
· 원재료명 : 보이차 100% · 원산지 : 중국 운남성 · 수입판매 : (주)고진 · 포장재질 : 종이제
· 제조일자 : 2007년 03월 01일 (제조일자는 2007년이지만 2006년에 수확한 찻잎을 사용해 제조하였습니다)
·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0년 (보이차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가치가 높아지기때문에 적당한 장소에서 보관만 잘 하시면 훌륭한 보이차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불교온라인쇼핑몰 현불샵(www.hyunbulshop.com)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김옥암 교수가 쓰는
자족의 경제학 <5>

올바른 자애심으로 경제활동 중심 조화시켜야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경제행위 해선 안돼"

영국에서 태어난 자본주의와 산업혁명은 세계에 널리 퍼져 근대문명을 창출했다. 근대문명을 설명하는 데는 당연히 자본주의와 산업혁명 없이는 불가능한 결과로 되고 있는 것이다.

근대경제학 이전 고전파 경제학의 시조인 아담 스미스(A. Smith)가 저술한 <국부론(國富論 – 부(富)의 성질 및 원인에 관한 연구>이 출간된 이후 '국민의 부'의 실현을 통해 물질문명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스미스의 이론적 체계를 엮은 자유시장주의 경제학에 의지해야만 한다고 하는 풍조가 생겨난 것은 당연한 일로 여겨졌다.

경제학의 원전(原典)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의하면, "각 개인이 자애심(self-intrest)에 입각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며 자유 시장 경쟁을 하면 '신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의해 사회적 효율이 극대화되어 국부(國富)를 최대로 증진시킨다"고 한다. 이 명제를 단순히 이해한다면, 경제사회의 부(富)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개인의 이기심만을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쉽지만, 결코 그런 것은 아니다. 스미스는 <국부론>을 출판하기 전에, <도덕감정론>이란 책을 써서 인간 마음(心)의 본질에 관해서 상세히 논했다. 그는 거기서 '자애심'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해서 경제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즉 <국부론>에는, '자신의 이익(자기중심의 이해관계)만을 생각해선 안된다'고 하는 전제가 있었던 것이다. 그런 면에서 앞의 말이 오는 것이다. 아마 스미스는 <국부론>을 읽는 독자는 <도덕감정론>을 이미 읽고 난 사람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아담 스미스의 시대는 그리스도교의 신(神)이 한 발짝 뒤에 밀려나 자연과 이성에 대한 신앙이 상대적으로 강해진 시대였다.

당시 사회는 자연과 조화된 것이고, 그 사회에서 인간이 이성을 작동시켜 살아간다면, 자연법 가운데 신의 뜻대로 사는 것처럼 만사 순조롭게 해결되어 갈 것처럼 생각되고 있었다.

신이 후퇴함으로써 인간의 외부에 영구불변의 도덕률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중세시대의 생각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 스미스는, 인간이 행동할 때에는 자애심이 작동하는 원래의 자신 이외에 제3자로서 관찰(재판)하는 또 다른 자신을 발견했다.

모두가 똑같은 한 사람의 인간의 가슴안에 존재하는 것이지만, 전자를 '안에 있는 나', 후자를 '밖에 있는 나'로 이름 붙였다. 인간은 이 '밖에 있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사회적으로 성실한 행동이 취해지고 '밖에 있는 나'의 소리에 동감(sympathy)이 쌓여서 도덕률이 형성된다고 스미스는 설명하고 있다.

이성(理性)이 존중되어 이성이 유행한 시대에 스미스가 도덕의 근거를 감정에서 구한 점은 실로 의미깊게 생각된다.

스미스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자신에게는 타인의 행복이 필요'하다고 하는 마음 즉, '동류감성'이며,



그림 · 김필헌

그것이 타인(상대)의 몸이 되어 기쁨이나 슬픔을 느낀다고 하는 동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갈파했다.

이 경우, 동감은 결코 동정(compassion)이라고 하는 이타적인 감정도, 이기적인 감정도 아니다. 앞에 언급한 '안에 있는 나'와 '밖에 있는 나'와의 가교역할을 하는 감정인 것이다. 결국 '안에 있는 나'로부터 나오는 감정과 '밖에 있는 나'의 감정이 일치했을 때, 그 감정은 적정(propriety)수준이 되어 중용(불교에서는 中道)을 얻는다는 것이다. 개인감정이 된 성격을 초월하여 사회도덕원리가 된다고 스미스는 설파하고 있다.

스미스는 이 사회도덕이 당시의 중 · 하위 계층의 생활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여기서 필자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살아계실 당시의 에피소드로서 전해지고 있는 이야기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지금도 석가세존의 가르침을 자기부정(자애심 말살)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지만, 당시에도 그렇게 이해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석가모니 부처님께 물었다.

"부처님이시여, 당신은 자신이 사랑스럽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부처님이 대답했다.

"아니요, 나도 자신이 사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스럽다고 하는 것만 알고 있는 데에 비해 나는 자신의 몸이 사랑스러움과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이 아담 스미스가 설명한 사회도덕원리와 일맥상통하고 있는 부분이다.

"사유(私有)는 모래를 황금으로 변화시킨다"고 하는 속담이 있다. 사유욕과 이기심(=자애심)을 부정하고서 성공한 경제정책은 그리 많지 않다. 사유욕과 이기심 그리고 법질서와 개인책임과를 어떻게 올바르게 경제활동의 중심으로 조화시킬 것인가? 그것이 현대 국가경제정책의 핵심 과제이다.

인간세계에 뿌리깊은 이기심을 어떻게 하여 경제활동 가운데 타당한 위치에 두게 할 것인가? 거기에 스미스의 고심이 있었다. 이렇게 본다면, 불교 경제학이 제창하고자 하는 '자리타리(自利他利)의 경제학'도, 실은 이미 스미스의 심층 저변에 깊이 흐르고 있었던 것이다.

■ 안동대 경제학과 교수

허달의 불교와 코칭

⑤ 우선순위의 설정

주어진 시간 소중한 결정들 부터 실행하라

랜디 포시 교수의 <마지막 강의>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

시한 부 인생을 선고 받았을 때, 그에게는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까? 남은 시간들을 즐겁고 의미 있는 일들로 채우기로 주도적인 선택을 했을 때, 아마도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머리 속에 떠올랐을 것이다. 특히 마지막 강의를 준비하는 시간은 매우 뜻깊고, 높은 우선순위의 시간이었을 것이다. 세 아이가 자라서 이 강의의 기록을 보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가 준비했을 한 구절 한 구절은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인 눈물을 수반한 것은 아니었을지. 아이들은 자신의 일부라고 늘 생각해 왔지만, 시한부 삶의 선고는 산 자와 죽은 자 사이에 존재하게 될 냉엄한 간극을 뚜렷하게 만든다. 내가 사라지면 무엇이 남는가? 관계가 남을 뿐이다. 그리고 보니 소중한 것은 모두 관계 속에 존재했었다.

콜 센터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에게 물어보니, 8시간의 근무 시간이 모두 위기관리의 연속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고객은 이미 대화가 시작되기 이전에 감정이 폭발 단계까지 올라 있어 아주 작은 불친절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긴장의 연속을 완화하기 위해서 직원들은 스스로의 마음을 관리하는 기법을 위시해 고객의 마음을 가라앉히게 하는 여러 가지 기법을 교육받고 실행한다.

위기관리 하면 머리에 떠오르는 119 대원의 위기관리 시간은 근무 시간의 몇 %나 될까? 우리나라의 경우 대체로 5% 수준이라는 것이 통설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95% 의 근무 시간은 무엇에 사용하는가? 예방, 점검, 계획, 훈련, 기술개발, 출장교육 등에 투입한다는 것인데, 이 시간을 어떻게 잘 쓰느냐에 따라 위기관리에 투입되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일과 나의 관계를 잘 정리해 둬야 높은 효과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우리의 삶을 지속되는 위기로 둘러싸이게 놓아둘 것인가, 창조적 긴장과 재충전의 리드미컬한 반복이 있는 나선형 상승으로 발전시켜 갈 것인가는 전적으로 자신에게 달려 있다.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우선순위 설정의 습관을 실행하고, 체면치레, 인기관리 등 솔깃한 여러 일에 대해 단연코 'No!' 하는 주도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소중한 것을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그것부터 실행하는 삶의 패턴을 만들 수 있을까?

워크숍을 진행할 때는 참여자들에게 이를 직접 물어보게 된다. 당신에게 소중한 것을 다섯 가지만 써본다면? 또는 여분의 시간이 하루 세 시간씩 주어진다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그것인데, 이 글을 읽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라. 틀림없이, 가족, 친구 등 소중한 사람과의 시간 갖기, 건강관리, 여행, 명상이나 나만의 시간 갖기, 부모님 찾아 뵙기, 봉사활동 하기 등의 일들이 소중한 일 목록의 주류를 이룬다. 돈을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는데, 더 들어보면 돈 자체보다는 위에 열거한 소중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여유를 확보하여야겠다는 생각이 대부분이다.

소중한 것들의 목록에 올라간 일들은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는가? 이들은 관계를 새롭게 하고 강화하는 일에 관련되어 있다. 일과 나와의 관계, 내 안에 있는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남의 관계를 끊임없이 쇄신하는 일들이다.

이것들이 소중한 일이라면, 주어진 시간에 이것들부터 하라는 것이 코치가 하는 제안이다.

어느 것이 소중한 일인지 그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본인의 가치관이다. 때때로 가치관이 변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그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 원칙과 충분히 접근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을 지적해 주는 일도 코치의 몫이다.

서둘러야 할 때는 서두르고, 침착해야 할 때는 침착한, 현자는 참으로 행복하다.

그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 가를 아는 자이기 때문이다. <장로게경>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한다. 어떤 것이 깨달음에 다가가는 소중한 일인가? 늘 선택에 앞서 우선순위를 설정해 볼 일이다.

■ 한국코칭센터 고문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천/년/초를 아십니까?



천년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노지에서 자연상태 그대로 자라는 다년초 식물로 혹한의 영하 20℃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토종 선인장입니다.
특히, 어떠한 병충해에도 죽지 않고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자연식품이며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식물"이라 불릴만큼 어떤 식물과도 비교할수 없는 높은 성분을 함유한 소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직접 몸으로 느껴 보십시오.

한겨울 영하 20℃의 혹한 속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의 천년초!
천년초의 놀라운 생명에너지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천년사랑에 사용하는 천년초는 유기농 천년초 100%를 사용해 만듭니다.

천년사랑
무료샘플신청 02)780-3989
(천년초 책자와 농축액 2일분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양지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 승무북, 모듬북 · 장고 · 징 · 꽹과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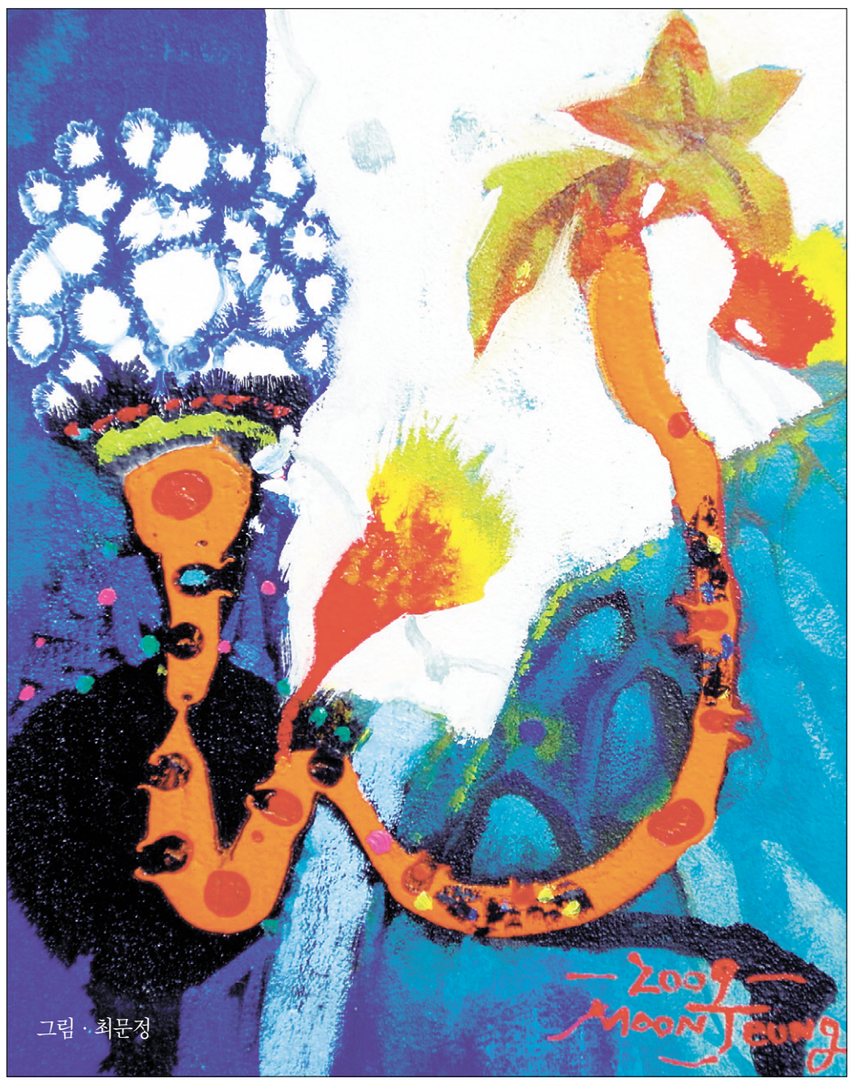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갑니다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부모님에게 불연의 복덕을 짓게 해주고 싶습니다”

정찬주 구도 소설 – 혜암 스님 이야기
가야산 정진불 〈27〉
제7장 구름에 달 가듯이2


그림 · 최문정

혜암은 김 행자를 데리고 장경각 뒤편의 가야산으로 올라갔다. 멀리는 올라가지 못했다. 인민군들이 어느 산중에 숨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수원이 고향인 김 행자는 기차를 타고 피난을 내려오다 부모를 잃고 직지사를 거쳐 해인사까지 흘러들어온 소년이었다. 미군 전투기가 피난열차를 오폭하는 바람에 다른 피난민들과 함께 부모가 죽었던 것이다.

“옆 자리에 계시던 스님이 이끄는 대로 뛰다가 돌아보니 열차가 불에 타고 있었어요.”

“부모님은.”

“잠결에 겪은 날벼락이라 뭐가 뭔지 몰랐습니다.”

김 행자는 얘기하면서 몸을 떨었다. 한밤중에 미군 전투기 조종사가 피난민들이 탄 열차를 인민군 군용열차인 줄 알고 폭격했다는 것이었다. 말 그대로 날벼락이었다. 졸지에 부모를 모두 잃어버렸기 때문이었다. 다행히 스님의 손을 잡고 뛰었던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는 있었지만 하루아침에 고아가 돼버렸던 것이다.

“그 스님은 어디로 가셨는가.”

“저를 직지사까지 데려다 주고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 스님도 피난 중이었나 보군.”

“직지사에서 그 스님을 받아주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전쟁 중이라 절 살림이 어려워서 그랬을 거다.”

“맞아요. 저도 가라고 해서 해인사로 왔거든요.”

혜암은 계곡을 더 오르지 않고 반석에 앉았다. 봄가뭄이 심해 계곡물은 말라 있었다. 김 행자가 물었다.

“스님은 왜 피난 가지 않습니까.”

“나도 떠나야지.”

“어디로 가실 겁니까.”

“정해 놓은 절은 없다. 발길 닿는 데가 절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때 뻐꾹새 소리가 들려왔다. 세상이 소용돌이치고 있는데, 그것을 아는 듯 모르는 듯 먼 숲속에서 뻐꾹뻐꾹 울고 있었다. 그러다가도 미군 전투기가 굉음을 내고 나타나면 뚝 그치곤 했다. 김 행자도 전투기 나는 소리에 몸을 움찔했다.

“스님, 저는 여기서 또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 빨리 은사스님을 정해라. 사미승이라도 돼야 절밥 눈치 보지 않고 먹을 수 있으니까.”

“스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상좌를 둘 생각이 없다. 내 공부하기도 빠듯할 뿐더러 상좌 둘 법랍도 아니다.”

혜암이 거절하자, 김 행자는 풀이 죽었다. 스님들이 대부분 해인사를 떠나버린 탓에 은사를 찾기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방법이 하나 있다. 내 말대로 하겠느냐. 아무리 전쟁 중이라고 하지만 너는 운이 좋은 놈이다.”

김 행자가 어리둥절해하더니 눈을 반짝였다.

“부모님을 잃고 고아가 됐는데도 운이 좋다니요.”

“전쟁 때문에 불법을 만났으니 복이 많은 놈이라는 것이다.”

혜암은 반석에서 일어났다. 김 행자와 한담이나 나눌 처지가 아니었다. 이제 자신도 해인사와 작별해야 했다. 선방 문이 닫혔을 뿐만 아니라 해인사를 떠나라는 인곡의 당부도 모른 체하고만 있을 수 없었다. 혜암은 경내로 돌아오는 길에 김 행자에게 말했다.

“부처님께 기도해라. 부처님께 기도하면 네 소원을 다 이룰 수 있다. 밤낮으로 기도하다 보면 은사스님도 곧 네 앞에 나타날 것이다.”

“부처님이 은사스님을 보내주신다구요.”

“기도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이다. 기도하면서 의심하는 것은 독약을 마시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혜암은 김 행자를 법당으로 들어가게 한 후, 인곡이 머물고 있는 극락전으로 갔다. 인곡은 혜암이 삼배를 올리자마자 칭찬했다.

“잘 생각했다. 범어사로 간다고 했던가.”

“예.”

“어서 갸봐라. 동산스님이 네게 보살계를 준 인연도 있고 하니 기꺼이 선방 입실을 허락하실 것이다.”

“스님, 범어사로 갈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어디로 간단 말이냐.”

“속가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인곡이 고개를 뒤로 젖히며 놀랐다. 자애로운 미소를 거두며 방바닥에 놓인 염주를 들었다. 실망한 마음을 다스리려는 듯 염주 알을 굴렸다. 인곡은 갑자기 맥이 풀린 듯 나지막하게 말했다.

“너마저 속퇴하겠다는 말이냐.”

“아닙니다.”

“속퇴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냐.”

“속가로 돌아가더라도 제 마음은 해인사에 있을 때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인곡의 언성이 평소와 다르게 커졌다.

“지금 네가 나를 우롱하는 것이냐.”

“스님,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오해가 풀리실 것입니다. 잠시라도 스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려 송구합니다.”

혜암이 한 번 고집을 피우면 꺾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곡은 몹시 난감해 했다. 그렇다고 속가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제자를 두고 방관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인곡이 다시 말했다.

“내가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냐.”

“전쟁 중이라 누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김 행자도 해인사에 오기 전 부모를 모두 잃었다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속가 부모님과 언제 헤어질지 모릅니다. 언제 재앙을 만날지 모르는 것이 전쟁입니다. 속가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속가 부모를 피난이라도 시키겠다는 것이냐.”

“아닙니다. 죽고 사는 일은 사람의 업이겠지만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속가 부모님이 불법을 깊이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불연(佛緣)의 복덕을 짓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제야 인곡이 혜암의 두 손을 잡았다.

“네 말이 옳다. 어서 고향으로 가거라. 너야말로 속가 부모에게 효도를 할 줄 아는 진승(眞僧)이다.”

“범어사는 고향에 들른 후 가겠습니다.”

인곡은 혜암에게 고향으로 가는 것을 허락했다. 언제 전쟁의 재앙을 당할지 모르는 속가 부모에게 불연을 맺어주겠다는 혜암의 속마음을 알고는 크게 흐뭇해했다. 이윽고 인곡이 노잣돈으로 나들나들 닳은 지폐 몇 장을 꺼냈다. 오래 전에 신도가 놓고 간 돈이었는데 혜암에게 다 주어버렸다.

혜암은 걸망을 매고 해인사 일주문을 나섰다. 마침 합천에서 작전 중인 미군에게 사정하여 군용 트럭을 타고 진양으로 갔다. 미군 트럭은 전방에서 후방으로 부상병을 실어 나르고 있었다. 안전한 미군 트럭을 타게 된 것은 행운이었다.

혜암은 금오선사가 조실로 있는 진양 응석사에 도착한 뒤, 낮에만 걸어서 6일 만에 장성에 도착했다. 속가 가족들은 피난을 가지 않고 고향집을 지키고 있었다. 혜암이 사립문 안으로 들어섰을 때 집안은 텅 비어 있었다. 모내기철이었으므로 식구들 모두 논밭으로 나가 일하고 있었던 것이다.

혜암은 저녁 무렵에 속가 부모를 만났다. 출가한 승려였으므로 부모에게 엎드려 인사하지 않고 합장한 채 안부를 물었다.

“그동안 별고 없으셨습니까.”

“농사를 짓다 말고 나같은 무지렁이가 어디로 피난 가겠느냐. 하루하루 목숨을 하늘에 맡기고 산다. 너도 피난 온 것이냐.”

“피난 온 것이 아닙니다. 잠시 머물다 가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부터는 아버님도 저에게 합장해야 합니다. 스님에게는 존댓말을 해야 합니다. 저는 자식이 아니라 스님입니다. 그래야 어머님 아버님 복덕을 많이 짓습니다.”

처녀로 성장한 속가 여동생이 뒤늦게 돌아와 반갑게 말했다.

“오빠, 방으로 들어가요. 마을 사람들이 오빠 왔다고 밤손님에게 소문낼 거예요.”

여동생은 인민군과 공비를 밤손님으로 불렀다. 장성도 밤이 되면 인민군과 공비들의 세상으로 돌변하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혜암은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거절했다.

“방에는 비린내가 묻어 있을 것이니 밖에서 자겠다. 마당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될 것이니 집 뒤 대나무 숲속이 어떻겠느냐.”

“잘 됐어요. 전쟁이 나자 작은오빠가 숨으려고 땅굴을 하나 파놓았거든요.”

“어머니, 음식은 비린내가 없는 것으로 하루 한 번만 갖다 주셔야 합니다. 잠은 자지 않으니 이부자리는 필요 없습니다.”

속가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였다.

“스님, 방을 놔두고 땅굴에서 잔다니요. 하지만 출가할 때 원대로 도인이 돼서 돌아오신 것 같습니다.”

“도인이라뇨. 아직 멀었습니다.”

혜암은 바로 대나무 숲속에 판 땅굴로 갔다. 다음날부터 속가 가족들은 마음사람들 몰래 땅굴로 가 혜암의 법문을 들었다. 혜암은 속가 가족들에게 부처님의 일대기인 <팔상록>부터 얘기했다.

“부처님은 정반왕과 마야부인의 아들로 태어나 태자의 지위를 버리고 생로병사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출가했습니다. 그러다 전정각산에서 6년 고행을 한 뒤, 보리수 아래서 정각을 이루어 생사해탈한 분입니다. 속세의 삶은 오욕락을 추구하지만 출가는 생사해탈의 길입니다.”

속가 아버지가 먼저 혜암의 법문에 반응했다.

“나도 출가할 수 있겠는가.”

“스님들 중에는 나이 드시어 출가한 분이 많습니다.”

“더 생각해 보고 결정하겠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전쟁은 곧 끝날 터이니 그때 해인사로 오십시오. 부처님 가족도 모두 출가하여 아라한이 됐습니다. 우리 가족도 불법을 만나 생사해탈해야 합니다.”

혜암은 대나무 숲속 땅굴에서 하루 종일 정진했다. 그러면서 가족을 상대로 부모님, 여동생, 남동생, 조카에게 차례차례 법문을 했다. 속가 가족은 혜암의 법문에 모두 크게 공감을 했다. 뿐만 아니라 하루 한 끼의 공양과 땅굴 속에서 장좌불와 하는 혜암을 도인으로 여기고 받들었다.

인민군이 땅굴을 발견하고 혜암을 불러내 위협을 가했으나 멋쩍게 돌아가기도 했다. 인민군이 보아도 수행만 올곧게 하는 진짜 승려 같았던 것이다.

“당신 뭐하는 사람이오.”

“난 중이오.”

“중이 뭐하는 사람이냔 말이오.”

“견성 성불하여 중생을 구제하는 사람이오.”

“중생을 구제하다니 인민을 해방시킨다는 말과 같구먼.”

“그렇소.”

“대사 선생님, 꼭 성불하여 인민을 잘살게 해주시오.”

인민군은 겨눴던 총구를 내리고서는 돌아가 버렸다. 인민군이 땅굴에 들렀다 간 뒤, 혜암은 자신의 의도대로 속가 집에 불연을 맺어준 것 같아 걸망을 맸다. 가족들이 잠든 새벽에 범어사로 향해 나섰다. 덕산마을을 나서면서 혜암은 휘파람새 소리를 들었다. 속가 시절에 들었던 그 휘파람새 소리였다. 사람들은 좌우로 갈라져 싸우는데도 휘파람새 소리는 예전 그대로 정다웠다. 〈계속〉

> 부처님 가족도 모두 출가하여 아라한이 됐습니다 우리 가족도 불법을 만나 생사해탈해야 합니다

누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전쟁 중 피난보다 급한 건 속가의 ‘귀의’ 대나무 숲속 땅굴에서 정진하며 가족 상대로 차례 차례 법문 전해

공부하다 죽어라

조계종 제10대 종정 혜암 대종사의 선기가 살아 있는 수행 도량 원당암에서 ‘성불’의 길을 닦아 보십시오. 재가자 선수행의 중심도량 원당암은 영가단에 만년위패를 모심으로써 생사가 둘 아닌 도리 속에서 열반적정을 이루는 수승한 원력의 도량입니다.

정진안내

- 2009년 하안거 결제 5월 9일(음 4.15) ~ 8월 5일(음 6.15)
  ※ 윤5월 관계로 일정이 앞당겨졌습니다.
- 2009년 하안거 7일 용맹정진 7월 22일(음 6.1) 03시 ~ 29일(음 6.8) 03시
- 철야 용맹정진 매월 1, 3주 토요일 오후 7시 ~ 새벽 3시
- 동 안 거 결 제 음력 10월 15일 ~ 1월 15일
- 산 철 결 제 음력 2월 1일 ~ 3월 29일 / 음력 8월 1일 ~ 9월 30일
- 만년위패봉안대불사 합동천도재
  매년 설날, 중양절(음력 9월 9일), 백중, 추석, 매월 음력 15일(아미타재일)

해인사 원당암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번지 www.wondangam.org
전화 055)932-7308 / 팩스 055)931-7515



수호천사
대한민국 대표 삼베수의
www.suho-1004.co.kr

MBC BTN 불교 TV YTN 광고방영중
ISO 9001:2000 국제품질인증 획득 〈등록번호 : A2570〉
보성삼베섬유(주)는 27년의 전통을 바탕으로 국내 최고의 제품만을 생산합니다.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 품질보증 지정업체〉

올해 기축년(윤년)에는 100% 삼베 수의를 미리 준비하여 부모님의 무병장수를 기원하십시요!
본사에 수의를 보관해 놓은 회원님께서는 연락을 주시면 보관된 수의를 보내드립니다.

기축년

68만원에 국내 직조 수의를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윤년맞이 특별할인 판매

올해 윤년을 맞이해서 보성삼베섬유(주)는 대폭 할인된 금액으로 수의를 특별할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윤년에 수의를 장만해두시면 무병장수하고 가내두루 평안하며 자손이 번창한다고 합니다.


[명품 특1호]

2009년 보성삼베섬유(주) 수의품목 및 판매 가격

	정상가격	할인판매가격	할인율	원 사	원 단	제 조
수호천사 2호	~~97만원~~	→ 68만원	30%	중국	한국	한국
수호천사 5호	~~142만원~~	→ 99만원	30%	중국	한국	한국
명 품 특	~~218만원~~	→ 148만원	32%	중국	중국	한국
명품 특1호	~~398만원~~	→ 250만원	37%	중국	중국	한국
수호천사특삼베	~~398만원~~	→ 278만원	30%	중국	한국	한국

✻ 수호천사 삼베수의를 구입하시면 시중에서 따로 구입해야 하는 매장베(멧베)를 추가로 드립니다.

수의 구매고객께 드리는 확정금액 장례서비스 (고객선택) (사후지불 확정금액)

150만원	수시복, 수시포, 베개, 혼백, 수시용품 일체, 향, 양초, 위패, 칠성판, 사진리본, 받침대, 양복(4세트),여상복(5벌), 도우미(2명), 꽃바구니(2개)	기본형
240만원	수시, 염습, 입관용품, 도우미(4명), 제단장식(1단), 꽃바구니(2개), 양복(4벌), 여상복(7벌), 유골함, 리무진 전국무료	고급형
350만원	수시, 염습, 입관용품, 도우미(6명), 제단장식(3단), 꽃바구니(2개), 양복(6벌), 여상복(10벌), 유골함, 리무진, 버스 전국무료	최고급형

✻ 보성삼베섬유(주) 수의를 구매하시는 고객님께 수호천사 회원자동가입이 되며 확정된 금액으로 고품격 장례서비스를 치러드립니다.
✻ 장례서비스는 기존의 선불제 상조가 아닌 10년 후에도 위 금액으로 장례비 후불제 서비스 입니다.

수호천사는 삼베 재배에서 제조,
장례서비스까지 새로운 개념의
장례토털서비스의 이름 입니다.
27년간 장인정신으로 이어온
수호천사로 여러분의 효(孝)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보성삼베섬유(주)
전속모델 방송인 강 부 자

1 투명합니다. 그리고 정직합니다!
'원단쯤이야' 하면서 국내산으로 속여 제철에 한몫 크게 챙기려는 얄팍한 상술을 부리지 않고 정확하게 공개하고 정직하게 가격을 책정하여 판매하기 때문입니다.
(Q마크 품질보증지정업체)

2 품질이 우수합니다!
전통 기법의 가진 수의를 분리형으로 제작을 하였으며 원단을 아끼지 않아 수의 옷에 여유와 기풍이 느껴 집니다. 100% 면실로 정성스럽게 바느질하고, 일체의 화학 재료를 사용하지 않아 수의 고유의 기능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ISO9001국제품질인증)

3 보상 교환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구입 후 천재지변은 물론 본인의 부주의에 의한 제품 손상이라도 50%까지 동일한 새 제품으로 교환하여 드립니다. (고객부담 50%)
보상 교환 서비스는 보성삼베섬유가 공장직영이기 때문에 가능 합니다.

4 한번 구입으로 고품격 장례서비스까지!
보성삼베섬유(주)의 제품을 구입하신 고객님은 철저한 회원관리 시스템으로 수호천사 장례서비스를 20년이 지나도 확정된 금액의 고품격 장례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명품 특]

구입상담문의 1544-6609
전국 판매점 모집 문의전화 02-477-8060

보성삼베섬유는 선각종과 함께 합니다

보성삼베섬유(주)
BOSUNGSAMBE.Co., Ltd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66-1
TEL: 02-477-8060 FAX: 02-477-8061
장례서비스문의 1544-6607

온달 · 평강의 사랑과 운명 그리고 죽음

'광장' 의 소설가 최인훈의 첫 희곡 '어디서 무엇이…' 명동예술극장 개관작으로 무대 올라

"인간의 오늘은 어제의 부활이며 윤회이다. 오늘의 자신이 어제의 자신과 동일시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기억이다."(최인훈의 <화두> 중에서)

올해로 등단 50주년을 맞은 작가 최인훈은 많은 이들에게 소설 <광장>으로 기억되는 한국의 대표적 소설가이다. 하지만 남북분단이라는 한국 특유의 상황에서 인간과 이데올로기의 문제에 천착해 온 그가 5 편의 희곡을 쓴 희곡작가라는 것은 널리 알려지지 않은 사실. 작가 스스로 "가장 자유로운 예술혼"으로 작업했노라 표현하는 최인훈의 희곡들은 유려한 문장과 일상적이지 않은 구성, 한국적 신화와 설화의 독창적인 접목 등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최인훈의 첫 희곡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랴>는 그 스스로 가장 애정이 가는 작품이라 표현하는 작품이기도 하다.

6월 5일 개관축하공연 '맹진사댁 경사'로 연극 제작전문극장으로서의 출발을 알린 명동예술극장이 7월 10~26일 최인훈 작, 한태숙 연출의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랴'로 2009년 명동예술극장 개관작품시리즈를 시작한다.

삼국시대 온달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연극은 일반적인 서사구조를 뛰어넘는 작가 최인훈의 대본과 항상 도전적인 연출로 주목받는 연출가 한태숙의 만남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공연. 한태숙은 1970년 초연돼 전설이 된 이 공연을 하드록 리듬의 음악과 현대적 터치의 의상, 섬세함과 파격이 함께하는 무대로 그 만의 색깔을 입혔다.

특히 이 공연은 박정자, 정동환, 서주희, 김수현이라는 배우들의 면면만으로도 무게감을 주는 작품이다. 1970년 초연과 1973년, 1975년 재공연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도 아들을 잃은 노모의 슬픔을 담담하면서도 애절하게 그린 '온달모' 역의 박정자가 나이에 걸맞게 보다 깊어진 명연기를 펼친다. 2009년 이해랑 연극상을 수상하며 최고의 연기를 선보이고 있는 정동환은 '대사'를 통해 열정적인 연기를 펼칠 예정이다. 고정관념 속 공주의 틀을 벗어나 특유의 개성이 담긴 '평강'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서주희와 2008년 대한민국 연극대상 신인상 등을 수상한 '온달' 김수현의 만남 역시 기대감을 갖게 한다.


사진 오른쪽부터 '온달모' 역의 박정자, '평강' 역의 서주희, '대사' 역의 정동환, '온달' 역의 김수현.

연극의 대략적인 줄거리는 이러하다.

산속, 온달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 어둠 속에 비치는 불빛을 찾아간다. 산 속의 외딴 집에서 만난 여자와 하루밤을 지낸다. 깨어보니 꿈이다. 이튿날 바보 온달의 집에 평강공주가 나타난다. 정쟁에 떠밀려 비구니가 되기 위해 왕궁을 빠져나오는 길이다. 그녀를 인도하는 대사에게서 지나다들른 이 집이 온달의 집임을 알고 그녀는 놀란다. 산에서 돌아온 온달을 본 순간 그녀는 온달과 결혼하기로 작정한다. 세월이 흘렀다. 온달은 고구려의 유명한 장군이 돼 있다. 물론 궁중에 다시 불려들어온 공주의 남편으로서. 남편 온달이 싸움터로 나간지 한 달, 공주는 어쩐지 자꾸 불안하다. 온달의 망령이 나타난다. 죽은 자의 입에서 그녀는 진실을 듣는다. 오직 한갈래 흐름뿐이었던 온달의 마음을. 그녀는 남편의 시체가 있는 싸움터로 달려간다. 권력투쟁은 다시 불붙는다. 공주의 재차의 탈출, 사랑하는 이의 어머니를 모시고 여생을 지내려는 그녀의 계획을 운명은 허락치 않는다. 사랑은 어제 같은데 시간은 이자를 포기하지 않는다. 자기가 만들지 않은 운명과 싸운 총명한 여자는 사랑과 옛마당에서 죽는다.

김현 문학평론가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랴>에 표현된 불교적 이념의 분석은 초기에 최인훈씨가 깊은 관심을 내보인 프로이드적 세계, <광장> <회색인>에서 보여준 한국정신사의 기둥으로서의 불교세계와 깊이 연결돼 있다"며 "온달을 잃은 공주와 인도로 가는 배를 잃은 왕자를 통해 불교적 인과관계를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공연시간은 화 · 목 ·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수 · 일요일 오후 3시, 토요일 오후 3시 및 7시 30분이다(월요일은 쉼). 문의: 1644-2003

김성우 기자

'사륙변려체' 최초 등장

"미륵사지 사리봉안기서 나왔다" 주장

'경서체(經書體: 일반적으로 시경 · 서경 등 유교경전에서 사용한 문체)'로 알려졌던 익산 미륵사지석탑(국보 제11호)에서 출토된 금제사리봉안기에 백제 한문학 사상 최초의 '사륙변려체'가 등장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박중환 연구관은 6월 27일 공주대 백제문화연구소(소장 정재윤)가 '백제불교와 왕권'을 주제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 연구관은 주제발표 '미륵사 사리기와 백제 변려문의 발전'에서 "익산미륵사지 사리봉안기는 개로왕대 조위상표문(朝魏上表文 · 472)에서 사택지적비(砂宅智積碑 · 654)로 발전해 가던 백제 변려문 발달 과정의 중간 단계의 문장 형태를 보인다"고 말했다.

사리봉안기에는 "왕후 당신의 마음은 수경 같아서 법계를 항상 밝게 비추시고 몸은 금강과 같아서 허공과 나란히 불멸하시어"로 번역되는 "왕후즉신(王后卽身) 심동수경(心同水鏡) 조법계이항명(照法界而恒明) 신약금강(身若金剛) 등허공이불멸(等虛空而不滅)"의 사륙문이 존재한다.

박 연구관은 "사리봉안기에는 단 1구의 사륙문만이 있지만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며 "사리기 곳곳에서 4자 1구로 구성된 대구(對句) 표현들이 보인다"고 강조했다.

변려문은 '대구'를 존중해 지은 문장 형식으로 사륙변체 · 변체문 · 사륙문으로 불린다. 변려문은 시기에 따라 4-4자(구)의 변려문으로부터 4-6자 변려문으로 변화했으나, 4-6자 변려문은 변려문 중에서도 가장 복잡하고 발달된 형식으로 알려져 있다.

이제까지 대다수 전문가들은 "익산 미륵사지석탑 사리기는 경서체를 기초로 쓰여 사륙변려체도 보인다"고 평가했다.

조동섭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일기일회	법정	문학의 숲
2	삼천년의 생을 지나 당신과 내가 만났습니다	성전	마음의 숲
3	답답하면 물어라	법륜	정토
4	지리산 스님들의 못말리는 수행이야기	천천, 현현	불광출판사
5	세어본 소만 존재한다	월호	운주사
6	삶은 고기 아니다	대행	한마음선원
7	아름다운 마무리	법정	문학의 숲
8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	법륜	정토
9	깊고 깊은 연꽃 가르침	해국	사유수
10	쉬고 또 쉬고	무여	새로운 사람들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철산 스님, 제다법 강의하며 문화센터 운영 나서

문경 대승사 금우문화재단 '금우문화진흥대학' 개강

"다도와 제다 모두 심신수양의 한 방편입니다. 문화센터를 통해 시민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었으면 합니다."

사단법인 금우문화재단(이사장 철산, 대승사 주지)은 7월 1일 경북 문경시 재단 건물에서 금우문화진흥대학 개강식을 갖고 본격적인 문화교육에 들어갔다.

부처님의 골수를 뜻하는 '황금소'란 뜻을 가진 '금우(金牛)'의 명칭이 암시하듯 불교포교의 원력이 깃든 이 문화센터에서는 제다 및 도자기, 차묵화, 다도, 전통음식문화, 요가, 오미자교실 등 다양한 전통문화를 교육한다.



대승사 주지 철산 스님(사진)이 직접 제다법(製茶法)을 강의하고, 서종덕 도예가가 도자기 만드는 법을, 서정순 한국기양주협회 이사가 다도와 한국음식문화를, 황영민 강사가 요가를 각각 지도하는 문화센터에서는 오미자교실, 가요교실, 댄스스포츠 등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문화센터의 모든 교육을 무료로 진행하고 수강생들에게는 소정의 교재비만 부담하도록 한 철산 스님은 문화재단의 설립 배경은 문화포교에 앞서 '지역사회의 화합과 단결'이라고 명쾌하게 설명했다.

"우리 절(대승사)에서 금우요를 운영하면서부터 '1가구 1다기 보급'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한 가족이 모두 모여 차(茶)를 마시는 시간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대화의 시간을 가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일상 생활 속에서 나타났던 부부간, 형제간, 부모 자식간, 주민들의 소원하고 불편했던 일들이 자연스럽게 대화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되고 서로의 심중에 쌓여 있던 불만들을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지역사회의 화합과 단결은 자연스럽게 사찰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게 되고 불교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하지만 무료 교육이다 보니 운영비 조달이 관건.

"문화센터 1층에 지역 도예인들의 도자기와 각종 차를 전시,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으로 강사료, 버스 운행료 등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또한 3층의 오미자 한정식 식당도 본격적으로 영업에 들어가면 여기에서도 이익금을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산 스님은 강사진 구성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다도(茶道)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전문 교수를 섭외해 일주일에 두 차례 교육하고 제다는 직접 나선다. 그동안 대승사에서 생산한 발효차를 비롯한 뽕잎차, 민들레차 등의 생산기술을 심신수양과 접목해 교육할 방침이다. (054)571-7767

김성우 기자



함영의 **밥맛 나는 세상**

34 밥은 초대

맑은 차에 어렴풋한 기억을 추억하며

영주의 아지트에서 때늦은 저녁식사를 마치고나니, 어느덧 시간은 자정을 향하고 있었다. 고작 3일만의 재회지만 그동안의 회포를 풀기 위해 다음은 차(茶) 시간으로 이어졌다. 차가 있는 밤에는 음악이 빠질 수는 없는 법. 영주는 자신이 좋아하는 앨범이라며 건넨다. '포폴부'라는 독일밴드의 전위적인 기타 선율과, 밴드의 일원인 윤이상 선생님의 딸인 윤정의 독특한 음색이 감성을 과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묘하게도 흘렀다. 차와 음악이 어우러져 적절하게 감미롭고 차분하게 그 무엇을 말한들 혹은 아무 말을 하지 않은들 '통하는' 밤이 됐다.

"언니, 저는 운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남다른 다인 선생님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 처음 차를 배웠을 때도 선생님이 제게 가르쳐주신 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위빠사나였더라고요. 가령 찻잔에 물을 따를 때는 따르는 행위에 집중하고, 찻잔을 옮길 때는 또 그 행위에 집중하는 거예요. 차를 만드는 과정의 행위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훈련이었거든요."



맑은 감잎차

시원한 크기의 찻잔에 찻물과 말차 가루를 넣고 능숙한 손놀림으로 휘젓던 영주가 차분한 어조로 말을 꺼냈다. 그 얘기를 듣다보니 새삼 작은 손동작 하나, 말 한마디에도 집중을 해보려는 시도가 일어나지만 고작 찰나의 순간에 머물 뿐이다. 하지만 의식하는 찰나에라도 깨어 있을 수 있다면, 그러한 연속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수행과 다름이 있을까. 그러한 생각이 지나치는 사이에도 차를 휘젓는 영주의 손놀림은 쉼 없이 이어져 말차의 경지가 거의 녹차라떼의 수준에 이르렀다.

"그래도 녹차라떼 보단 맛이 좋을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저을 필요가 없는데, 많이 저어주니까 맛이 한결 부드럽더라고요. 그나저나 언니, 기어코 어제 치킨을 두 마리나 시켜먹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죄책감이 드는지…."

채식주의를 지향하는 영주의 고민에 대해 기껏 고심해 해낸 말이라는 게 "식물도 생명이 있는데 그건 아무렇지 않게 볶아도 먹고 지져도 먹잖아. 치킨도 나물이라고 생각해봐"라는 게 고작이었다. 역시나 어설프게 급조한 조언은 통할 리 만무한 법. 그래도 수행을 위한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육식도 필요하다는 나의 고집과 불살생의 계율을 위해서는 채식이 불가피하다는 영주의 의견이 맞물려, 어느덧 시간은 새벽을 넘어서고 있었다. 하지만 그깟 시간이 대수이랴, 이야기는 무릇 영주와 각별한 사이인 한 도반, 그녀의 어머니와의 인연으로 이어졌다.

"엄마는 나무로 불 때 밥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항상 마당이 있는 집에 살면서 아궁이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가마솥을 기본으로 세 개는 거는데, 제일 큰 건 뭘 삶거나 할 때 쓰고, 중간 솥은 국 끓일 때, 제일 작은 솥은 밥 지을 때 써요. 전기밥통에 밥 짓는 거와 밥맛이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영주의 남다른 친환경적인 성향은 그러한 엄마의 영향이 컸던 모양이다. 절에 함께 기도를 다니거나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엄마라는 존재가 영주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도반이자 스승인 듯 싶다.

"여기로 이사 오기 전에는 엄마랑 경주 외곽 산 옆에 살았어요. 그때 정서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엄마랑 저녁 일찍 밥해먹고 차 마시는 시간도 좋았고, 엄마가 들어가 주무시면 겨울에 아궁이 옆에 앉아 불을 보는 것도 참 좋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명상이 되더라고요. 그런 여유로움도 좋고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집에 도둑이 들면서 이곳으로 이사 오게 된 거예요."

산중생활은 아쉽게 막을 내렸지만, 훗날 영주는 산중에서 살 계획이란다. 된장찌개와 말차, 감잎차로 이어진 회포를 3차까지 이어 거하게 풀었건만, 그래도 헤어지기가 못내 서운한 시각에 그녀가 물어왔다.

"언니와 저는 어떤 인연이었기에 이렇게 만났을까요?"

절의 수행자들이 깨어나는 새벽3시에도 나의 무명은 까마득하기만 하여, 맑은 차와 영감어린 음악에 의지해서도 어렴풋이 짐작만 해볼 뿐이다. 자유기고가, blog.naver.com/owisdom

행복한 삶을 위한, 선과 禪 심신건강 心身健康

40 소통

박지숙 박사 한·양방 의료센터 salm 마인드힐링연구소

어떻게 하면 人生이 술술 풀릴까요? 1

"나는 뭘 해도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라는 생각을 갖고 괴로워하거나 힘든 사람들은 일단 그 멘트 자체를 확 뜯어 고쳐야 한다. 뭘 해도 되는 일이 없고, 왜 이리 일이 안 풀리고 꼬이냐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순간부터 내 인생은 더 꼬이고, 뭘 해도 정말로 더 안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릴까"에 대하여 고민하고 생각해보자.

첫 번째, 죽는소리를 하지 않는다.

1. 돈이 없어 죽겠어요

없는데 있는척 할 필요도 없지만 없다고 누가 보태주는 것도 아닌 돈. 없는 게 흉도 아니지만 자랑도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가 자기 돈을 뺏어가나 항상 돈 없다고 엄살을 피운다. 맨날 돈 없다고 투덜거리는 사람들은 정말로 돈이 없어서 죽을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2. 어디 한 군데 성한 데가 없어요,

늘 아픈 곳만 찾아다니고 기다리는 사람마냥 하루가 멀다하고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골골대는 사람도 잘 살기 힘들다. 물론 정말로 여기저기 아파서 하는 소리일수도 있겠지만 정도 차이고 습관적인 사람들도 많다. 모든 관심과 초점을 자신의 건강과 통증에만 집중시켜 과민하게 반응하며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도 곁에 있기 싫어하고 다들 떠나간다. 아픈만큼 생활습관도 개선하고 열심히 치료하러 다니며 최선을 다하면 된다. 내가 아프고 짜증난다고 남들에게 화풀이를 하고 볼 때마다 아프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도 고달프다. 왜 남에게까지 그 스트레스를 전가하려 하는가?(물론 여기서 말하는 아픔이나 통증 등은 중병이나 특정 질병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며, 습관적 엄살 건강염려증 등을 얘기함)

3. 뭘 먹고 살지 모르겠어요

뭘 먹고 살지 모르겠다고 투덜거릴 시간에 뭘 먹고 살지 찾아 보는편이 더 효율적이다. 뭘 해도 밥이야 먹고 산다. 내가 뭘 먹고 살지 모르겠다고 불평해도 남들이 날 먹여 살려주지는 않는다. 다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들고 골치 아프다. 다들 자기 코가 석자인판에 서로 도움도 안되는 투덜거림으로 에너지를 소진할 필요가 없다. 매일 뭘 먹고 살지 모르겠다고 입버릇처럼 달고 살면 정말 먹고 살 일이 없어질지도 모른다.

4. 죽지 못해 살고 있어요

항상 그렇게 너스레를 떠는 사람들은 늘 습관적으로 얘기한다. 멀쩡히 소중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 말이다. 죽지못해 마지 못해 사는 삶은 사는 의미가 없다. 누구나 각자의 소임과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귀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다. 정말로 죽고 싶은 사람은 정말로 마지못해 사는 사람은 그런 말 안한다. 아니 할 수가 없다. 죽지 못해 살고 있다고 징징대도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당신을 죽이지도 살리지도 않는다. 당신의 삶을 해결할 사람은 오직 바로 당신 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마디로 죽는소리만 늘어놓는 사람치고 잘되는 사람 못 봤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 또한 보지 못했다. 이런 사람에게는 좋은 기운과 에너지가 오다가도 재수가 없어져서 사라지게 되어 있다. 매일 부정적인 생각과 말로 나쁜 기운만 끌어 당기는데 뭔 일이 잘되겠는가? 이 세상은 좋다는 말, 좋다는 행동만 다 하고 살아도 만만치 않다.

그만큼 내가 생각하고 무심코 내뱉는 말의 힘과 영향력은 내 삶의 성패를 가를 정도로 엄청난 파워로 작용한다.

(02)576-7575



50여 스님들 발 재보며 합격점 받아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신발 사업으로 전환하게 된 것도 거룩한 부처님의 불법을 배우게 돼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전생의 인연으로 금생에 사부대중 만행화를 제작하게 된 게 아닐까 저는 늘 생각 하곤 합니다.

지난 2004년에는 신발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만들어야 될 것인지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가까운 경기도 오포읍 백련암에 찾아가 법민 스님을 찾아 뵌 적이 있었습니다. 스님께서도 흔쾌히 만행화가 기존의 고무신과 흡사 하면서도 발도 편안하고 스님 신발에 적합하다 하시며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난 뒤, 보급에 앞서 여러 대중스님께 선을 보여서 합격점을 받은 후에 만행화를 만들어 보급하는게 도리이자 그것이 정말로 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전남 장성 백양사에 계셨던 서옹 큰스님께서 열반에 드셨다는 소식을 듣게 됐고 불자로서 큰스님의 다비식을 불교TV를 통해서만 본다는 것이 너무 죄송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때에 백련암 법민 스님께서 제게 서옹 큰스님의 49재에 함께 가자고 권유를 하셔서 저는 여러 스님을 모시고 백양사의 49재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죄송스러웠던 마음이 어느 정도는 수그러들면서 마음이 편안해졌고, 제가 이 곳에서 무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백양사 내에는 다연원이라는 찻집이 있는데, 그곳에는 세민 스님, 운달 스님 등 많은 대중 스님들께서 자리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법민 스님께 오늘 이 곳에 계신 스님의 발 치수를 재어서 만행화를 모든 스님들께 무상으로 만들어 드리고 싶다고 말씀 드렸고, 법민 스님께서는 좋은 생각 이라며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곧 법민 스님께서 대중스님들께 말씀을 해주셨고, 스님들께서는 정말 기뻐하시면서 좋아하셨습니다.

그렇게 50여 스님들의 발을 차례차례 보아가며 발의 골격이나 볼의 넓이 등을 재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수행하시는 스님들의 발은 일반 대중들과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명확하게 알게 됐고 그 경험들이 지금 저에겐 소중한 재산이 됐습니다. 한편으로 서옹 큰스님의 49재 법공양을 한다는 생각에 큰 환희심이 생겼던 정말 소중한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로인해 만행화의 인지도도 쌓을 수 있게 됐던 일이니 저로서는 다시금 되새겨 보아도 뿌듯하고 행복한 시간으로 떠오르곤 합니다.

제 자신이 불법승 삼보에 귀의 한 것이 이 일을 통해 또 한 번 자랑스럽게 느껴지는 때였습니다.

(02)733-5715



행복의 씨앗을 드립니다

www.dongsanbud.net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마음의 다툼과 삶의 지루함을 느낄때가 있습니다.
불교는 일상의 고통을 덜어주고 삶을 더욱 행복하고 풍요롭게 합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본 대학은 불교를 더욱 체계적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조계사앞 동산불교회관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교수진을 모시고, 최초의 2년제 불교대학으로서 많은 불교지도자들을 배출하였습니다.

불교대학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오늘 동산불교대학을 만나십시오!

불교학과 31기 김연희

2009년도 35기 신입생 모집안내

모 집 학 과 ▪ **불교학과** (2년과정, 토요반,목요반,통신반)
불교다도학과(3년) / **불교미술학과**(3년) / **불교한문학과**(2년) / **사찰음식문화학과**(1년)

불교학과 교과목 법화사상 / 반야사상 / 화엄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 불교학개론 / 선사상 / 불교미술 / 밀교사상
포교방법론 /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상담론 /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유식사상 / 정토사상

교 수 진 ▪ **불교학과** • 무진장스님(본대학 학장) • 박 종(동산불교대교수) • 김형준(동산불교대교수)
• 활안스님(금강선원총재) • 보각스님(승가대교수) • 최종석(금강대교수) • 이평래(충남대교수) • 김호귀(동국대교수)
• 윤열수(문화재전문위원) • 종석스님(승가대교수) • 정엄스님(승가대교수) • 최봉수(동국대교수) • 주명철(동방대학원교수)
• 정병조(동국대교수) • 차차석(동방대학원교수) • 김상현(동국대교수) • 묘주스님(동국대교수) • 법상스님(승가대교수)
▪ **불교다도학과**(박희준교수) ▪ **불교미술학과**(법인스님) ▪ **불교한문학과**(심재동교수) ▪ **사찰음식문화학과** (정산스님)

모집인원 및 개강일 ▪ **불교학과 〈8월 8일 입학식〉**180명, 토요반: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목요반:매주 목요일 오후 2시/통신반
▪ **불교다도학과** : 30명, 9월 8일(화) 오후 2시 ▪ **불교미술학과** : 20명, 9월 9일(수) 오전 10시 30분
▪ **불교한문학과** : 30명, 9월 3일(목) 오후 7시 ▪ **사찰음식문화학과** : 20명, 9월 9일(수) 오후 2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대학 사무처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TEL 732-1206~8, FAX 732-1207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불교대학·대학원** 학장 무진장 / 이사장 안동일

불자생활정보 | 전면광고 | 21

▷ 문의 : TEL 02)2004-8214,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 가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 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을 하셔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 계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주)현대불교신문사

부산 · 경남 · 전지역
천도재 및 불교의식 주관하실 스님 필요하신 분 (사찰) 연락 바랍니다
여법하게 모셔 드리겠습니다
법림 합장
010-8767-8595

대한불교 대승선교 조계종
※위종단은 비구니(여승)종단 입니다
● 비구니 종단 등록
● 사찰 등록
● 비구니스님이 되고저 원하시는분
연락처 010-2606-5121

불자결혼 상담소
국내 : 초혼, 재혼, 친구, 연인
국제 : 필리핀, 베트남, 한족
성실男 미모女 상담환영.
30대女 무료, 70세까지 (남녀)
아현역 2번출구 (원갑사)
02)365-1345
010-9114-4345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전통불교 문화예술대학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 · 예수재전문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 (부산)
금정사 대명 합장

역학개인지도
한문과 용신격국 몰라도 물상으로 철학 배우면 바로 상담할 수 있음
짧은 시일내에 실제감정위주로 신수와 영가탈 배워 천도재 지낼 수 있도록 강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333-3258
011-591-5277

김현산 작명 역리원
작명 · 사주 · 운명개척 상담
전화우편 상담 환영 (전국 불자님)
명리학 개인지도 (월 20만원)
정통사주학 완성(수기본) 25,000원
서울 종로구 낙원동 176 3층
종로3가역 1번출구직진 낙원상가 방면
02)741-8449 김현산
011-9113-8545 역리원

보 살 선 방
● 1인1실 : 방1, 주방, 거실, 욕실 / 방1, 주방, 욕실
● 부부실 : 방2, 주방, 거실, 욕실
절에서 수양하며 기도하고 불교공부하면서 노년을 보내실분
(일부시주금 내시고 종신재)
불광사 · 불광대학
053)656-6766

대한불교도서관건립 불사
불법승 삼보님께 귀의하옵고, 불자님들의 가내에 부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佛書의 典當 대한불교도서관 건립에 뜻있는 불자님들의 선근인연을 기다립니다
헌책도 대 환영합니다
대한불교도서관추진위원회
010-2002-6332

각종 불공 범음 · 범패전문
점안식, 49재, 천도재, 구병시식 예수재, 수륙재, 불교의식, 사물, 바라나비춤, 명리, 주역, 활법
실전 위주 교육. 학인행자모집
031)953-3328
011-9923-3329
대광명사 (동양불교대학)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 (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큰 법력으로 사물 · 바라 · 살풀이무, 극락무 등 시연과 함께 우리말 한문 등을 마음대로 구사하여 재자와 영가를 동시에 해탈케 하는 정말 신심나는 천도재, 49재, 입종 시다림재 및 구병시식, 불상, 불화 점안 각종불공의식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리오니 믿고 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1-854-8107
50대 초반 비구승 무불 합장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017-624-9989

새 인연
작은도량, 암자, 토굴, 포교당을 맡겨 주실 아름다운 새로운 인연을 간절하게 기다립니다.
수월관음회장
010-2446-2626

산 좋고 아담한 법두산 관음사에서 착하고 열심히 공부하며 기도할 비구니 스님을 찾습니다. 형제처럼 의지할 비구니 인연을 기다립니다.
054)833-9972
010-9092-9972

약천사 약사 기도도량입니다
● 함께 운영하실 40대 중반 비구니 스님을 모십니다
● 행자 구함
(전남 구례)
061)781-6328

비구니 기도스님
도심 포교원 입니다
가족처럼 오래 계실 분만 전화주세요
02)338-2158

부처님 법력으로 묘 이장, 탈봉, 회향 천도해 드립니다
● 윤5월 묘, 탈봉, 이장 전문
● 묘 탈봉 및 천도 상담 환영
● 비구 스님 직접 전국 회향 천도
● 50세 이상 출가하실 분 상담환영
● 숙성된 봉삼주 필요하신 분 상담
010-2553-8827

배우자 구함
초혼 남, 대학교 행정직원(주임), 대학원 졸(석사), 미국 2년 유학
선생님, 세무, 법원, 경찰, 등등 국가 공무원으로 착한 여성 본인이나 가족이 연락 주세요.가족 여러분 서로 연락해 보아야 좋은 인연 만날 수 있잖아요. 광고주도 부모입니다. 가능한 오후7시 이후에 전화 하세요.
011-543-8099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5세-65세)
보시금은 상담 후 결정
054)533-5103

가족처럼 함께 지낼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60대 / 숙식가능자)
054)286-1182

공양주 모십니다
강원도 철원 사찰에서 가족처럼 함께 일하실 공양주를 모십니다.
033)455-5882
010-8879-8400

공양주 구함
경주시 산내면 소재 촉수암
(50-60세/숙식가능자 우대)
월2회 휴무/월급 70~80만원
010-5424-8127

원정스님의 신비의 손, 눈 초월감각으로의 초대
모든 질병, 빙의, 퇴마, 틱장애, 뭘해도 안되는 사람, 학생진로 상담.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로 자신이 재수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
무료氣치료. 상담. 무료 氣나오는 작품드림.
010-5790-2351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송광사
● 법 명 : 성광(임형순)
● 주 소 : 경기 포천시 신북면 만세교1리
위 인과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8일
대한불교일붕선교종 총무원장 법하

28숙기도 (대방등 대집경)
● 어떻한 소망도 28숙 기도로 다 이루어집니다
● 위치 : 백선사 절 (지하철 1호선 부천역 하차)
☎ 032)664-0048 / 011-741-08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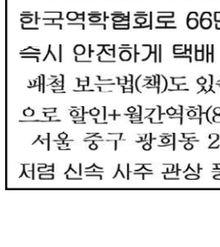
대체 의학 비법 전수
1. 중풍환자 혀가 뻣뻣할 때
2. 발바닥이 아파서 걸음걸이 힘들 때
3. 척추에 이상없이 허리가 몇십년 아플 때
4. 오십견으로 팔 올리기 힘들 때
◆ 이상 4가지를 단 한번에 낫게하는 비법 전수 (이론 강의 없이 실기만 가르침)
◆ 우울증, 화병, 변비, 관절염, 복수, 산후풍, 담결림, 기관지염, 신염, 대상포진 등 치료 비법전수 (이상 전수를 3시간에 완료)
◆ 대상 : 스님, 한의사, 기치료사, 대체의학 종사자
◆ 중국 초능력 기공사 직강 (출장 방문 가능) ◆ 출장 치료 가능
010-7703-3825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행자(예비스님) 모집
21세기형 행자교육!!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진 수행과 수계 이후 모든 지원!!
● 성별 : 남자, 학력 : 고졸이상
● 1인 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교육
● 수행 · 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 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 문의 : 010-2488-8228
● 다음카페 : 출가생각(http://cafe.daum.net/beamonk)
대구 도심 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 최첨단 시설, 편리한 교통, 한발 앞선 장례문화시설!!
● 언제나 염불, 기도소리 들리는 법당 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설 · 추석 · 기일 · 영가 천도일에 천도 축원 해드립니다.
● 문의 : 010-6296-0108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유 명 표 구 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 종 부 합장
문의 ☎ 02)374-9886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역 학 공 부
집에서 간편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확실히 속성으로 공부하세요
인터넷 동영상 강의 www.kbs.cc
사주 관상 풍수 수상 육효 자미두수 주역 등 사주 전과정 45만원 부터. 역학상담심리사 자격증
한국역학협회 / 전화 1688-1137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아기이름 작명
작명. 개명. 상호. 회사명. 아호. 단체명. 모든 분야 이름
문의 051)867-8438
부산경상대학 졸업. 김해가야대학교 졸업
현,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중. 국가공인한자1급.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명리학 개인지도 속성*
부산시경 뒤 시청 어린이집 뒤편 삼화탕 옆 송광정사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통장입금하시고 상담하세요
명리학 성공하실분 노크하세요.(사주첩경) 이석영 통달. 수월정사
011-498-5067 / 02)826-5067
031)774-5067 (주말)
〔통화관계로 방문 사절〕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CD프로그램 재설치승인 및 교환구입 안내"
효사활인천역집 Ⅰ · Ⅱ · Ⅲ에 이어 탄생된 이 시대 최고의 우리 活人天役者 用 CD프로그램 "완결판"입니다.
효사활인천역집 CD 완결판
「육임래정비법」시리즈 (육임래정비법 1권 / 6권 · 육임래정비법 혁신판 12권 · 육임래정비법혁신판수정보완본 12권 · 육임대계전서 60권 · 효사육임복변집 60권)에 이은 "최종판"입니다.
효 사 육 임 산 책
www.taotemple.net 051)908-86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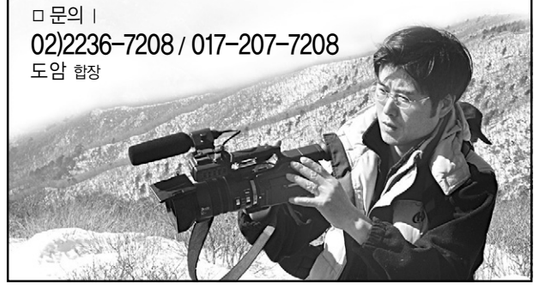
명당 탐지기
TM
심룡척!!
심룡척은 명당에서 정확히 옆으로 회전합니다. 이 기구는 1990년부터 월간역학을 발행해오는 문학박사 전용원(나경 사용법 저자)이 1970년대 개발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판매되는 기구. 이미 국내외 유명 지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100% 정확하며 사찰터 집터 건물터 묘지터를 잡거나 감정할 때 꼭 필요한 기구로 설명서대로 하시면 누구나 즉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특허청 상표등록 제0464294호)
* 심룡척은 88만원이지만 지금 구입하시는 분께는 66만원으로 할인+ 케이스(2만원)+수맥 탐지봉(1만5천원)+월간역학 1년 정기구독(10만5천6백원) 등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 구입방법: 우리은행 064-301374-13-001 한국역학협회로 66만원 입금하신 후 전화 주시면 즉시 안전하게 택배 또는 등기로 보내드립니다.
배철 보는법(책)도 있습니다(정가 2만5천원) 2만2천원으로 할인+월간역학(8천8백원) 증정 한국역학협회
서울 중구 광희동 2가 303-15 전화 1688-1137
저렴 신속 사주 관상 풍수 동영상 강의 www.kbs.cc

나의 체질을 알고 계시나요?
지금시대는 정확한 체질에 맞는음식.맞는과일. 맞는차를 알고 먹어야내몸에 균형을 이루어서 큰병을 만들지 않고 사는 동안은 건강하게 살아 갈수 있어요!
내몸에 맞지 않는 음식은 내몸을 병들게 하는 원인으로 나의 체질을 알고 먹는게 아주 중요하지요?
40년넘게 얼굴생김새.목소리.체형.성격을 본후 피부를 만져보면 체질을 정확하게 알려주고.유전적인병명.현재앓고있는병등을 만나는대로 알수있고 체질한약차로 병을고치는분을 만나로 오세요.끝없이 연구하고 공부하는분을 만나보면 인생이 바뀌지는 행운이 열립니다.지금전화주세요? 스님들은 수행에큰변화를 얻을수있어요!
누구나 무료로 오시면 정확한 체질을 알려드립니다
수행하시는 스님들께는 모든 특혜를 드립니다
상담연락처 011-9373-3778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중생구제와 자비실천을 함께하실 스님, 포교사, 법사님을 모십니다
종정대행 총무원장 월산 혜봉
※ 준비서류 및 서류 발급
◆ 종단 입종신청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장
◆ 입종하시면 사찰등록증, 주지 임명장,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증 발급
※ 각 지역별 간부직 소임자를 우선 모십니다. 연락바랍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번지
전화 054)262-5060 / 팩스 054)262-0067
혜봉스님 직통 011-545-5060

佛 불영TV www.불영.kr
바르고 빠른 뉴스 불영TV!
뉴스,법문,다큐 사부대중과 함께하는 불영TV!
불영TV는 사찰홍보,행사,불교 관련기업 홍보영상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인터넷방송으로서 타 매체보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한 걸음 더 다가서고자 합니다.
※ 불영TV에서 판매 중인 스님 법문 동영상 CD
◇ 원통스님 관세음보살보문품 동영상1셋트 CD30장
◇ 원순스님 원각경 동영상 1셋트 20장 CD
◇ 각성스님 능가경

주요사업 안내
1.홍보영상 제작
불영TV에서의 동영상 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세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릅니다.
2.사업분야
사찰홍보,행사,개인다큐,법문 등의 동영상을 제작해 드립니다.
3.프로그램 판매
불영TV 동영상 프로그램 구입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바랍니다.
□ 문의 |
02)2236-7208 / 017-207-7208
도암 합장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기본 규격 – 50.000원
  규격 가로 7cm – 70.000원
  규격 가로 10cm – 100.000원
- 계좌번호 : (주)현대불교신문사
  국민은행 222-25-0005-381
  농 협 053-01-269088
- 문의전화 : 02)732-1522
- 원고접수 : jabi82@naver.com
  FAX 02)737-0696

※ 접수마감 : 매주 수요일 오후. 다음주 금요일 게재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 부지 : 500평
- 법당 : 25평
- 요사 : 30평
- 급양도가 : 3억

- 위치 : 서울 시내
- 대지 : 40평
- 법당 : 30평
- 시내요지
- 가액 :4억 5천

- 위치 : 서울산사
- 대지 : 300평
- 법당 : 40평
- 요사 : 30평
- 가액 :12억

※30년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인연소개 합니다

광진불사 010-2221-2807/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 법당 : 25(외30평)
- 요사 : 160평
- 부지 : 700평
- 가액 : 20억

- 위치 : 서울
- 법당 : 40평
- 요사외 공간 : 120평
- 부지 : 62평
- 가액 : 17억 (역세권임)

- 위치 : 충남 아산
- 법당 : 25평
- 요사 : 30평
- 부지 : 120평
- 가액 : 1억 8천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대사찰 부지 (현 농장)

- 위치 : 산청(생비량면)
- 총대지 : 8만 6천평
- 4만평 평지개발(현재 약초재배 농장)
- 기와집 12평, 창고 43평
- 금광동굴 10기
- 연꽃문양 대사찰터
- 템플스테이, 테마트레킹 체험장
- 청소년 수련원 최적지
- 버스진입가능
- 계곡물 철철(식수, 지하암반수)
- 가액 : 평당 1만원

사찰전문 부산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22

※부산 시내 및 암자, 토굴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사 찰 안 내

- 위치 : 양산 신도시 인접 토굴 최고적지
- 법당 : 20평(30평)
- 요사 황토방2동
- 부지 : 84평
- 가액 : 2억5천(조절안됨)
- 주차가능

- 위치 : 부산 바다가 보이는곳
- 법당 25평 목조건물
- 요사 2동
- 부지 117평
- 가액 : 2억9천(조절안됨)
- 주차가능

- 위치 : 마산진동
- 법당 : 2층건물
- 요사 : 50평
- 부지 : 120평
- 가액 : 2억6천(조절안됨)
- 주차가능

영주불사 010-9798-1091

부산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 소액 및 고액 다량 확보

포교당(급)안내

- 위치: 대구시 북구 구암동
- 법당(건물 포함) 60평
- 약사도량, 즉시법회 가능
  약쑥, 뜸방, 벌침교육실
  (스님이나 불보살님께 인수 후 당분간 스님이 직접 관리 지도해줌)

053)326-0806
010-6592-0808

포교당 안내

최고 시설! 최고 위치!

- 위치: 울산시 태화동 버스정류장앞
- 평수: 40평(법당1, 친견실, 방3칸), 즉시 법회 가능
- 보증금1.000만원/월30만원
  시설비 답사 후 절충
  꼭 필요하신 분만 연락바람

010-6374-4446
052)248-4812

조용한토굴(임법당)

- 위치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갈월리277번지
- 평수 : 대지 300평
- 법당 25평, 방4, 욕실, 주방
- 아미타삼존불,법당공양실물품일체
- 시설비 없음, 조용한 기도처
- 전세금 2천만원.즉시법회가능

010-2204-8375

사 찰 (급) 안 내

- 위치: 경북 봉화지역
- 법당 10평, 산신각 1평반
- 요사채 2동, 전답 1500평, 하천 부지 500평

가액: 1억 5천만원

010-5317-7736

사 찰 안 내 (포교당)

- 경기도(서울외곽)23억
- 부산 3억 7천만원
- 안양 15억
- 포교당(보:700, 월50)

※전국 사찰 부지등 양도 양수 하실분 전화 상담하여 드립니다

02)6674-3535
010-3154-3535
한국불사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송파에서 20분거리 대도로변위치 유원지 입구
- 대지133평, 건평70평 (대웅전 및 요사채)
- 동굴 삼성각, 무허가 건물 40평
- 사찰 마당 뒤 야산 접 (1000평 이상 쓰고 있음)
- 가액 : 12억

011-286-5109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북 칠곡 약목역 앞
- 평수 : 약 45평 (시설 완비, 공기 청정) 법당,삼존불,방2,주방,화장실
- 2층건물 중 2층(옥상사용)
- 보증금 1,500만원 / 월10만원 시설비 1,600만원(약간절충)

054)974-0307
017-217-1919

포교당 안내

- 위치 : 군포안양지역
- 삼존불, 지장단, 신중단
- 2층전체 80평, 방4칸, 화장실2개
- 보증금 2천만원, 월 130만원 시설비 3000만원 절충가능 즉시법회가능

011-685-6740

암 자 안 내

- 위치 : 밀양 얼음골 근교 경관수려함
- 임야 10,000평

010-4876-5535

포교당 안내

- 위치 : 양산시 북부동
- 평수 86평(법당46평), 방3칸, 공양간, 삼존불(아미타불, 관세음, 대세지보살)
- 전세 3,500만원/월세 50만원 권리금 없음.
- 시설비 및 비품대는 상의 후결정

010-8011-7444

포교원 안내

- 위치 : 성북구 길음동 전철 출구 앞
- 4층 건물중 2층 실평수 40평
- 법당 20평, 방2개 욕실, 공양간 시설 깨끗하고 완벽함. 삼존불, 후불탱화, 각단탱화(고려불화)
- 보증금 1,000만원 80만원

※관리비, 부가세 없음 시설비 외 총 2,500만원

010-2665-2393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팔공산
- 대지: 80여평,
- 가족 있는 분 사용 편리함
- 3층 건물 건평 90여평
- 주차장 무제한 사용가능
- 구도로 사용함

010-8804-8041

포교원안내

-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신갈
- 2층 100평, 법당 40평(최고급시설)
- 방3, 주방별도
- 보증금 2천만원,월180만원 시설비 4,500만원

010-9027-1319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당진군
- 대지: 1000평
- 건물: 법당, 산신각, 요사채 (3동 영구건물) 신도실, 창고, 차고, 우물 (4동 조립건물)
- 석불, 금동불 기타 시설완비
- 가액: 3억원

016-417-4744

사찰(급)안내

- 위치 : 서울 보문동
- 대지 160평, 법당 45평
- 토굴 : 산신기도 40평
- 요사채 : 130평(해우소 별도3개)
- 2층 건물 중 1, 2층 모두사용
- 서울시내에서 개인사찰로 가장 큰 사찰
- 전세 5억(시설비포함)금액조정가능

010-8577-1811

포교당안내

- 위치 : 서울 이대입구(대흥동)
- 지하철 2호선 5번출구 60M위치 교통편 최적지
- 4층건물중 3층 약 25평
- 삼존불, 신중, 산신, 영단 입구 즉시 법회가능함
- 보증금, 시설비 포함 3000만원(월세 50만원)

02)719-7709

사찰(급)안내

고급단독주택2동

- 위치 : 청주 상당구 우암동
- 1층 단동2동, 요사채35평, 방3개 큰방, 사무실,선방,주방,큰거실, 화장실및 욕실
- 법당지은지5년법당 22평 선방 1개 화장실 및 욕실, 마당넓음 법당삼존불, 장태화고불, 후불탱화, 신중탱화1자관세음보살원불 100불 ,심야전기최신, 대지62평,
- 가액: 3억

꼭 하실 분만 연락주세요

010-5883-2255

암 자 안 내

- 위치: 경남사천
- 바위산 멋진 기도처
- 평수 3700평
- 가액: 2억 5천만원

011-9323-4478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금정구
- 자연녹지 281평(허가됨)
- 하천부지 약 300평~350평
- 무료 사용부지 약 300평 하천 위에 법당(스래트) 약 40년
- 꼭 필요한 분만 연락 바람
- 부산 지하철 2분거리

010-6326-8870
010-9613-5567

시내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청송군 진보면 진안리 502-2번지
- 대지:150평 사찰운영
- 가액:1억 오천만원
- 시내안사찰로 포교당가능

017-371-8600
(필요하신분만 연락요)

포교원(급)안내

- 위치:창원시 소답동 경남은행 옆
- 4층건물 중 3층
- 실평수 90평
- 법당외, 큰방3개, 종무소 1개 시설 깨끗하고 완벽함
- 삼존불, 후불탱화, 관음호신불 216불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권리금은 보신 후 절충

055)299-5690
010-7159-5690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부산 동구 초량동 (초량시장 內)
- 법당 53평, 삼존불, 원불 108불, 신중탱화 104위
- 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 전세 1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1천만원

051)466-7237
010-5493-3374

포교당안내

- 위치 : 서울 강동구 암사2동 큰도로변 지하철 암사역 3분거리
- 평수 35평, 옥상 35평 약 70평
- 법당, 공양간, 방3
- 가액: 전세: 8000만원 시설비: 2800만원

010-3714-363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안양 종합운동장 정문앞
- 평수: 65평 제반시설 완벽 구비
- 몸만 와서 포교활동 할 수 있음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55만원
- 시설 권리금 2500만원(절충가능) 스님 건강 관계상 급 양도

011-9108-5484

사 찰 안 내

- 위치: 대구시 달성군 가창댐부근
- 법당 2층 60평(삼존불 봉안) 요사채 1층 80평
- 방7, 화장실 2, 별채(공양간) 25평, 외관 단층필
- 시내버스 정류장 1분거리, 교통편리
- 총부지 400여평, 주차완비
- 가액: 12억(융자 1억 5천만원) 절충가능

010-4541-6711
(주인직)

포교원안내

- 위치: 서울 석관동
- 평수: 3층 건물 2층 42평
- 구조: 법당 25평, 방2, 주방, 간이 사무실, 화장실
- 시설: 불단(원목) ,영단(영구위패 500개) 1년연등(500개)등 최고급 시설
- 가액: 7,000만원(보증금 2천 시설비 5천만원 월 85만원)

010-7609-0920

사찰 및 암자터 안내

- 위치 : 충남 공주시 정안면 차령산계곡 상류 도량이 깊음
- 1715평
- 가액 : 평당 5만5천원

010-4130-0606
(주인직접)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강릉
- 부지 500평 입법당 30평
- 요사 40평, 산신각
- 좌청룡 우백호 뚜렷한 포란형(남향)
- 가액 : 2억5천만원

011-452-8374

부 산 대 사 찰

- 사찰 내 20년 된 벚꽃나무 50종 있음
- 목조법당 25평 단청필, 목조요사 30평 단청필, 벽돌집 요사 2동 50평
- 명부전, 산신각, 용왕단, 종각, 약사여래상 15층
- 지하수 산수도 사용, 창고 2동, 화장실 2동, 심야 보일러 사용, 사찰 내 주차 20대 이상
- 대지 : 300평
- 국유지 : 480평(국유지 사용료 내고 있음)
- 가액 : 11억 5천만원

011-563-1545

사찰부지안내

- 임야 5천평
- 위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면
- 경관이 수려하고 명당 조건을 갖추었음
- 길, 물, 전기, 전화 모두 가능 2010년 개통되는 울산 KTX역사에서 25~30분거리에 위치함
- 가액: 평당 7만원

010-4714-8904

포교당안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북부동
- 법당(삼존불 외 호신불), 방2, 공양간 – 30평
- 보증금 500만원. 월35만원 시설비 1200만원

055)364-3525
010-4531-3525

토굴안내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 평수: 236평
- 임법당: 13평, 방2개, 주차장 넓음
- 스님 혼자 기도하시면서, 법회하실분 언제든지 걸망만 풀면 법회할 수 있음
- 가액: 7000만원

010-6357-5860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시 범일동시장 2층
- 약 50평, 삼존불, 신중단, 영가단 방3, 공안간, 욕실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45만원
- 시설비 1800만원 즉시법회가능
- 역학 및 보살님 최적지
- 유동인구 밀집지역

017-541-1140
051)631-2378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영천시 북안면
- 사용부지 6500평 실등기 5000평
- 법당 20평, 요사2동, 산신각, 실내외 화장실3개
- 가액 : 6억(절충가능)

011-816-9104
011-815-9104

포교당안내

- 위치 : 경남 양산시내
- 1층 25평
- 법당, 방, 주방, 샤워장, 화장실
- 가액: 전세 3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300만원
- 스님 즉시 법회
- 철학관도 가능

017-571-5599

토굴안내

- 산세가 아름다운 산자락 아래 조용한 수행처 (밀양 IC에서 10분거리)
- 위치: 밀양시 산외면 시곡리
- 평수: 대지 100평, 전 320평 건물 15평, (유실수 심어져 있음)
- 가액: 9천 5백만원

054)672-7357
010-5130-6137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시 수영구 수영동 (수영 팔도 시장내 동사무소 옆)
- 주차장, 2층, 신설법당 이동인구 밀집지역
- 평수 50평,방2개,화장실, 욕실, 큰 거실 모든 시설일체 완비. 집기 일체 양도

※주지스님 소임 관계로 급 양도함

- 법사,철학,무속,스님관계없음 몸만오시면 즉시 법회가능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에 월 35만원(시설비 1,600만원)

010-7145-4835

포교원(급)안내

- 위치: 대구 남구 대명
- 45평-법당20평, 방2, 사무실1, 공양간
- 가액-보증금 500만원, 월 60만(상권지역)
- 시설비 방문 후 절충가(최상급)
- 정기법회 즉시가능

묘터, 절터(급) 안내

- 군위군 고로면 650평
- 관리지역 평당 3만원

010-6557-7989

전원주택 · 토굴안내

- 위치 : 강원도 인제군 원통터미널에서 15분거리
- 총 1400평, 대지 300평, 건평 25평, 텃밭 1개
- 산중턱 황토집, 심야보일러
- 집근처 강이 흐르고 경치가 아주 좋고 , 조경 잘 되어 있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음
- 가액: 3억 3천만원

033)462-9734
016-337-9736

콩만한사찰안내합니다

- 위치 : 경남 의령군 부림면 감암리(용암사)
- 대지 면적 : 약 400평 건물 : 법당13평(목조기와) 요사채 : 신축건물(약30평) (평당300만원소요) 토목 및 옹벽 6천만원소요
- 가액 : 2억3천 이나 1 억5천 받으려고 합니다 (대출 5천 확신)
- 스님 부재로 운영곤란 하여 불사 하려고 합니다 의령에서 대구가는 국도(20번)변에 있습니다

011-9329-4241

포교당(급)안내

- 경남 김해시 어방동 인제대 부근 ●평수 : 50평
- 주변 : 대형아파트 다수. 경남일대. 포교 최적지 주변 유동인구 최다
- 5층건물에 4층 엘리베이터
- 법당, 방 2, 주방, 종무소, 내부화장실, 전체난방 에어컨설치
- 몸만 오셔도 법회 가능 / 모든 시설 일체(완비)
- 개인 종교법인 등록
- 보증금 2천만원(조정가능) / 월 50만원 시설비 : 절충가능

010-3834-8545
010-6739-6426

사찰(포교원)안내

- 위치 : 밀양시 무안면 땀 흘리는 표충비각에서 5분거리 국도변 위치 (교통편리 시내외 정류소 옆)
- 대지: 230평사용(등기 192평), 주차장 넓음
- 요사채: 적벽돌 슬라브 60평(2층증축가능) 최고급 원목 실내시설, 태양열 설치
- 법당 18평 1동(삼존불 및 후불 35평형 탱화)
- 가액: 2억 3천 8백만원 (은행융자 8000만원 포함)

010-8678-9575

사찰(포교원)안내

- 위치: 대구광역시 중구 시내 중심지
- 건물 70평, 4층(옥상 넓게 사용)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4500만원(시설완비)
- 특징: 시내 중심지이지만, 기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010-3131-1094

포교원안내

- 위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4층 건물의 2층
- 약 45평, 삼존불, 각단, 탱화, 산신, 영가단
- 즉시법회가능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 40 만원
- 시설비 답사후 절충

031)405-4181

암 자 안 내

- 위치 : 부산 진구 부암동 산세 좋은 곳 위치
- 평수: 17평, 2층건물 1층 요사채, 2층법당, 옥상 산신당해수관음전
- 복이 많은 해수관음기도 도량
- 비구니 스님(재가자)도 가능한도량입니다
- 인연있는 분의 전화 연락 기다립니다
- 가액: 6천 5백만원

011-877-5488

“더러운 곳에 머무는 자가 어찌 청정함을 알겠는가?”

<38> ‘용서정토문’의 왕일휴(王日休) 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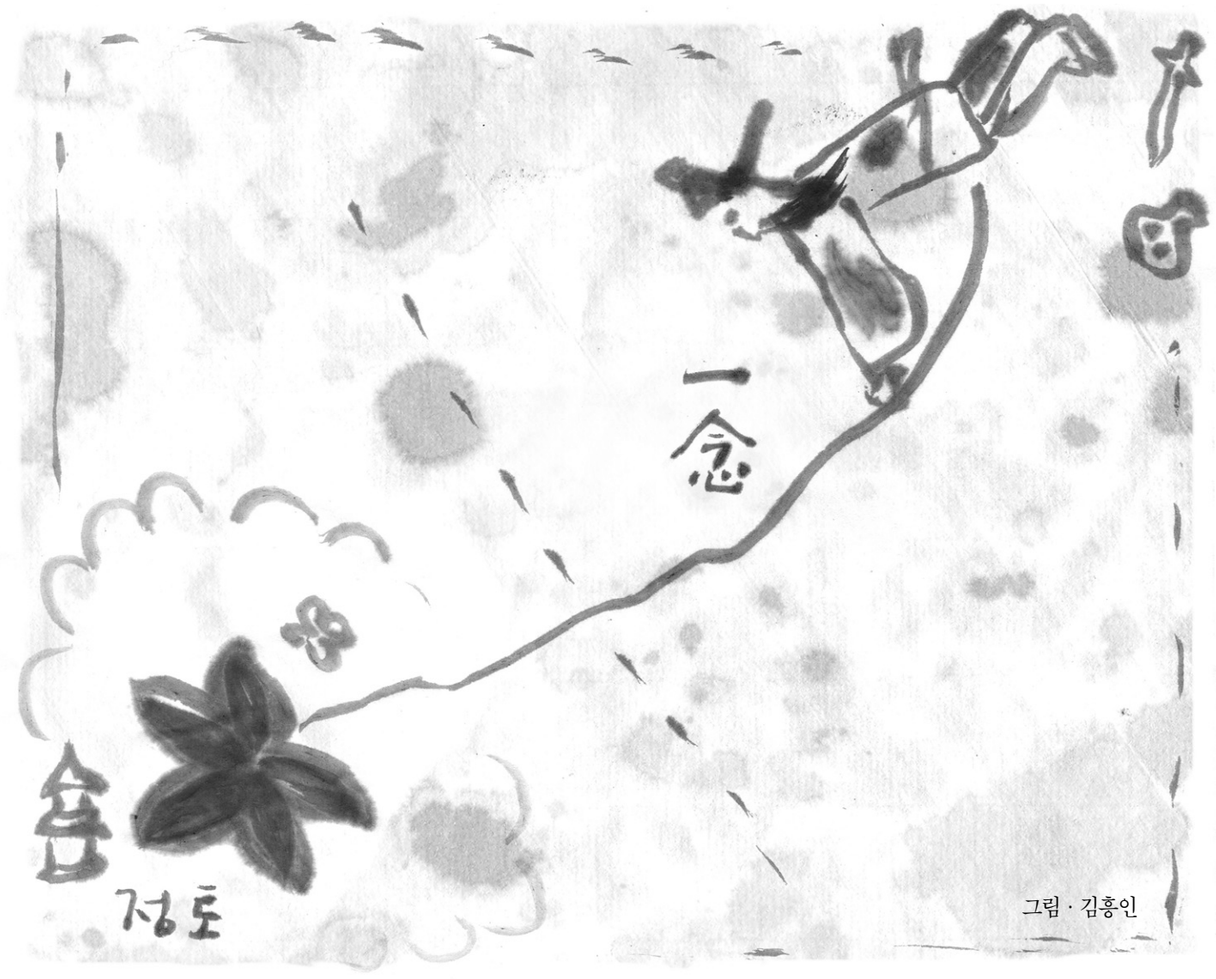


그림 · 김홍인

송대 불교는 남종(南宗)의 오가칠종(五家七宗)이 주류를 형성해 가히 ‘선학의 황금시대’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였다. 이러한 조사선의 기치 아래 한편으로는 정토(淨土) 사상이 민중으로부터 널리 유행했다. 이는 조사선의 사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선학에서는 사상적으로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갖춰져 있다는 ‘불성론’과 모든 중생이 본래 깨달아 있다는 ‘본각(本覺)’ 사상과 결합시키고, 나아가 도(道)의 무소부재(無所不在)를 강조한 노장사상과 일체(一體)를 이루면서 이른바 ‘자성(自性)’ ‘자심(自心)’이 ‘본래 온전하게 이뤄져 드러나 있음[本來現成]’을 완벽하게 논증했다. 이렇게 ‘본래현성’의 입장이 강조된다면, ‘지금 이 자리’가 바로 진리가 현현한 세계이고, 바로 ‘불국토(佛國土)’이다. ‘지금 이 자리’는 바로 ‘정토’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토’는 이른바 ‘유심정토(唯心淨土)’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비록 ‘본래현성’을 강조하고 ‘닦음이 없는 닦음[無修之修]’을 논한다고 해도 여전히 중생의 ‘어리석음[迷]’과 ‘깨달음[悟]’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오직 중생의 ‘마음’ 상태에 따라 ‘지금 이 자리’가 ‘정토’인지 아닌지가 결정된다는 입장인 것이다.

‘용서정토문’ 찬술 백정 · 거지 등에 정토 법문
정토사상 일반 민중에 더 없는 안식 제공

그러나 이러한 ‘정토’사상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왕일휴(?~1173) 거사이다. 그의 <용서정토문>(전12권, 본래 10권이었지만 거사의 입적 후, 후인들이 2권을 추가함. <대정장>47책 수록)은 바로 왕 거사의 사상을 집중적으로 강조한 저술이다.

장효상(張孝祥)의 <용서정토문 · 서(序)>와 연지주굉(蓮池袾宏)의 <왕생집(往生集)>, 팽정청의 <거사전>과 팽희속(彭希涑)의 <정토현성록(淨土賢聖錄)> 등에 거사의 일생이 간략히 소개돼 있다. 거사는 여주(廬州) 용서(龍舒)사람으로 자(字)는 허중(虛中)이다. 고종(高宗) 때에 진사(進士)에 급제했지만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다. 거사는 경사(經史)에 널리 통달했으나 “이것은 다 업습(業習)으로 구경법(究竟法)이 아니므로 나는 서방(西方)으로 귀의한다”며, 그 이후로 오로지 염불(念佛)에만 전념했다. 나이 60에 베옷과 소식(蔬食)을 하며 매일 1000배(拜)하는 것을 일과로 삼아 정진했다. 거사는 소흥(紹興) 30년(1160)에 <대아미타경>(2권, <대정장>12책 수록)을 편집했다. 이는 <무량청정평등각경(無量淸淨平等覺經)>(支婁迦讖譯), <무량수경(無量壽經)>(康僧鎧譯), <아미타경(阿彌陀經)>(支謙譯), <무량수장엄경(無量壽莊嚴經)>(法賢譯)의 4본을 종합해 3년에 걸쳐 교감한 것이다. 또한 소흥 신사(辛巳)년(1161)에 친구 집에 머물면서 <용서정토문>을 찬술했다. 거사는 사대부로부터 백정, 거지, 하인, 기녀에 이르기까지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정토법문에 귀의하도록 했다. 왕 거사는 아주 쉬운 말로 마치 아비가 자식을 가르치듯이 간곡하게 설명했다고 한다. 거사는 입적 3일전에 여러 도우(道友)들에게 작별을 고하며 힘써 정업(淨業)을 닦으라고 권했다. 입적 당일에는 후학들에게 평소와 다름없이 강의를 마치고 삼경에 이르러 갑자기 큰 소리로 “아미타불”을 수차례 외치고 “부처님께서 나를 맞으러 오셨구나!”라고 하고서 선 채로 입적했다.

이로부터 거사는 평생을 정토법문에 전념했음이 짐작된다. <용서정토문>에는 거사의 정토사상이 상세히 논술돼 있으므로 그를 통해 거사의 정토사상의 특질과 그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거사는 현실의 삶을 “모두 물거품과 같고, 생멸이 무상(無常)함”으로 파악하고 “일이 뜻에 맞을 때에도 진실로 괴로움일진대, 대부분은 뜻에 맞지 않을 때가 많다”라며 인생을 괴로움이 아님이 없는 것으로 표현했다. 이는 바로 정토법문의 출발점이다. 거사는 다시 육도윤회의 괴로움을 강조하고, 심지어 “비록 선업(善業)으로 천상과 인간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복보(福報)가 다하면 구업(舊業)으로 윤회하여 표류에 빠져 벗어날 기약이 없음”을 강조했다. 따라서 “오직 서방정토(西方淨土)가 있어 제일(第一)되게 윤회(輪廻)를 초탈하는 첩경(捷徑)이 된다”고 귀결시켰다.(<용서정토문> 권3)

거사의 정토사상은 당시 조사선에서 제시하는 ‘유심정토’와는 전혀 다른 각도로 접근하고 있다. 왕 거사의 정토사상은 철저히 ‘신앙’을 바탕으로 했다. 거사의 정토사상은 바로 아미타불과 서방정토에 대한 ‘기신(起信)’으로부터 출발했다. 이는 <용서정토문>의 제1권이 ‘정토기신(淨土起信)’ 9편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으로부터 충분히 짐작된다.

거사는 ‘정토’를 일반인들이 의심하는 이유를 “사람들이 갑자기 정토의 영상(影像)에 대해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없다. 대개의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에 구애돼 눈앞에 볼 수 없는 것을 말하면 물리칠 뿐이다. 누추하고 더러운 곳에 머무는 자가 어찌 넓고 청정함을 알겠는가?”라고 파악했다. 거사는 이러한 ‘불신’을 ‘기신’으로 전환하기 위해 경전을 인용하고, 또한 아주 세세하게 일상사에 빗대어 친절하게 설복하려 한다. 거사는 최종적으로 “이러한 까닭으로 정토의 설은 다시 의심할 것이 없다. 하물며 예로부터 지금까지 이를 수행해 감응한 자가 매우 많았다”(권1)라고 실례가 있음을 말했다. <용서정토문>의 제5권에서 ‘감응사적(感應事迹)’ 30편을 실어 설득의 근거를 마련하고, 제6권에서는 ‘특별히 권하여 깨우치게 함[特爲勸喩]’의 37편을 실어 정토사상에의 귀의를 유도했다.

거사는 자신의 정토사상에 확신을 갖고 선에서 말하는 ‘유심정토’가 비슷하지만 아닌 ‘사이비(似而非)’라고 했다. ‘유심정토’를 단지 ‘도리[理]’의 측면에서 봤기 때문이다. ‘자취[迹]’의 측면으로부터 본다면, ‘극락세계가 실로 있음’이고, 이것이 거사의 입장이다. 다시 말해 ‘유심정토’는 단지 이론에 지나지 않고, 실제적으로 성취할 수 없는 ‘이상(理想)’일 뿐이라는 비판이다. 거사가 비판하는 것은 바로 ‘오직 마음[唯心]’으로서 도달할 수 없는 고원(高遠)한 세계를 설정해여 ‘마음타령’을 했다는 것이다.

거사는 ‘극락세계가 실로 있음’에 대한 ‘믿음[信]’을 근간으로 해 “믿는다는 것은 일념(一念)이다. 만약 사람이 살아있는 때에 마음과 생각[心念]이 정토에 가고자 원하면 몸이 곧 감을 따른다”며 “일념(一念)이 정토에 있음에 필연코 정토에 태어남”(권1)을 강조했다. 이렇게 ‘심념’과 ‘일념’에 정토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하기만 한다면 “비록 죄악(罪惡)이 있음이나 또한 정토에 태어나지 못함이 없다”(권2)는 것이다. 거사는 또한 사람들에게 “불력(佛力)으로 능히 죄악을 소멸할 수 있고, 능히 정토에 왕생할 수 있음”(권3)을 가르쳤다. 이는 ‘자성자도(自性自度)’, ‘자심해탈(自心解脫)’을 강조하는 조사선과 역시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 하겠다.

거사의 ‘유심정토’에 대한 비판은 당시에 ‘염불정토’의 사상이 이미 어느 정도 기반을 획득한 것을 의미하고 있고, 또 한 측면으로는 조사선의 쇠퇴를 반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선정일치(禪淨一致)’의 사상적 흐름에도 점차 영향을 미쳤다. 한편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쉽게 수행할 수 있는 정토사상은 힘든 삶을 영위하는 일반 민중들에게 있어서는 더없는 ‘안식’을 찾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그러나 ‘칭명염불(稱名念佛)’의 유행은 점차로 중국불교가 사상적으로 통속화되는 경향을 나타나게 했다. 이러한 측면은 바로 왕일휴 거사와 <용서정토문>이 일으킨 중요한 작용이며, 중국 거사불교의 중요한 일면이다.

■ **김진무**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

불자정보 739호 |
TEL 02) 2004-8213(直) 732-1522
FAX 02) 737-0696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천안시 성정동 쌍용대로변 4층 건물 중 3층 전체
- 평수 : 70평(법당 30평, 방 2)
- 즉시 법회 가능
- 보증금 : 1천만원, 월88만원 시설비 2000만원(절충가능)

016-850-1208

사 찰 안 내
- 위치 : 익산시
- 법당 : 20평, 요사 30평
- 대지 : 150평
- 가액 : 9천 5백만원
- 인근 국가공단 100만평 한방특구공단 조성 착공 교통편리한 사통오달 포교적지

011-811-5466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울산시내 중심가
- 평수 : 약 45평(2층건물)
- 삼존불
- 가액: 보증금 1500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700만원(시설물 최상)
- 현재 법회중 꼭 하실 분만 연락주세요

010-4176-0772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강화군 내가면 바다 보이는 황청 포구 산밑
- 법당, 삼존불, 금사경호불, 신중 · 산신탱화, 방3, 거실, 화장실겸 욕실, 마당 넓은 텃밭
- 가액: 보증금 50만원 월15만원
- 시설비 1000만원(절충가능)

010-5719-6861

사찰 및 암자터 안내
- 위치 : 충남 공주시 정안면 차령산계곡 상류 도량이 깊음
- 1715평
- 가액 : 평당 5만5천원

010-4130-0606 (주인직접)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진해시
- 임법당: 20평, 대지 300평
- 요사채 별도 1동 , 주차장 화장실(현대식) 창고2 법당 및 기타시설 완비
- 몸만 오시면 됨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답사 후 절충

010-2570-9566
055)545-964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
- 대지140평, 텃밭 28평, 법당 25평
- 요사채 30평(방4), 스님방 1, 창고 大, 小 2개, 건물 90평정도
- 화장실 겸 샤워실2, 부엌겸 거실1 , 바깥큰부엌, 1, 마당까지 주차가능
- 가액: 1억 3천만원(절충가능)
- 꼭 필요하신 분만 전화요망

주지스님 건강 관계로 ‘급’양도

010-9466-1191

토 굴 안 내
- 위치 : 경기 양평
- 대지: 205평
- 건물: 56평(1층 33평, 2층 23평
- 황토방有, 6月초 신축완공)
- 뒷산 계곡 석축단장, 순수황토 벽돌 목조 기와지붕, 라운드형으로 예쁘고 웅장하게 잘 건축된 별장식
- 비구니스님 수행도량으로 적합하며 합의하여 조금 싸게 양도할 수 있음
- 가액 : 4억 3천

010-6438-3561

주지직인 무효공고

사찰명 : 법 흥 사
주 소 : 경북 예천군 풍양면 낙상2리 234

위 사찰의 주지 직인은
2009년 6월 17일자 이후로
사용된 것은 무효임을
공고합니다.

불기 2553년 7월 1일

재단법인 선학원 법 흥 사

스님! 빙의로 고통 받는 중생을 구해 주세요

전생 · 빙의 · 퇴마 · 최면치료

최면 시술사 과정 모집
- 교육 기간 _ 6주
- 모집 인원 _ 선착순 10명
- 교육 비용 _ 100만원
- 시간없으신 스님들을 위하여 2박 3일 실습위주로 교육 (hard training) 신분비밀보장, 숙식제공

★ 개인 특별지도 ★

스님이 직접 강의하고 스님들만 교육받는 유일한 곳
6주 24시간, 짧은 수련기간, 최면 시술사 완성이라는 문구에 “정말될까?”라고 반신반의 하면서 공부하셨던 100여분의 스님들이 전국 각처에서 활발하게 최면 시술을 하시며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보람과 자부심도 느끼신다 하셨습니다. “스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 무초 정락 합장

특별상담환영
http://www.yuma119.com

(사)유마 최면 연구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26-20번지 ☎032)349-0666
» 수련원 :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한운리 171번지 백련사 010-5100-6612

울퉁보살 불퉁거사 <52>

구성 : 김흥인



서른 여섯 개의 상자를 짊어진 신하 〈백유경(百喩經)〉



옛날 한 왕이 무우원(無憂園)에 들어가 즐겁게 놀기 위해 신하에게 말했다. "그대는 궤짝 하나를 들고 저 동산으로 가서, 내가 앉아 쉴 수 있게 하라." 신하는 남 보기에 창피스러워 들려고 하지 않고 왕에게 아뢰었다. "저는 들 수가 없습니다. 지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왕은 곧 서른 여섯 개의 궤짝을 그의 등에 지우고 그를 재촉해 동산으로 갔다.
범부들도 그와 같다. 여자의 털 하나가 땅에 떨어진 것을 보고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계율을 지킨다"고 하며 그것을 집으려 하지 않는다. 그러다 번뇌에 홀리어, 서른여섯 가지 물건, 즉 털, 손, 발톱, 이, 똥, 오줌 따위의 더러운 것도 더럽다 하지 않는다. 서른 여섯 가지 더러운 물건을 전부 붙잡고도 부끄러워하는 생각이 없이 죽을 때까지 놓지 않는다. 마치 어리석은 사람이 궤짝을 지는 것과도 같다.

옛 판화의 세계

용모가 샘이 솟아나게 하다 용모용천(龍母湧泉)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이 삽화는 당나라 때의 스님인 지장이 뱀과 전갈에 몸을 다쳐 선정에 들어있을 때 용모가 나타나 절을 하고 약을 선물하면서 자식이 무지해서 저지른 일임을 사과하고 샘이 솟게 하여 허물을 참회하는 장면을 판각한 작품이다. 지장(地藏) 스님은 신라의 왕자 출신으로 24세에 출가했다. 중국에 건너가 각지를 돌며 구도생활을 하다가 양쯔강(揚子江) 남쪽 구화산(九華山)에 화성사(化城寺)를 짓고 불법을 전파했다. 명성이 높아져 중국 각지는 물론 신라에서까지 불법을 들으러 옴으로써 구화산은 불교의 성지가 됐다. 794년 99세의 나이로 제자들을 모아놓고 참선 중 입적했다. 3년이 지나도록 시신이 썩지 않아 등신불이 됐는데, 아직도 구화산 육신보전에 그의 등신불이 봉안돼 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구화산에서 수행하던 중 뱀과 전갈 때문에 몸을 다쳐 단정히 앉아 무념의 경지에 들어갔다. 어느 날 갑자기 한 아름다운 부인이 나타나 절을 하고 약을 선물하면서 말했다. '어린아이가 무지해서 저지른 일이니 원컨대 샘이 솟아나게 해 허물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말이 끝나자 보이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가 앉아 있는 좌우를 살펴보니 바위 사이에서 단 샘이 솟아 나왔다. 또한 본국인 신라에서도 소식을 듣고 바다를 건너서 서로 찾아오고 그 문도 또한 많아서 한 해를 넘길 자량을 구할 길이 없었다. 이에 지장 스님은 곧 바위를 발굴해 그 속에서 흙을 얻었는데 그 빛깔이 맑고 하얗고 빻지 않아도 국수와 같아서 대중들과 함께 그것을 먹었다. 그곳 대중들은 법을 듣는 것으로 정신을 돕고, 음식으로 목숨을 보양하지 않게 돼 그를 종사로 우러러보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우리에게 김교각 지장보살로 잘 알려진 지장 스님의 신통력은 본문보다 더 많은 내용들이 알려져 있다. 중국에서는 시신이 썩지 않는 등신불이 열한 분 나타나셨는데 지장 스님이 중국 최초의 등신불이 되신 분으로 지장보살의 화신으로 추앙받고 있다. 석가모니부처님이 전 세계에 인도를 가장 빛낸 분이듯이 우리나라 사람으로 태어나 전 인류의 4분 1인 중국 사람들이 지장보살 성인으로 받들고 있는 김교각 스님이 우리나라를 세계에 가장 많이 알린 인물일 것이다. 우리는 이 점을 조명해 불교포교사를 더욱 풍성하게 할 필요가 있다.

선학 스님(명주사 고판화박물관장)

詩가 있는 도량

어느 질곡을 거쳐
예까지 왔나

천년을 삭인
눈물

종지에 너울대는
의자왕과
궁녀들의 옷자락

▪ 고란사 약수

무수한 칼날과 죽음
아우성
목탁소리

한모금 한모금
청량하게 가슴으로 떨어지는
슬픈 풍경소리

–강연/신작 시집〈넌 이미 꽃이다〉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 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제 739 호 현대불교
2009년 7월 8일(음 윤5월 16일) 수요일 / 불기 2553년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살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죽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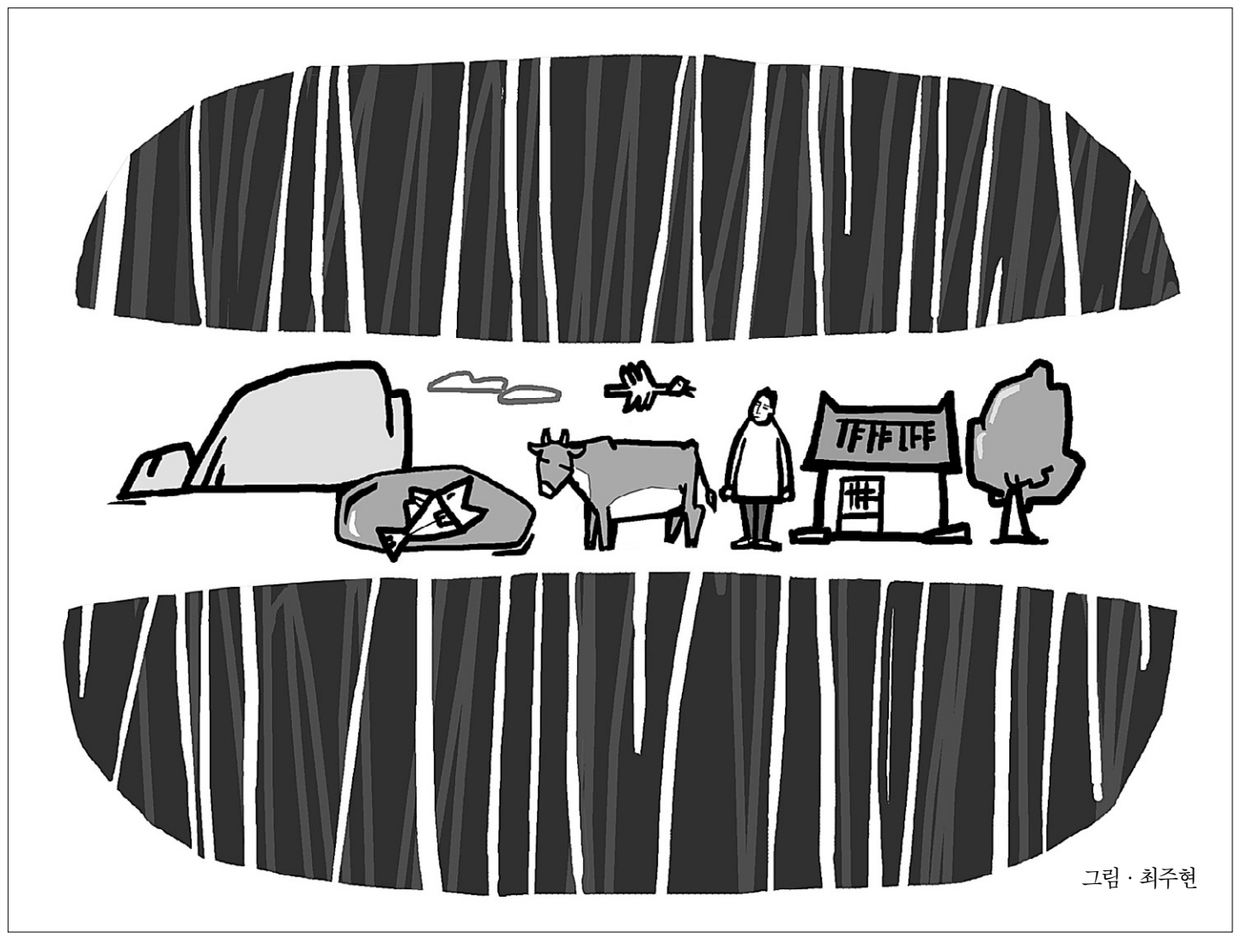
(지난 호에 이어서)

큰스님: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 처음에는 윗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아래까지 잘못 끼워진 거죠. 그 반면에 뉘우치고 단추를 빼서 다시 끼웠기 때문에 이제는 방향이 올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어떠한 문제도 개의치 마시고 하늘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눈도 깜짝거리지 말고 지금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진행해서 나가신다면, 살면서 남한테 꾸러 다니지도 않을 겁니다, 아마. 그것이 바로 여여한 것이지 뭡니까. 이 모두가 여여하게 살 거를 그렇게 복잡다단하게 괴롭게 살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놓고 살아라. 너는 죽어야 너를 본다.'고 했죠. 하하하….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살아서 죽는 걸 알아야지 죽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죽는 건 열반이 아니고 살아서 죽어야 진정한 열반이에요.

그럼 벌써 과거 미래 현재를, 삼세가 벌써 공(空)해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공법으로 다 그냥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여여해요, 얼마나 편안하고. 그리고 얕은 사랑보다도 깊은 자비가 샘솟듯 한단 말입니다. 가정에도 그렇고 모든 걸 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말 한 마디를 하나, 또 행을 하나, 그냥 생각을 하나 이게 법이 돼서 그냥 보시가 돼야지 물질로 조금 보시했다는 생색을 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벌써 반은 내가 욕심이 있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값어치가 나한테 올 리가 없죠. 외려 욕심으로 그걸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딸려 들어오는 악의적인 문제들이 거푸거푸 생기는 거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다고요.

그러니 여러분이 모두 편안하게 사시라고 해서 그냥 몸뚱이를 편안하게 두라는 게 아니라 마음을 편안하게 두고 뛰는 거는 뛰셔야 건강도 하고 또 그게 뛰되 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뛰는 사이 없이 뛰는 거죠. 우리가 마음으로 뛰는 거는 발자취가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몸으로 뛰는 건 발자국이 남습니다. 오늘 꽤 길게 말씀을 하셨지만 오히려 공부하는 사람들의 지침이 되게끔 참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1(남):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스님 법문 테이프를 가지고 비닐하우스에서 식물을 기르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 식물을 기르면서 스님 법문 테이프를 틀어 놨더니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식물의 성장이 훨씬 빨랐고 수확이 좋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님의 말씀 중에 있는 음파에는 에너지 파동이 실려 있어서 그것이 그대로, 식물은


그림 · 최주현

식(識)이 옅으니까 그대로 전달돼서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당연한 결과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그 식이 아무래도 복잡하니까 비록 그렇게 들어오더라도 효과가 좀 늦게 나타나지 않겠느냐 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스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파는 분명히 정신 에너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나타난 것은 물질 에너지적인 힘으로도 나타났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인간이 식물보다는 고등 동물로서의 가치가 있으려면 누진(漏盡)으로써 그러한 음파를, 그 에너지원을 스님이 사용하시는 그 에너지 바다에 그대로 같이 공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음파를 발생시켜야 되겠는데 스님처럼 그렇게 되기는 지금으로서는 감히 바라지 못하겠고요, 스님과 저희들 중세계의 중간쯤에 있는 중상(中上)세계의 생명체들은 이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가르쳐 주시면, 제가 발명가거든요. 좀 적용을 해 보고 싶습니다.

큰스님: 내가 애당초에 말하고 싶었던 것도 거기에 개재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마음을 공부하면서 어떠한 마음을 내고 또 생각하고 행하고 이러는 것이 그대로 에너지가 발생됩니다, 음파로써 발생됩니다. 그래서 우주의 근본도 우리의 마음의 근본에 직결이 돼 있고 만물만생하고도 가설이 돼 있다 이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공부하고 나가는 이 법도, 이게 평등공법에 의한 음파니까 음파가 전부 나갑니다. 그래서 아까 그 학교 애들 얘기 한 것도 그러한 생각에서 한 번이라도 '이러한 것이 없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한다면 달라지죠. 왜냐하면 애들은 정신계의 이 모든 걸 모르고 물질계로만 치닫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정신계의 음파, 정신계의 법, 공법, 그것을 음파로다가 펼쳐서 모든 사람들한테 정신계의 이미지를 넣어 준다면 세상이 달라질 거 아니겠나,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만 듣는 게 아니라 하다못해 미생물에까지도 음파가 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연구하기 위해서도 해 봐야 되는 거다 이 소립니다. 자기가 어떠한 과정에서 쓸 수 있는가,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떤 분야에서 이날까지 살아왔던가. 그럼 산 것대로 거기서 어떠한 지혜가 생기고 그랬을 때 '아, 이런 걸 가지고 이런 거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 보시기도 하고요. 이 공법의 음파는 어디든지 적용됩니다.

질문자1(남):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했다고 한 모든 것은 모두 놓아 버리고 오로지 못다한 사랑만 생각하면서 저의 참사람을 향해서 끝없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스님: 예. 그리고 생활을 할 때에 내가 나를 버린다고 해서 생활을 버리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외려 더 끔찍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생기는 거죠.

질문자2(남): 스님, 감사합니다. 항상 마음을 밝혀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는 스님 모습을 뵈면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스님께 회향법에 대해서 질문드릴까 합니다.

저희가 항상 어떤 행위를 했을 때나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분명히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는데 저는 부처님께 회향하고 또 큰스님께 회향하고 모든 스님께 회향한다고 이렇게 항상 마음을 냈었거든요. 그런데 뭔가 분명히 아쉬웠던 것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랬더니 진짜 본연의 자기 자신한테는 회향하지 않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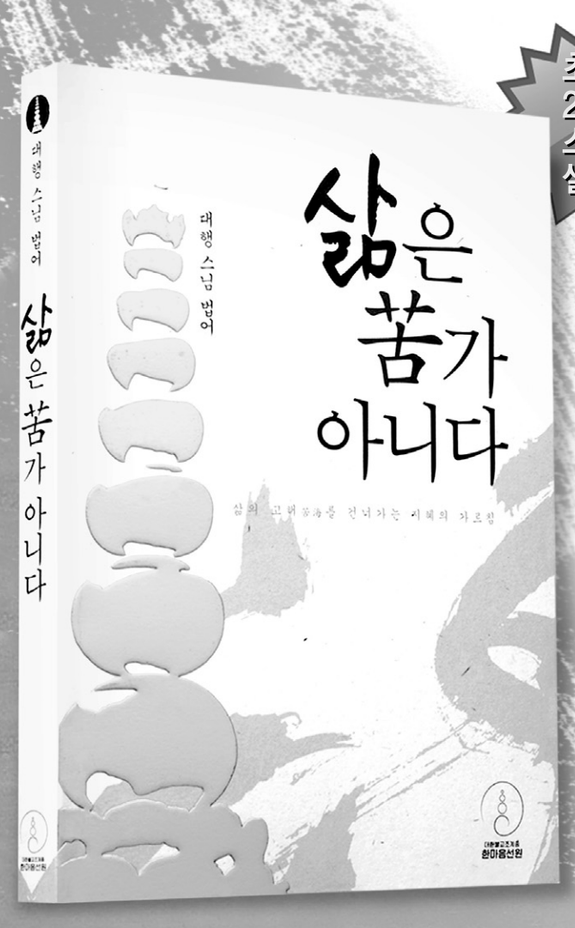
큰스님: 하하하….

질문자2(남): 일단 부처님과 스님한테 생각과 말로만 회향했던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 자신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일들은 발생했던 것이고 모든 일들은 성사됐던 것인데 진짜 자신한테는 회향할 줄 모르고 더불어서 이렇게 부처님과 스님께 생각과 말로만 했다는 생각이 들기에 어느 땐가 '너 자신이 행한 모든 일들은 너로 인해서 벌어졌던 것이고 너로 인해서 발생됐던 것이니까 네 자신에게 진정으로 회향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로 돌아갈 텐데….' 이런 생각이 들기에 감히 스님께 질문드립니다.

큰스님: 아유, 잘 생각했어요. 정말이지…, 보세요. 자기가 똥 누고 자기가 밑을 씻고 '아이구, 시원하다.' 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스님이 거기 왜 끼어들어 갑니까, 네?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들이 모두 '부처님 부처님' 하다 보니까 자기는 그냥 망쳐지고 말았죠. 부처님이 대신 똥 눠 줘요? 회향이란 것도 다른 게 아니에요. 조그맣든 크든,

☞26면으로 계속

초판 22쇄의 스테디 셀러!!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삶은 고가 아니다

길을 묻는 이들에게 전하는 대행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anmaum.org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 • 법어 • 게송 • 선화의 집대성
▶신행요전 (법요집)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금강경 (독송용)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천수경 (한글/영어)

buddhanews.com

모든 거 닥치는 대로 부딪치는 대로 근본에다 놓아야

☞25면에서 계속

내가 똥 누고 밑을 깨끗하게 씻는 것도 회향이에요. 밥을 먹고 소화가 잘된 것도 회향이에요. 크고 작은 게 따로 없어요. 일을 하고 아주 잘 정돈하고 줄 거 주고 빚진 거 없이, 고마움을 그저 고맙다고 해서 끝을 맺고 이러는 게 바로 회향이죠.

그래서 부모에게 제사를 지내고도 그 은혜를 바깥으로 돌릴 게 아니라 그 은혜를 갚게 해 준 주인공한테 감사하고 모든 것을 내 주인공에 놓아야죠. 체가 없는 영령의 조상들이니까 자기 주인공에 한자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종자가 이 허공 안에 꽉 찼다 하더라도 바로 한 종자지 두 종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군데다가 하면 다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스님네들을 불렀는데 당신 주인공에다 하면 내 주인공도 둘이 아닌 까닭에 전부 회향이 되는 거죠. 스님은 빼놓고 회향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더불어 일체제불까지요.

질문자2(남): 진정으로 제 자신에게 회향을 하니까 더불어 스님께 진정한 존경심이 생기기에 제가 이렇게 질문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스님께서 설산에 대해 설명해 주신 그 마음법을 저희가 따르지 못하기에, 예를 들어서 같이 공부하는 도반이 됐든 동료가 됐든 간에 그분들이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든지 집에서 수행하고 계실 때 저희가 굳이 찾아서 격려할 필요가 뭐 있나 이런 생각을 간혹 가질 때가 있거든요. 전에는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으니까요. '굳이 쫓아가면서까지 할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마음으로 돌려 주면 되는데….' 하고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이 메말라지고 우리가 갈 수 없을 때는 불가피하게 그렇게 해야 되지만 찾아갈 수 있다면 정도 주고 정담도 나누고 마음도 서로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마음으로 하면 되지 꼭 쫓아가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분분한 생각들이 오고 가기에 스님께 질문 또 드립니다.

큰스님: 그런데요, 그러기에 물질세계와 정신세계를 같이 저울에 달아도 기울지도 틀지도 않아야 된다 이런 말이죠. 당신이 가야 그쪽도 당신이 온 줄 알죠?

질문자2(남):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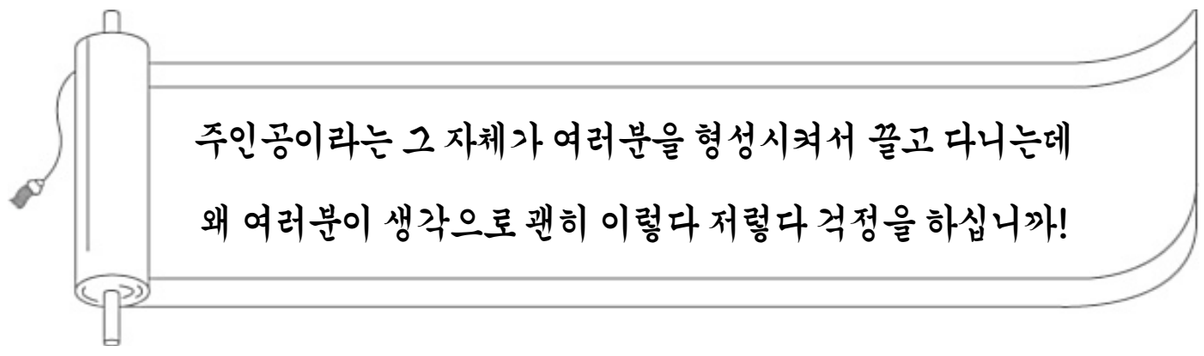
큰스님: 예, 온 줄 아는 그 만남이, (양 손가락 끝을 서로 붙여 보이시며) 전깃줄과 전깃줄이 같이 붙어서 불이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쪽에서 도통을 해서 드러누워 있다면 왜 당신이 가고 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만나야 마음이 붙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세계도 버려서 되는 게 아니고, 즉 말하자면 육신을 버리면 공부 못 해요. 육신도 소중하고, 정신계로 인해서 육신이 생긴 거니까 둘이 아니다. 이건 콤비다. 정신계로 인해서 육신이 형성됐고, 형성된 자체를 끌고 다니는 정신계의 주인공이 바로 콤비가 돼서 돌아가는 그 이치를 아시면 그대로 그냥, 그대로 아주 '왔다' 예요. 하하하…. 속된 말로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부처님을 모셔 놨으니까 '아이구, 부처님은 나보다 더 귀중하고 나보다 더 위대하지.' 이러지만요, 부처님을 저렇게 겉에다가 내놓고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마음속에다가 아주 모시고 다니거든요. 가죽 속에다 넣고 다니지 왜 바깥으로 들고 다니느냐고 원효 대사가 말했듯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으면 배우질 못하니까 방편으로다가 해서 이끌어 가면서 마음을 깨우쳐 주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자기를 절하게 해서 겸손하게 만들기 위한 방편이기도 해요. 여러 가지 가지요.

질문자2(남): 감사합니다.

큰스님: 어, 지금 보니까 모두 공부들 잘하고 계신데요. 정말 첨단의 원리까지 아시겠어요, 이제. 허허허….

질문자3(남): 큰스님, 멀리 미국까지 여행하시



고 피곤하신데도 저희들을 위해서 법회를 열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대구지원에서 왔습니다. 큰스님께서는 항상 법문에서 유(有)의 법과 무(無)의 법을, 양면을 다 놓으라고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계가 올 때마다 양면을 다 놓고 나갑니다마는 항상 유의 법 쪽에서, 물질세계에서 큰 경계가 밀려옵니다. 이 경계를 약 2년간 정면 돌파를 해 왔습니다.

지금도 또 큰 경계가 아직도 해결 안된 게 있지만 저는 죽었으면 죽었지 물러날 마음은 손톱만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양면을 다 놓고 나가는 데는 생명까지, 생사까지 다 놓는 것이 그 양면을 놓는 열쇠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맞는지 그걸 묻고 싶고요.

그리고 놓고 지켜보는데 지켜보는 기간이 짧게 해결되는 것도 있고 또 길게는 1년 2년, 몇 년 가는 것도 있을 줄 압니다. 지켜볼 때는 화두를 놓치지 않고 지켜보는지요, 안 그러면 해결될 때까지 계속 관(觀)해야 되는지요. 그것도 여쭙고 싶습니다.

큰스님: 지켜보는 놈이 있고 하는 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켜볼 것도 없죠. 진짜로 믿는다면 지켜볼 것도 없어요. 그리고 정신계와 물질계가 콤비가 돼서 돌아가는데 뭘, 정신계니 물질계니 이유가 거기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모든 거 닥치는 대로, 부딪치는 대로 거기다가 놓으라는 얘기죠. 거기다 일임을 하시면 그대로 반영됩니다. 그대로 정신계에서 물질계로 나오듯이, 우리가 솥에 쌀을 넣으니까 그냥 익어 나오더라, 이런 거와 같이 말입니다.

질문자3(남): 예. 그런데 병고라든지 제 몸이나 주위의 식구들 몸 또는 아는 사람들은 놓고 맡기고 관하면 잘 통합니다. 그런데 이 물질세계에 얽혀 있는 큰 경계 같은 거는 시일이 흐르기 때문에 그게 힘들고 그렇습니다.

큰스님: 그런 것도 생각지 마세요. 물질세계에서 어떤 것이 걸리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죽든 아무 참견을 마세요. 주인공이라는 그 자체가 댁을 형성시켜서 끌고 다니는데 왜 댁이 생각으로 괜히 이렇다 저렇다 하고 걱정을 해야 합니까? 죽이든 살리든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건데, 그리고 따로 있는 것도 아닌데요.

질문자3(남): 그렇게 생사를 놓고 나가면 그것이 맞는 방법입니까?

큰스님: 네, 맞는 방법이죠.

질문자3(남): 감사합니다.

큰스님: 그래서 이 도리를 알면요, 차를 타면 '아휴, 내가 이거 사고 나면 어쩌나.' 또 어디가 아프면 '이거 나쁜 병에 걸리지나 않았나. 자식들 두고서 내가 죽는 게 아닌가.' 하는 고달픔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이런 게 있죠.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살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죽는다.' 이런 게 있죠. 외아들이 왜 빨리 죽는 줄 아십니까? 하하하….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죽을까 봐, 놓으면 꺼질까 봐 애를 쓰고 그러니까 빨리 죽는 겁니다.

질문자4(남): 큰스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6월 30일에 공군 제대하고 새로 직장을 다니게 된 법우입니다. 그동안 진주 청년회에 나가고 있었습니다. 큰스님께서도 6월에 미국 다녀오시고 저는 이제 공군 제대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기분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큰스님: 뭐라고 했는지 난 끄트머리에 잘 안 알아들렸는데….

질문자4(남): 예. 제가 군에서 제대하고 직장을 새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총각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남자들이 보면 머리카락이 많이 빠집니다. 저는 참 머리숱이 많았는데 요즘 거울을 보면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서 이거 장가가는 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아닌 게 아니라 약간 신경이 쓰여서요. 한번 맡겨 보자, 관해 보면 다시 나는 도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큰스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큰스님: 그래서 내가 뭐랬습니까? 일거수일투족이 다 그놈이 하는 거니까 그놈한테다 놔라. 이걸 일일이 하나하나 얘기해 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리죠. '그래, 머리털이 빠지면 장가도 못 들잖아. 너, 빠지지 않게 하는 것도 너야.' 하고서 그냥 거기다가 놓으란 말입니다. 생각날 때마다 그렇게 놓으세요. 그럼 오히려 숱이 많아질 수도 있죠.

질문자4(남): 스님, 감사합니다. 계속 정진하겠습니다.

큰스님: 하하하…. 그러니까 한 가지만 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방팔방, 만법을 그대로 움죽거릴 수 있는 원동력을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 이 소립니다. 여러분이 그 에너지를 꺼내 쓰는데 '이런 데다 쓸 것인가 저런 데다 쓸 것인가. 어떤 차원에 쓸 것인가. 어느 때 어느 용도에다가 쓸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에너지는 크게도 쓸 수 있고 작게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허공에도 꽉 차 있고 내 마음 그 줄에 따라서 전부 연결이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죠. 이 도리를 알면 짊어지고 다니지 않아도 내가 쓸 때에 그냥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내가 살 때 마음대로 살 수 있고, 사는 날까지 내가 옷을 새로, 신식으로 바꿔서 입겠다 하지 않는 이상에는 좀 오래도 살 수 있고요. 또 너무 못쓰게 되면 좀 바꿔 입어야겠다 하는 생각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꿔 입는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화(化)해서 다른 상세계에 어떠한…, 정말 필사적으로 이 세상을 다 바꿔 놓을 수 있을 정도의 원력을 가지고, 즉 말하자면, 상세계에서 비행접시를 타고 자기 마음대로 자유자재하듯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죠. '비행접시에는 뭐, 생명이 없나?' 하지만 말이에요. 생명 없이 있는 게 있나요? 하지만 내 마음이 차원이 높아질수록 달라지니까 내가 미리 모습을 이렇게 가지고 나와야겠다, 저렇게 가지고 나와야겠다 하지 마세요. 정말 옷을 벗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들면 그 생각으로써 그냥 그냥, 생각했던 그 자체가 그냥이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어떠한 거를 마음으로 연구를 했는데 물질세계에 그대로 나왔다.' 이런 거 좀 연구들 안 해 보시렵니까? 우리 연구팀들도 그렇지마는 사사로이 사는 분들도 다 연구팀이다 이 소립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사회 속에서, 이 우주 속에서, 어떠한 거를 파악하고 생각하는 것도 연구니까요. 연구가 뭐 별다로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요.

오늘 가만히 앉아서 테레비를 보다가 무슨 생각이 떠올랐느냐 하면 '야 참, 귀찮기도 무척 귀찮겠다.' 하하하…. '저렇게 해서 수없는 나날을 가도 저거는 도무지 할 수가 없는데, 조금이라도 알고 간다면 좀 귀찮은 거를 면할 수 있을 텐데…. 한마음 도리를 알아야만 할 수 있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번연히 듣는데도 아무것도 그냥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소용없는 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정신 차리셔서 우리가 조그만 거든지 큰 거든지, 이건 조그마한 것도 큰 것으로 할 수 있고, 큰 것도 조그맣게 할 수 있고 마음대로 자유자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나치게 말을 하다 보면 또 역효과가 날까 봐 말 안 합니다. (합장하시며)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대기설법으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 도가 어떤 것인지…. 구정물도 도예요. 구정물에 빠지는 것도 도고 하나 버릴 게 없는 것이 도예요. 버릴 게 없는 것이 도고 다 버리는 게 도이니 두 가지가 다, 양면이 다 버릴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버릴 게 없는 것을 다 버리고 나면 버릴 것도 없고 가질 것도 없고 그냥 내가 자유자재권을 얻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다 해 보시면 아시게 돼요, 뭐 나한테 다시 묻지 않아도요.

※위 법문은 1997년 7월 6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스님!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단돈 70만원에 법당의 오래된 엠프
마이크 소리를 "확" 바꿔드립니다!!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앰프+마이크,스피커+마이크 등의 교체 및 재 셋팅〕
예약접수기간 : 2009년 6월 ~ 8월 31일까지
(예약순으로 일주일에 법당 2곳만 설치해 드림)
해 당 지 역 : 서울, 경기, 충청, 강원 일부 지역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일절
• 앰프 성능 보완, 클리닉
• 각종 마이크 주문제작, 판매
• 특수 스피커 주문제작, 판매
300AN
2Channel Stereo Mixing Amplifier
DX-707 스텐드 마이크는 1개만 사용해도
법당의 소리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흡음력, 음질 보장
•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DX-707 스텐드 마이크
◇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법당전용스피커
◇ 가격 : 500,000원 (설치비 포함)
◆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高音質 무선마이크
◇ 가격
1인용 보급형 : 220,000원
1인용 고급형 : 580,000원
2인용 보급형 : 480,000원
2인용 고급형 : 680,000원
일반 마이크 V-606LC
◇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고성능 탁상 마이크
◇ 가격 : 135,000원 (택배비 포함)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연 락 처
부산지사	오 세 룡	051)632-0064 / 011-847-1211
대구지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6-813-8008
충청지사	혜철스님	043)732-5560 / 010-9422-8453
경남 동부지사	혜봉스님	055)353-1196 / 017-650-1196
경남 서부지사	영민스님	055)355-7472 / 011-9312-2228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384-3009 / 016-629-1508
전북지사	조 동 제	063)910-8977 / 011-9642-7733
영주지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1-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불자 세상보기

이 우 상
소설가, 동국대 문창과 겸임교수

조선왕릉, 세계의 왕릉 된 까닭

2009년 6월27일 새벽, 스페인 세비야에서 기쁜 소식이 날아왔다. 제33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조선왕릉 40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확정했다는 뉴스였다. 유산등재는 그 민족의 역사와 문화가 인류공영의 가치를 지녔다는 인증이다. 대단한 영예다. 세계문화유산은 문화올림픽이다. 조선왕릉은 한꺼번에 금메달을 40개나 땄다. 국가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관광자원으로 세계인의 주목을 받는 부가가치가 따른다.

지난 몇 년간 조선왕릉들을 답사하고 그것을 책으로 엮어 출간한지 며칠 만에 세계유산으로 지정됐다니 감회가 남다르다. 북한 소재 2기(1대 태조 원비 신의왕후의 제릉, 2대 정종과 정안왕후의 후릉)는 아예 신청조차 하지 못했다. 분단의 아픔이다. 연산군묘, 광해군묘도 신청에서 제외됐다. 서러운 업보다.

왕릉 순례를 하면서 사색한 것은 죽음이다. 죽음 앞에선 누구나 숙연해진다. 특히 공인(公人)의 죽음은 많은 것을 생각케 한다. 왕은 권력의 정점에 있는 공인 중의 공인이다. 그래서 그들은 죽어도 죽지 못한다. 육신은 소멸되었으나 행장은 불멸이다.

잊혀지기를 원해도 잊혀질 수 없는 시퍼런 역사로 살아 있다. 피를 동반한 야심과 패기로 권좌에 올랐든, 얼김에 떠밀려 왕이 되었든, 불멸의 이름으로 높다란 봉분 이불 아래 누워있다.

왕릉순례는 '죽음과 역사'라는 두 가지 화두와의 만남이다. 조선왕릉은 조선왕조 500년의 타임캡슐이다. 단종의 장릉(영월 소재)을 제외하고 경복궁을 중심으로 100리 안에 있다. 왕이 하루 만에 참배를 다녀올 수 있는 거리에 능역을 조성했기 때문이다. 후손들에게 남긴 최고의 선물이다. 역사는 살아있는 교훈이자 화해의 축제다. 500년 조선의 역사를 폐기된 역사책이 아닌 생생한 역사로 증언하고 있는 것이 왕릉이다. 말없는 무덤은 '길 없는 길, 문 없는 문'이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다. 한 왕조가 500년 간 지속되었고 재위한 왕과 왕비의 능이 온전히 보존되어 있는 사례는 세계사에서 조선왕릉이 유일하다.

왕릉순례를 하면서 건진 결론은, '최상의 법문은 죽음이다'라는 것이다. 이승의 번잡한 논란을 잠재우는 것이 죽음이다. 분분한 논란의 중심에 있던 노무현 전 대통령도 최상의 법문을 던지자 '공소권 없음'이 되었다. 죽음이 최상의 법문이면, 법문의 내용은 무엇인가. 자비다. 화해와 용서다. 죽음 앞엔 모두가 평등하다. 죽음을 생각하며 사는 삶은 겸손하다. 비록 우리가 유명세를 타는 공인이 아니지만 가슴 가장 중요한 자리에 겸손을 품고 살아야할 것이다.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 공기처럼 세상에 그윽하면 불신과 갈등, 적의(敵意)의 창날은 녹아내릴 것이다.

문화유산 등재 후에는 할 일이 많다. 우리만의 유산이 아니라 세계인의 유산으로 격상되었다. 국제 사회의 보호와 감시를 받게 된다. 보호라는 명목으로 우리에게 멀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500년 역사의 타임캡슐인 조선왕릉을 눈과 귀, 몸으로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 영광이든 치욕이든 역사만큼 큰 스승은 없다.

타임캡슐을 보호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철조망을 치면 보호는 된다. 그러나 그것은 역사를 감금하는 행위다. 펼쳐서 보여주고 느끼게 해야 한다. 왕릉에 가면 천편일률적인 안내문이 있다. 생물연대, 가족관계, 간단한 약력이 전부다. 도무지 눈길 끌 수 없는 안내판이다. 다양한 사연과 치적을 들려줘야 한다. 스토리가 있는 왕릉이 되어야 한다. 앞으로 문화재청은 환희심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 청포도가 익어가는 7월, 세종대왕의 영릉에도 한이 많은 장릉(단종), 사릉(단종비 정순왕후)에도 푸른 잔디가 공평하게 눈부시다.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저출산 극복 인식변화가 우선

2008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여성 1인당 평균 출산율은 1.19명. 전 해인 2007년에 비해 0.6명이 줄어든 수치다. 이미 그 전부터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대두 됐지만 평균 수치는 오히려 내려갔다는 얘기다.

우리나라의 저출산화에는 많은 요인이 있다. 경제구조와 교육환경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무엇보다 의식의 변화를 이끌어 낼 정책의 부재도 저출산율 심화의 중요한 원인으로 보인다. 불자들의 인식은 어떨까? 구체적인 조사결과는 없지만 종교적 특성에 비추어볼 때 불자들 역시 출산기피 현상에서 예외는 아닐 것이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불교인을 위한 저출산 인식개선 교육에 나섰다. 환영할 일이다. 정부가 최근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를 발족하고 전국 지역을 대상으로 조직을 확대해 나가는 것과 때맞춰 의식교육에 앞장선다는 것은 불교다운 일이다. 이 교육 사업을 위해 제작된 교재는 저출산 국가로서 우리나라가 처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 잘 드러나 있다.

국민들의 의식과 사회 환경은 출산장려 정책보다 훨씬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불교계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시작했다는 것은 국민 의식 변화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출산 극복의 묘약, 인식의 변화가 먼저이기 때문이다.

충담 스님의 원력 확산되길

11년 전 6월 27일 이른 아침, 경기도 가평 호명산 감로사 앞 숲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예사 연기가 아니었다. 감로사를 중창한 충담 스님이 스스로 소신공양을 하는 연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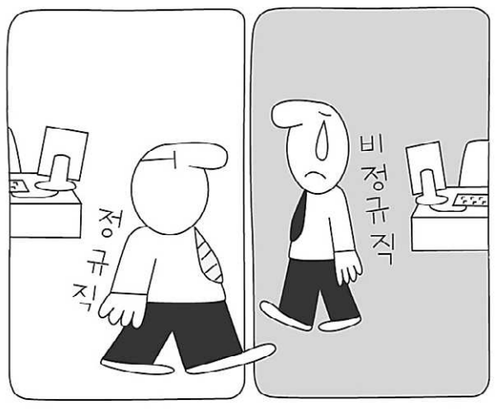
소신공양이란 글자 그대로 온 몸을 태워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이다. 보통의 신심과 원력, 수행력으로는 엄두도 못 낼 일이다. 그런데 충담 스님은 늘 "나는 소신공양 한다"고 말했고 그 원력이 얼마나 단단한지 주변에서도 말릴 수가 없었다.

충담 스님의 소신공양은 간절한 발원을 담고 있었다. 남북의 평화로운 통일과 모든 중생들의 행복, 승단을 포함한 불교계의 화합 등이었다. 충담 스님은 이 비원을 부처님 전에 바치고 몸에 불을 댕겼다. 그 거룩한 공양에 앞서 <정토삼부경>을 펴내기도 했다. 스님의 말년은 철저하게 소신공양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던 것이다.

감로사는 충담 스님의 열반 11주기 법회를 갖고 감로사 성역화 계획을 내놓았다. 마땅히 해야 할 불사다. 이 불사를 통해 충담 스님의 발원이 모든 불자들에게 확산되고, 불자들도 충담 스님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

간절함이 없으면 수행도 기도도 이룰 수 없다. 뼈에 사무치는 원력이 아니고는 이루어지는 불사도 없다. 충담 스님이 부처님 전에 공양 올렸던 대승적인 발원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정착시키는 일과 무관하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불사를 진행 할 감로사는 충담 스님의 소신공양이 갖는 의미를 세상에 널리 알려야 할 것이다.

현불만평 박구원



입장 바꿔보면 해결 쉬울 듯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김송호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5199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사부대중 테마칼럼

삶의 진정한 의미 천착해야 재충전 돼

6월의 테마-휴식

"아침 시간을 쪼개고 저녁 시간을 활용해 잠은 줄여야 한다." "24시간의 하루 중 짬짬이 시간을 내어 자기 계발에 투자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시테크(時Tech), 휴테크(休Tech) 등 시간관리(Time Management)를 주제로 한 서적과 상품들이 쏟아져 나온지도 제법됐다.

현대인은 하루 종일 폭풍처럼 휘몰아치며 쉴 새 없이 일한다. '시간의 효율적인 사용'이라는 생활방식에 맞추다 보니 언제나 빡빡한 일정에, 업무 외의 시간까지 할애하며 직장에서 하던 일을 집에까지 가져와 일을 끌어안고 살고 있다.

이렇게 살아도 '삼팔선(38세 퇴출)' '사오정(45세 정년)' '오륙도(56세까지 직장에 남아 있으면 도둑)'를 면하기가 어렵다.

'비규정직법' 개정 논란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는 요즘이다. 20~30대 청장년들은 비정규직 고용 불안이나 취업의 기회가 아예 막혀버린 '88만원' 세대를 면하기 위해서라도 아침저녁 수면 시간마저 쪼개고, 인생의 많은 즐거움들에게는 등을 돌려야 할 것을 강요 받고 있다. 어쩌다 간혹 '성공'의 문턱에 발을 올릴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에서.

2009년 여름, 한국의 한복판에서 쉴 새 없이 무엇인가를 이행하고 만들어내지 않으면, 그리고 그 결과 끊임없이 소비하지 않으면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 의심하게 된다. 이러한 극단성이 현대사회에서 인간에 대한 왜곡된 모습을 만들어내고 '인간 소외'에 대한 그릇된 가치가 부여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으로 아는 것들을 고쳐나가지는 않는다. <에코토피아>에서 말하는 것처럼, 법정 근무시간을 20시간으로 줄여서 일과 삶, 세계에 대한 시각 자체를 바꾸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분명한 것은 일은 삶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삶 역시 일은 아니다. 일의 성과물에만 가치의 무게중심을 두지 말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본질적으로 천착해 나가야 스스로를 재충전할 수 있다.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일에 지친 삶을 변화시키며 일과 삶의 조화를 꾀하는 것이야말로 옛사람들이 나무에 기대어 바람을 쐬는 사람을 형상화하여 만든 '休'일 것이다.

일에 침잠하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자. 일과 삶의 교집합도 결코 하나는 아닐 것이다.

이번 여름, 남쪽의 푸른 바다나 깊은 산 속의 계곡에 갈 수 없는 형편이더라도 남의 이목을 끌지 않으며 느긋하게 '자신만의 휴식'을 여유롭게 즐겨보자.

진정한 휴식 없이 일에만 파묻혀 삶을 허비할 수는 없지 않은가? 일하지 않는 삶보다도 비참한 것은 '일중독자'일 것이다.

부처님께서도 허리가 편찮으신 어느 날은 아나율 존자에게 설법을 맡기지 않으셨던가. 하나님도 6일 간의 천지창조 끝에 하루는 푹 쉬셨다는 안식일이 있지 않은가.

그런 의미에서 항상 듣기 편하지 않은 나의 염불로 쉬지 못하실 우리 절 부처님께 오늘은 휴식의 선물로 유키 구라모토의 '로이스 호수(Lake Loise)'를 공양 올려야겠다.

정완 스님
전국비구니회 섭외국장
서울 정향사 총무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 성화미술원 내 전시관 : 031)591-1022
• 휴 대 폰 : 011-302-1022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산37번지
성화미술원 공장내 불교전시관
주 · 야 상담 합니다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전시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114 서비스] 검색 →
114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특급정보 통증을 시원하게 날린다!
글로코에이 팔꿈치 통증 · 관절통증 · 허리통증 · 어깨 · 목 통증



세상에 이럴 수가 통증이 싹

신기술 신물질로 만든 글로코에이크림이 항상 통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 희망이 되고 있다.
금강닥터사에서 시판되고 있는 글로코에이크림은 팔꿈치 통증, 무릎 관절통증, 허리통증, 어깨와 목의 통증 등에 바르기만 하면 통증이 사라진다.
강원도 정선에 계시는 토굴 스님은 5년 전부터 무릎 관절통증으로 걷기도 힘든 가운데 팔은 괜찮아 손으로 하는 일을 많이 해 팔꿈치 L보까지 통증이 와서 물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병원에서 약도 먹고 파스도 부치고 바르는 소염 크림도 발라보고 몇 년간을 노력했으나 새벽만 되면 극심한 통증은 더욱 심해 이것이 나의 고행이라 생각하고 있던 중 50대 후반정도 되는 등산객이 비상용으로 항상 가지고 다닌다는 클로코에이크림을 발라주겠다하여 나도 바르는 약이 있다 했지만 이것은 다릅니다. 하여 무릎과 팔꿈치에 바른 후 30분 정도 지난다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움직이기만 하면 통증이 오던 것이 사라진 것이다.
등산객은 스님 저도 골프를 너무 좋아해 무리한 운동을 하다 팔꿈치 L보를 다쳐 고생고생하다 이 크림을 만나 지금은 괜찮지만 골프를 못하고 등산으로 취미를 바꿨다는 것이다. 그 후 스님은 전화번호를 알아 2set를 구입했다고 한다. 사찰에서 스님 비상용으로 구입해놓으면 요긴하게 쓸 수 있다. 120㎖×2개. 1set 가격 30,000원(스님 특별할인 가격)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金剛닥터사 / 전화 02)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아픈이 이제 끝! 美國산 신비의 치약
지금 치아 때문에 고생하세요?
풍치 아픈이 치염 입냄새 등 7일이면 깨끗



7일만 닦으시면 평생 고생 안하십니다.

스님!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이가 아픈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스님만은 믿으세요. 그러면 치아로 인한고통은 없으실거예요.
사람들은 이가 아플 때마다 확 뽑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으나 이 하나 뽑을 때마다 수명이 3년씩 단축된다고 하는 미국 구강학회의 연구가 있듯이 연세가 들수록 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미국 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 치약은 그동안 오랜 임상 연구 끝에 2006년 4월 28일 미합중국 발명대회 特許 大賞을 수상하였다.
브라이트 치약은 어떠한 치아질환에도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처음 7일간은 아침 · 저녁으로 그 다음부터는 저녁에만 사용하면 구강내의 아픈 증세가 사라지고 계속 사용하면 치아가 튼튼해지는 것을 자각증상으로 느낀다. 이 치약은 사용할수록 윤택을 내며 하얀이로 美白효과까지 있는것으로 사용해본 이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우체국 택배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가격 : 50,000원
金剛닥터사 / 전화 : 02) 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정토원
초코파이고봉스님

당뇨의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탁월한 당뇨에 좋은 웰빙 당조고추 개발



제일종묘사와 농촌진흥연구소 및 강원대와 공동으로 3년 연구 끝에 혈당치의 상승을 억제하는 AGI(A-Gluosidase Inhibitor)라는 기능성 물질을 다량 함유한 신 기능성 고추를 개발하였습니다.

AGI는 십이지장 등에서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율을 저하시키는 효과가 있어 당뇨 등 각종 성인병의 예방과 치료에 이용되고 있는데 당조 고추를 당뇨에 걸린 쥐에 투여한 결과 식후 30분 후 혈당치가 120-150mg/de로 평소 180mg/de에 비해 상당한 혈당강화 효과를 거두었다.

정토원 주지 고봉 스님의 당조고추

"현시대 불교는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지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농사를 찾던 중 새롭게 개발된 기능성 고추인 당조고추를 재배하게 되었다." 평소 농사를 수행처럼 생각하시던 스님은 대중들이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 수 있도록 당조고추에 천연항생물질(프로폴리스)을 살포하여 기능을 강화시키고 고추작물에게 나무아미타불 염불과 명상음악을 듣게하여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이 세상에 황금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고 있다. 또한, 일체 친환경농법을 사용하여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7월 초 첫 출하를 앞두고 농협중앙회 식품검사소에서 농약잔류검사를 의뢰하여 280성분수의 농약을 검사한 결과 잔류농약이 검출 되지 않아 적합 판정을 받았다.



당뇨에 좋은 고추라 하여 "당조고추"

✔ 크기 및 색상
고추명은 당뇨에 좋은 고추라 하여 "당조고추"라 하였고, 이 당조고추는 다른 고추에 비해 20-50% 가량 크고 색상은 파피색이나 연노랑에서 오렌지색으로 크며 익을 땐 일반고추와 같이 빨강색으로 익습니다.

✔ 맛
당조고추의 맛은 일반 고추 맛과 똑 같으며 안 매운것과 약간 매운 맛으로 구분됩니다.

✔ 혈당저하 체험
당뇨환자들이 식사 전후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식사를 하면서 당조고추 3-4개를 먹고 40여분 경과 후 혈당을 측정하여 보면 혈당 수치가 현저히 떨어져 있는 것을 직접 확인 할 수 있으므로 자신이 체험하면서 먹을 수 있습니다.

✔ 성인병 예방에 효과
성인병 예방을 위하여 장기 섭취를 하면 각종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고 된장이나 쌈장에 찍어 먹어도 되며 파프리카와 같이 생식용이나 샐러드로 만들어 먹어도 좋습니다.

✔ 품종
우리나라 고추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기능성고추입니다.
A-Gluosidase Inhibitor 기능성 성분이 다량함유되어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으므로 세계최초 기능성 당뇨고추입니다.
농림부 산하 농림기술관리센터의 농림기술개발사업지원으로 육성된 품종입니다.
강원대학교 이해익 교수와 원예연구소 조명철 박사가 제일종묘농산과 공동으로 연구, 육성한 품종입니다.



7월 첫 출시를 앞두고 "당조고추"가 필요하신 불자님들 전화주시면 "당조고추"에 대해 자세한 설명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 정토원 : 경북 군위군 소보면 복성리 22 (☎ 054-383-0407)



군포교의 원력으로 군장병들에게 부처님의 자비를 전하는 초코파이 고봉 스님... 군사모와 함께 오랜 기간 마음을 情을 실천하고 계시다

군사모와 함께, '초코파이 보내기 운동' 계속

군 포교를 통해 군과의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고봉 스님은 사비를 털어 초코파이를 군에 보내기 시작한 지 어언 8년 그 세월 속에 수천상자의 정이 그들 마음속으로 전해졌다. 따뜻한 가족 같은 정이 부족한 장병들을 위해 "죽는 날까지 계속할 것입니다 그 초코파이 하나에는 부모의 정이 그려져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스님. 대구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 장병들에게 초코파이를 보내는 것이 소원이라 한다. 고무신 바람으로 절을 나서 한달에 꼭 한 두 번은 군을 찾아 장병들 손에 따뜻한 온기를 나누고 때론 국수도 끓여주는 스님. 보다 활발한 활동을 위해 권순삼 초대회장을 중심으로 군사모(군장병을 사랑하는 모임)를 결성하여 함께 초코파이 나눔을 행하고 있다. 30여명의 군사모 회원들과 함께 (편지쓰기 운동)과 (북한에 초코파이 보내기 운동)을 계획하며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메마른 정서에 정을 불어 넣고자 오늘도 스님은 정을 담은 초코파이를 준비한다. "군에서의 인연법이 일생을 바꿀 수있다." 말하는 스님은 또한 철이 들고 어른이 되는 곳도 군대라고 말한다. 하여 10년, 20년 그 이상을 바라고고 스님의 법문과 진심의 정을 나누는 봉사의 그 인연으로 훗날 장병들이 좋은 일을 할 때 그것이 뿌린 씨에 대한 보답이라며 농부의 마음으로 정성을 들이는 것이다.

사진설명
아들, 제자 같은 군인들이 초코파이를 받고 고마워하는 모습과 훈련도중 맛있게 먹는 초코파이 속에 부모의 정이 그려져 있다 말하는 스님.

[redacted]

"우주의 기운은 자력과 같아서, 우리가 어두운 마음을 지니고 있으면 어두운 기운이 몰려온다고 한다. 그러나 밝은 마음을 지니고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살면 밝은 기운이 밀려와 우리의 삶을 밝게 비춘다고 한다. 더없이 안락하여 즐거움만이 있다는 그곳.... 어디에 머물던 집착이 없이 마음이 평화로우면 그곳이 곧 극락세계라 하였다. 정토원이 바라는 곳이리라. 아침 일찍 오른 산세에 어느 순간 후두둑 하고 비가 내리더니 하루가 저무는 지금에도 여직이다. 처마에서 촉촉이 떨어지는 빗소리가 참으로 좋다. 산세에 연기가 자욱하니 피어올라 한편의 수묵화를 지천에서 보는 듯하여 마음에 고요가 찾아온다. 마음을 쓸어주는 정이 있을 때 세상이 아름다움을 정토원에서 느끼고 가는 바이다."

